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우란분절(백중) 등이 새롭게 나옵니다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6월 7일(음력 5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581 호

10代 포교 10년 실적 16.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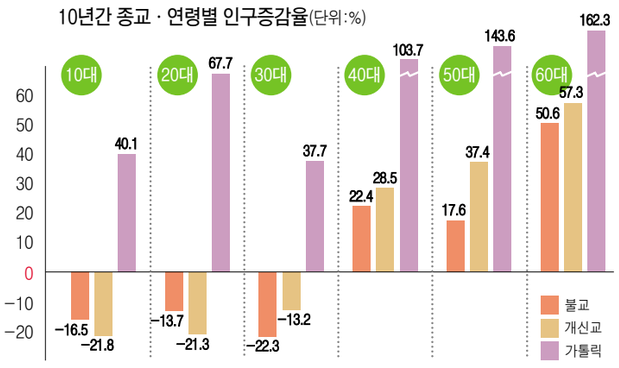
통계청 '2005 인구총조사' 연령별 불교인구 분석결과 … 20代 13.7%, 30代 22.3% 줄어

지난 10년간 종교를 가진 10대 인구의 비율은 1.6%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자는 16.5% 감소했다. 더구나 종교별 구성비에서도 2.3% 줄어들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가톨릭은 8.4%나 증가했다.

1995년 10대 불자의 수는 138만 7839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115만 9470명으로 조사됐다. 10년새 22만 8369명이 줄어 든 것이다.

10년간 진행된 불자 청소년의 감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불교의 미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6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행정구역/성/연령/종교별 인구'의 분석 결과는 불교계에 청소년 포교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 '성적표'였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나가야 할 방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지금 당장 돈 안 되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무관심했던 한국불교 현실을 고스란히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시대변화에 따른 계층별 포교전략을 세워 범종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연령별 분석결과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가톨릭의 40 · 50 · 60대 이상 신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노후를 앞두고 비교적 노인복지가 잘 돼 있는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청장년층 불자 수도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보였지만 가톨릭의 증가폭을 따라잡지는 못했다.

노인복지와 장례문화 등 관련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방증이어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한편 신도시 포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지난 10년간 불교 신자는 15.6% 증가한데 비해, 가톨릭은 93.4% 증가했다. 경기도 고양시도 불교 신자는 44.6% 증가했지만 가톨릭은 154.8% 증가했다. 관련기사 4면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박성효 대전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진선 강원도지사


김태환 제주도지사


박준영 전남도지사

광역 5 · 기초 27명 불자 당선

5 · 31지방선거, 불자 단체장 '선전'

5 · 31일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불자 자치단체장은 광역 5명, 기초 2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5월 31일 치러진 제4회 지방선거 후보자중 광역 단체장에 박성효(대전시장), 김관용(경북도지사), 김진선(강원도지사), 김태환(제주도지사), 박준영(전남도지사) 불자가 당선됐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안상영(부산시장), 김진선, 박태영(전남도지사), 우근민(제주도지사) 등 4명의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던 것과 비교하면 한명이 더 늘어났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개발원(공동대표 박윤흥)의 조사와 본지 자체집계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에는 16개 광역단체장에 10명, 230개 기초단체장에 67명 등 총 77명의 불자가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32명이 최종 당선된 것. 그러나 기초단체장의 경우 대전, 충남, 전북, 제주에서는 단한명의 불자 기초단체장도 나오지 않았다.

박성효 대전시장 당선자는 정무부시장이 현 시장을 누르고 당선의 영광을 차지한 이변의 주인공이다. 부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면에서 계속

보조사상연 월례발표회
17일 부다피아 생중계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의 6월 월례발표회가 인터넷 불교포털 사이트 부다피아(www.buddhapia.com)를 통해 실황 생중계된다.

6월 17일 동국대 다향관에서 열리는 월례발표회에서는 불교세계관과 선사상, 심리치료, 禪 카운슬링 등을 중심으로 3명의 소장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한다. 노병철 기자

여름 휴가 · 방학을 떠올리면 '사찰 수련회'가 생각난다

전국 60여 사찰 테마별 여름수련회 준비…6월부터 접수

미황사 · 부석사 어린이한문학당 인기
범어 · 마곡 · 신륵사 가족이 함께 참가
용주사 효행수련회 · 해인사 특강 다양

다시 여름이다. 때 이른 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올여름에도 역시 사찰 수련회는 보양식보다 좋은 생활의 활력소다.

전국 60여개 사찰에서 6월~8월 일제히 열리는 여름 수련회는 주제별로 다양한 내용이 눈에 띈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품질'로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여름 수련회. 나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안성맞춤일까?

여름방학이라는 계절의 특성을 반영하듯 올해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수련회가 많다.

대부분의 수련회 사찰은 별도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산 부석사(041-662-3824)와 해남 미황사(061-533-3521)의 '어린이 한문 학당'은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평창 월정사(033-332-6665)는 어린이 박물관교실을 마련해 불교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부산 홍법사(051-508-0345)는 숲속에서 즐기는 명상학교를 준비했으며, 경주 골굴사(054-744-1689)는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체험 수련회도 많다. 나주 불회사(061-337-3440)와 공주 영평사(041-857-1854)는 녹차 만들기와 백련꽃차 만들기가 수련회의 주제다. 원주 구룡사(033-732-4800)는 천연 염색과 생태체험을 주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꾸몄으며, 부산 홍법사는 부산 지역 외국유학생들의 문화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남의 대표적인 문화 코드로 자리 잡은 대흥사(061-535-5775)의 새벽숲길 체험도 놓치기 아까운 프로그램이다. 밀양 표충사(055-352-1070)는 절이 자리한 재약산 계곡을 탐방하며 물소리에 몸을 맡긴 채 삼매에 드는 '물소리 바람소리'를 운영한다.

이와 같이 다양화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래도 수련회의 백미는 역시 '수행'이다.

부산 범어사(051-508-3122)와 김천 직지사(054-436-6084), 김제 금산사(063-548-4441), 순천 송광사(061-755-0107), 예산 수덕사(041-337-6565)는 한국불교 정통선을 일반인들에게 전한다. 또 나주 불회사는 인도 명상법인 '아니짜 명상체험'과 관음대참회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여주 신륵사(031-885-2505)와 공주 마곡사(041-841-6226), 부산 범어사는 가족 수련회를 열 계획이며, 화성 용주사(031-234-0040)는 7월 27~8월 6일 모두 3차례에 걸쳐 '효행수련회'를 개최한다. 또 제주 원명선원(064-755-3322)과 고흥 제석사(061-835-9594)의 참선단식수련과 요가수련도 일반인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이밖에 대한민국 대표 수련회 사찰인 공주 마곡사와 합천 해인사(055-934-3110)도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마곡사는 신규 포교사와 교사불자,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만을 위한 수련회를 준비했으며 해인사는 7월 11일~8월 19일 총 6차례에 걸쳐 수련회를 계속한다. 특히 해인총림 유나 원융 스님의 '선(禪)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법문과 주지 현응 스님의 '부처님의 생애' 특강, 그리고 강원과 율원 스님들이 맡아 진행하는 '삼법인과 사성제', '계율론' 강의 등은 놓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용주사 포교국장 덕본 스님은 "사찰마다 수련회의 노하우가 쌓이면서 많은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심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각 사찰 여름수련회의 자세한 안내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 (02)732-9925~7 www.templestay.com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화담정사 조실 혜경 스님


시방세계 9면
단오날 해인사 소금 묻는 까닭은?

구인사 새터민템플스테이 8면
불교연극 '지대방' 리뷰 28면

용문사 윤장대 윤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전경


용문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등불사


영산회 괘불탱(보물 제1445호)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윤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팔상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윤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듭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윤장대를 돌리시어 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명자쾌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부석사, 청량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윤장대를 돌리시어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용문사 오시는 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JC ⇒ 중부내륙 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 용문사에서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 / www.yongmoonsa.com

조선왕조실록 고국 온다

도쿄대 "개교 60주년 서울대에 기증하겠다"

불교계 노력 결실… '기증' 방식엔 반대

한일합병 이후인 1913년 데라우치 조선총독에 의해 도쿄대로 강탈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 47책이 7월 경 서울대 규장각으로 반환된다.

도쿄대가 "실록을 서울대로 기증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올 3월 불교계를 중심으로 창단된 '조선왕조실록환수추진위원회(공동대표 정념 · 철안, 이하 환수위)의 노력이 크게 작용했다.

환수위는 그동안 실록에 대한 자료조사 및 실록의 유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실록환수를 위해 주일대사관측에 입장도 표명하고 도쿄대와 3차에 걸친 반환 협상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도쿄대가 실록을 반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환수위측의 '일본의 조선왕조실록 불법유출에 대한 법적 소송'에 대한 강한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교계의 적극적 움직임에 고민을 거듭하던 도쿄대측은 올해 규장각 설립 230주년과 개교 60주년을 맞은 서울대와 학술교류 형식을 빌어 실록을 서울대 규장각에 '기증'하기로 함으로써 강탈 93년만에 한국으로 되돌아오게 됐다.

이에 대해 환수위는 6월 1일 성명을 통해 "우리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도쿄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진심으로 환영할 만 한 일"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도쿄대 측으로부터 실록을 돌려받는 방식을 놓고 불교계와 서울대가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수위 간사 혜문 스님은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빼앗아간 자들에게 기증받는 것은 웃지 못 할 해프닝이다"며 "서울대는 도쿄대의 제안을 역사의식 없이 전격 수용함으로써 국민적 지지와 연대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승리의 영광'을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오대산 사고본은 원래 월정사가 관리를 맡았으며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만큼 실록은 서울대가 아닌 월정사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대 측은 실록이 국내로 반환되면 당연히 서울대 규장각에서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 측이 원래 실록이 보관돼 있었던 월정사 사고로의 귀속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제국 말 실록이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있었지만 1908년 순종의 칙령에 의해 이에 대한 관리권이 모두 규장각에 귀속됐다는 근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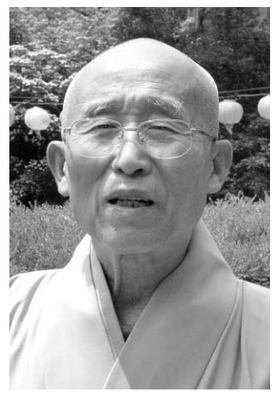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6주후 실록이 국내로 돌아오면 법적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이며 실록의 관리 주체는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대강백의 '경학공부' 맛보시라

월운 스님 능엄학림서 전통방식 수업

8월 13~18일, 스님 15명 대상



동국역경원장이자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월운 스님(사진)이 8월 13~18일 봉선사 운하당에서 능엄학림 하계 단기 공개수업을 연다. 경학을 하거나 강사에 뜻을 둔 스님들에게 전통방식의 수업을 알려 후일 강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다.

이번 단기 공개 수업에 강사로 나선 월운 스님은 "전통방식으로 경학 공부를 하면 경전 행간의 숨은 의미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번 수업기간동안 스승인 운허 스님에게 배운 방법 그대로 가르쳐 한국불교를 제대로 알고 전달할 수 있는 후학을 양성하는 발판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번 수업은 단발성 기획이벤트가 아니라 계속되는 능엄학림의 수업중 일부다. 교재도 능엄학림에서 사용하는 <화엄경>을 주교재로 '사기(私記)'를 주로 보며 공부한다.

사기란 선지식들이 경전을 공부하며 나름대로의 해설 주석을 단 메모장. 하지만 대부분 알아보기 힘든 초서로 필사돼 있어 이해하기 힘들지만 경전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월운 스님은 "이번 수업에서는 또 경전의 주제별 목차를 그림으로 표현한 과도(科圖) 보는법도 가르칠 예정"이라며 "과도는 어떤 경전을 공부해야할지를 선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모집인원은 15명이며, 자격은 역경을 공부한 경험이 있거나 뜻을 둔 학인스님이다. 접수는 7월 31일까지. (031)527-4495

김주일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6월 2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의 예방을 받고 "초심을 잃지 말라"고 조언했다.

"민심 잘 살피며 시정 운영을"

지관 스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에 당부

5 · 31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당선자가 6월 2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지관 스님은 "많은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심을 잘 살펴서 시정을 운영 해나가길 바란다"며 당선을 축하했다.

7월 3일 임기를 시작하는 오 당선자는 "선거를 치르는 과정은 즐거웠지만 막상 기대이상의 지지율로 당선이 되고나니 두렵기까지 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꼭 지킬수 있는 것만 공약으로 내건 만큼 실천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관 스님은 "민심은 약자에게 힘을 실어주다가도 강해지고 교만해 지면 다시 돌아서는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말고 항상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민심을 잘 파악해 시정(市政)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1일에는 최근 청와대 정책실장을 사임한 김병준 前 청와대 불자회장 내외가 지관 스님을 예방했으며, 5월 29일은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고건 前 총리가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사회현안에 대한 불교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글=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화계사 주지에 수경 스님



서울 화계사 주지에 불교환경운동 상임대표 수경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수경 스님은 5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졸가 후 첫 주지 소임을 맡게 된 수경 스님의 임기는 6월 2일부터다.

이날 지관 스님은 "수경 스님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격려했고 수경 스님은 "화계사 어른 스님들과 대중들을 잘 모시고 국제선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스님 수행현황 파악

조계종은 법계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종단 스님들의 수행이력을 6월 16일까지 일제 조사한다. 조계종 총무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스님들의 이동질서 체계 정립을 위해 각 교구본사(직할교구는 총무원)별로 수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종헌에 따라 사찰에 독신상주하면서 승단의 청정성과 정체성의 확립하려는 취지로 시행되는 수행현황 파악은 승려분한신고 과정에서 승려의 분한향유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02)2011-1701

조용수 기자

☞1면에서 이어짐

김관용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민선 1~3기 구미시장을 지냈으며, 김천직지사 조실이었던 관응 스님으로부터 '호연'이라는 불명을 받은 불자다.

3선에 성공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한용운 스님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을 만큼 불자들에 친숙한 인물로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전국에서 유일한 무소속 광역단체장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제주대 법학과를 나와 9급 공무원을 거쳐 제주시장과 민선 제주도지사에 오른 정통관료 출신. 당선자 보다 부인 강경선(61)보살의 불심이 더욱 돈독한 불자집안이다.

재임에 성공한 박준영 전남도지사도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김대중 정부시절 공보수석으로 청와대 불자회장을 맡는 등 독실한 신행활동이 남달랐던 것으로 유명하다.

조용수 기자

불자 광역단체장 명단

성명	지역	정당
김진선	강원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	한나라당
박준영	전남	민주당
김관용	경북	한나라당
김태환	제주	무소속

불자 기초단체장 명단

성명	지역		정당
	지역	지역구	
김충용	서울	종로구	한나라당
김효겸	서울	관악구	한나라당
이훈구	서울	양천구	한나라당
박성중	서울	서초구	한나라당
박극제	부산	서구	한나라당
윤덕진	부산	사상구	한나라당
어윤태	부산	영도구	한나라당
임병헌	대구	남구	한나라당
이영수	인천	남구	한나라당
조용수	울산	중구	한나라당
강석현	경기	고양	한나라당
최용수	경기	동두천	한나라당
이진호	강원	양양	한나라당
노승철	강원	홍천	한나라당
한창희	충북	충주	한나라당
황주홍	전남	강진	민주당
박희현	전남	해남	민주당
김휘동	경북	안동	한나라당
김수남	경북	예천	한나라당
이태근	경북	고령	무소속
박보생	경북	김천	한나라당
이정백	경북	상주	한나라당
남유진	경북	구미	한나라당
손이목	경북	영천	한나라당
황철곤	경남	마산	한나라당
김한겸	경남	거제	한나라당
이재근	경남	산청	한나라당

"큰 공덕 추모하오니 가호하소서"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다례재 봉행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 다례재가 5월 2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종정 법전 스님은 법계위원장 혜정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부처는 너의 마음머리에 있건만 세상사람들은 밖에서 찾으려고 하네. 안으로 큰 보물을 품고서도 부질없이 일생을 보내는 것을 알지 못하네"라고 설했고, 총무원장 지관스님도 "지극한 마음으로 조주의 청다(淸茶)를 올리고 다시금 종조의 큰 공덕을 추모하오니 자비로 섭수하시고 종단의 앞날을 가호하소서"라고 도의국사를 추모했다.

이날 제3회 도의국사 다례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활안, 동춘, 혜정 스님, 종회의장 법등 스님, 호계원장 월서 스님을 비롯해 동학사강원 학인, 조계사신도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조용수 기자

선거인단 '산중고유방식'으로

조계종 종헌종법 기초위

조계종의 종헌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초위원회(위원장 향적)가 5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선거법 관련 일부 조항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종회 내 각 종책 모임의 대표들이 참석한 기초위원회 회의는 총무원장선거법 제3조 선거인의 정의에서 선거인과 선거인단을 구분하고 선거인단을 '산중고유방식'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무엇이 산중고유의 방식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아 형식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쳤다. 또 제16조 선거 금지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담은 제31조 공권정지 2년 이하를 공권정지 6월 이상 2년 이하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향적 스님, 덕문, 이암, 장적, 운탈 스님 등이 참석했다. 제7차 회의는 6월 12일 열린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편집국장 : 위영란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서울 돈암동 六祖寺 현웅스님 신심명과 증도가 강설



선원장 玄雄스님

▶일시 : 6월 22일 (음력 5월27일) 시작,
9월 21일 회향.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신심명과, 증도가를 강의합니다.
(교재는 각자지참요, 성철스님 역신심명 증도가)
강의가 끝난 뒤에는 Tea Time과 좌담회를 가지며 묻고 대답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참가 대상은 신심있는 사부대중, 출재가자들은 다 입방할 수 있다.

- 입방비는 15만원입니다.
-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주무시고 갈 수 있습니다.
- 정원제이므로 조기에 입방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번호는 국민은행 : 016-701-04-017-439
- 육조사. Phone : 02)953-5291

* 신심명과, 증도가는 *
3조 승찬 스님께서 남겨두고 가신 禪門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증도가는 6조문하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바른 깨침을 확인 받고 가신 영가스님의 경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스님의 공부경험은 후세에 看話禪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종장들의 선문답이 이 두 스님의 가르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흔희들 선방에 앉아 있다고 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혼자 하게됩니다. 처음 시작이 잘못되면 다시 고쳐잡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그 결과 방황과 헛된 아상만 자라나서 지나치면 몸과 마음에병만 남습니다.
****요즈음 선 공부하려는 이들은 자기마음을 가려놓고 그 마음에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평생 헛노력일 것입니다.****
반드시 마음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가 시작 됩니다.

* 선원장 玄雄스님은 *
나이 20세에 구산 선사 문하로 출가 제방선원에서 정진했다.
대중생활을 그치고 산중에서 6년간 홀로 지낸 뒤 공부에 변화를 경험하고 토굴 생활을 끝냈다. 20년간 서양에서 간화선을 지도하고 2년 전에 돈암동에 육조사 선원을 개원했다... 조계산 선원장 간화선법회를 시작으로 국내 백고좌 법회, 성천 아카데미에서 육조단경, 불교 대학원에서 간화선 강의, 불교방송국에서 선수행 상담을 했다.
지금은 정신과 의사들에게 신심명을 강의하고 있다.

*** 저서로는 선문집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

봉 원각사 대웅전 원만 낙성 대법회 행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 대웅전 불사를 부처님의 은덕과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원만 회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광사 방장 보성 큰스님을 비롯하여 여러 대덕스님들과 재가 불자님들을 모시고 아래의 내용으로 함께하는 축하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충만한 기쁜 자리가 되도록 많은 불자님들의 수희 참석을 바랍니다.





대웅전 낙성 기념 법회
6월 11일(일) 오후 4시
무여 큰스님(축서사 선원장)

대웅전 낙성식 봉행
6월 13일(화) 오전 11시

대웅전 낙성 기념 행사
6월 12일(월)
- 나눔장터
- 연꽃사진전
- 사찰음식 전시회 및 조리시연
- 낙성 전야음악회 (이화실내음악단과 합창단)

※ 원각사의 변천과정 사진전과 기념품 증정

송광사광주포교당 원 각 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4가 51
TEL 062)223-3168 / FAX 062)232-7544

응용불교학회 |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

이달 중 잇따라 창립 총회

불교학 영역확대 · 지역학회 활성화 기폭제 역할 기대

불교학계의 오랜 화두인 '응용불교학의 영역확산'과 '지역학회의 활성화' 과제가 풀릴 조짐이다.

응용불교학회(가칭, 준비위원장 김응철)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공동회장 강동균 · 김용환 외 2명)가 이달 잇따라 창립된다. 불교학과 사회과학의 접목을 통해 불교학의 저변확대 및 불교의 사회화를 연구하는 '응용불교학회'는 6월 중순 창립총회를 가진 뒤 6월말 출범할 예정이다.

그동안 불교계학회는 유식, 중관, 선사상, 경전연구 등 불교학 내에서는 상당히 전문 · 세분화돼 있었지만 순수 불교학 영역에만 국한되면서 타학문영역과의 융합과 사회문제 해결에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김응철 교수는 "앞으로 응용불교학회는 순수불교학자와 사회과학자, 인문과학자, 정신과 전문의, 심리치료학자, 법학자 등 불자로서 응용불교학 발전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 간의 교류와 학제적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의 해법을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응용불교학회 앞으로는 동국대 박경준 · 고영섭 교수, 서울대 윤원철 교수, 고려대 조성택 교수, 강원대 정기문 교수, 경기대 진희권 교수, 서강대 노부호 교수, 한별정신병원장 최훈동 원장 등 학자들과 전문가를 다수 회원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응용불교학회는 또한 조계종 포교원과 공동연구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포교, 종무행정, 사찰 운영 등 실무적 영역은 물론 문화 · 예술 영역에 있어서도 현장과 접목시킨 실증적인 불교학 발전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산 · 경남지역의 불교학자들로 구성된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가 6월 9일 창립, 지역학회 활동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동아시아불교와 근 · 현대사회'를 주제로 6월 9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여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앞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생명 · 윤리 · 생태 · 환경문제와 동아시아불교문화 연구를 집중 조명한다.

부산대 김용환 교수는 "그동안 불교학회나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인정하는 등재후보 · 등재지 자격을 갖춘 불교학술지 대부분이 서울에 편중돼 있어 지방 불교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부산 · 경남지역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불교학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재야 불교학자와 젊은 불교학자들의 '사랑방 연구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는 김용환 교수와 동아대 강동균 교수, 동경대 스에키 후미히코(末本文美士) 교수, 북경대 사회과학원 웨이따오위(魏道儒) 교수가 공동회장으로 선임돼 있어 국제적 교류 증진에도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통도사 前 주지 성파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국제신문 김광삼 사장, 부산불교방송 류진수 사장, 불교실업인회 김윤환 회장 등 범불교계 인사들이 임원으로 구성돼 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천성산 끝내 뚫린다

대법원, 착공금지 재항고 기각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원효터널의 공사착공을 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경부고속철 천성산 관통공사와 관련해 천성산 내 내원사, 미타암, 도롱뇽, 환경단체인 도롱뇽의 친구들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재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들은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을 근거로 개인이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통설과 기존 판례에 따라 직접 피신청인에게 고속철도 중 일부 구간의 공사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며 자격없음을 판시했다.

대법원의 결정 직후 지율 스님은 "단층대의 위험, 지하수 유출 등은 언급하지 않고 2003년 실시된 대한지질학회의 결과에 비중을 두고 판결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지고도 이기는 재판을 하고, 이기고도 양보하는 재판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며 담담하게 심경을 피력했다.

스님은 앞으로 천성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전국 답사를 마무리한 뒤 환경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천미희 · 박봉영 기자



이동재활차량에서 신나게 치료받는 어르신들.

"무릎도 안 시리고 살맛 나"

은평복지관 '이동 재활치료차량' 인기

"요즘엔 무릎도 안 시리고, 살 맛 나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차타는 재미로 산다니까."

박명자(79 · 서울시 응암3동) 할머니는 요즘 다리가 나아지면서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해 8월부터 은평노인종합복지관(대표이사 성운)이 운영하는 '이동재활치료차량'에서 꾸준히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원래 퇴행성관절염과 요통, 무릎 통증을 달고 살았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우울증까지 생겼었다. '병원을 다닐 돈도 없고, 보러 올 자식도 없고, 움직이면 몸이 아파' 할머니는 허름한 무허가 주택에서 누운 채로 속절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기만 했다. 그러나 매주 한 차례씩 집 앞까지 오는 버스에서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한 뒤로는, 몸도 마음도 나날이 건강해지고 있다. 물론 치료비는 무료다.

약사보살처럼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손을 뻗치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이동재활치료차량' 서비스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시작됐다. 이 버스는 각종 노인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장비와 운동치료장비, 물리치료장비, 휠체어 리프트와 자가발전기 등 25종의 장비가 장착돼있는 45인승 개조버스로, 불교계는 물론이고 국내 유일의 재활치료전문차량이다.

서울시가 2년 전 버스를 지원한 이후로, 은평구 내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이나 치료비가 없어 엄두를 못내는 저소득 · 독거노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무료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매 주 쉬지 않고 은평구 내 20개 동을 순회한 덕분에, 벌써 치료건수만 3만 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이은비 기자

9차 세계여성불자대회 16일 말레이시아서 개막

제9회 세계여성불자대회가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총전시센터에서 열린다.

'세계 다문화공동체 속에서의 여성불자들(Buddhist Women in a Global Multicultural Community)'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여성 불자, 불교 교리와 비교문화사이의 정보전달, 비구니 율장과 여성 구족계, 불교교리 번역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진다.

국내에서는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교수)과 혜선 스님(동국대 선학과), 김정희 교수(이화여대), 이향순 교수(미국 조지아대)가 논문을 발표한다. 6월 22~24일에는 피낭, 이포 등의 사찰을 둘러보는 일정도 마련된다. 국내에서는 발표자를 비롯한 5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성 불자간의 화합과 정보교류, 복지증진, 여성 인력 양성을 위한 세계여성불자대회는 '사캬디타(sakyadhita, 석가의 딸들)'라 불리는 세계여성불자협회(회장 소모)가 1987년 인도 보드가야에서 처음 개최했다. 이후 2년마다 대회가 열려 왔으며, 지난 2004년 한국에서 8차 대회가 치러지기도 했다. www.sakyadhita.org

여수령 기자

인니 지진피해 긴급구호

구호물품 전달 의료진 파견

인도네시아 자바섬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월 2일 현재 6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 불교계가 자비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사회복지재단은 "인도네시아 현지 사정이 자체 캠프를 차릴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긴급재난구호봉사단 중 외과의 3명을 포함한 의료진 5명 내외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5월 30일 밝혔다. 의료진은 다른 의료지원단체에 포함돼 활동하게 된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애도문 발표, 구호성금 및 물품 전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정토회의 국제구호단체인 JTS(이사장 법륜)는 5월 29일 2명의 활동가를 피해가 가장 심각한 반툴지역에 급파한데 이어 서울 부산 등 10개 도시에서 긴급구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JTS는 "현장의 많은 NGO들과 함께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온 힘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진흥원, 동국대에 1억 전달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동국대에 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홍승희 이사장은 6월 1일 이사장실에서 동국대 홍기삼 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하며 "건학 100주년을 맞이한 동국대를 이끌어 갈 인재 육성을 위해 이 기금이 잘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홍기삼 총장은 "대한불교진흥원이 학교 발전을 위해 소중한 정재를 출연해준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불교 인재 육성을 통해 학교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남동우 기자

'정신치료학회' 신선한 충격 목탁소리 언제까지 남 탓만 할 것인가

'코리안 타임'.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시간관념을 질타한 부끄러운 단어다. 이 단어는 비단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한국인'이란 뜻만 지니고 있지 않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 '그냥 대충 하지 뭐' 하는 식의 한국인의 고질병(?)도 내포하고 있진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불교계학술대회도 이 '코리안 타임'의 전형으로 변질되고 있진 않나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미나 개회시간이 30분이나 지났음에도 그때서야 부랴부랴 마이크 테스트며 세미나 준비를 하는 것은 아예 관례화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제학술대회란 명목으로 대회를 개최하지만 제대로 번역된 논문이 없는 논문자료집 발간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고 아예 당연한 시행착오의 과정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불교계 학술단체들의 잘못된 마인드다. 이런 제반 상황 등에 익숙해 갈 즈음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학술대회가 있었다. 바로 최근 열린 한국정신치료학회 학술연찬회다.

이 단체는 논문집과 함께 '발표자 평점 및 개선점 의견서'를 참가자 전원에게 배포해 발표자뿐만 아니라 참가한 사람들도 발표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문제점들을 지적함으로써 다음에 열릴 대회를 더 알차게 열 수 있도록 해주는 일종의 '개선장치'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제 불교계학회도 이런 점들을 본받아 적용하는 것은 어떨까.

■노병철(취재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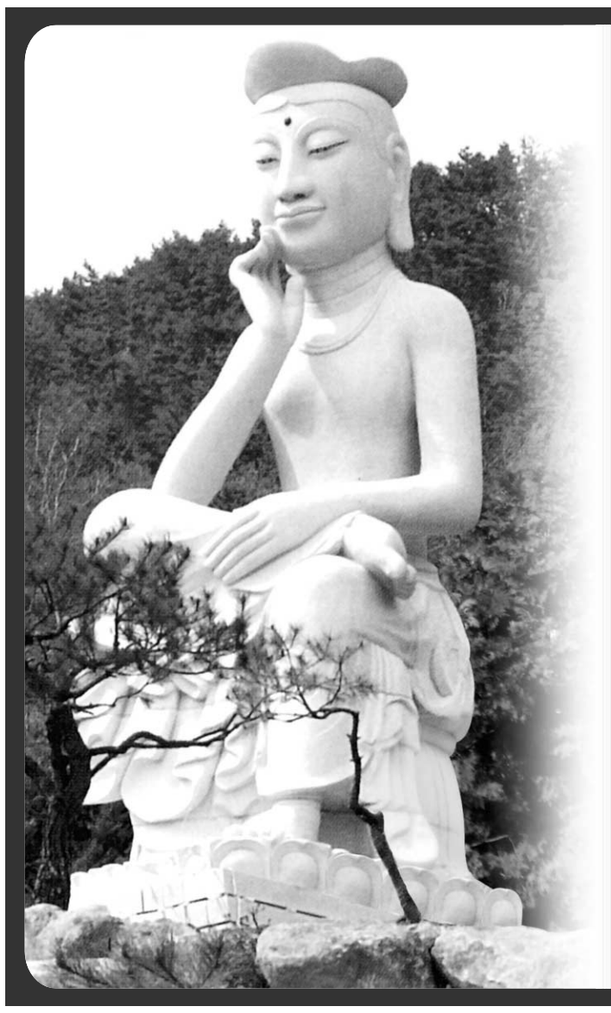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학담)가 5월 30일 방송위원회의 경인민방 선정에 대한 항의 성명과 이성언 불교방송 사장의 사퇴 촉구를 결의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제16차 사회분과회의는 '경인방송 사업자 선정 및 불교방송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의 건'을 다뤘다. 4월 28일 방송위의 결정이 난지 한달도 더 지난 시점에서 사회분과위는 방송위를 향해 사업자 선정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또 6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기독교방송의 성명서에 서명했다며 이성언 사장의 퇴진을 불교방송 이사회에도 요구하기로 했다. 나아가 총무원에는 경인민방 문제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회의가 중반을 접어들 무렵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인식한 탓인지 종회의원 지만 스님은 "일이 이지경이 되도록 교계언론이나 총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한심하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종도들의 대의기구로 가장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가진 중앙종회가 정작 경인민방 선정과 관련 대응한 일은 3월 임시종회서 성명서 채택한 것이 전부였다. 기독교방송의 경인민방 참여가 종교간 형평성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경고해왔던 교계언론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았나보다.

이날 중앙종회 사회분과회의가 경인민방에 대해 결연한 의지를 보인것은 분명하지만 총무원, 이성언 사장, 교계언론의 무능을 성토하기위한 자리가 되어버린 것도 사실이다. 이날 존G 밀러의 책제목 <바보는 언제나 남의 탓만 한다>가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

■조용수(취재부 기자)



세계최대의 석불

미륵반가사유상 점안대법회

산과 섬, 삼천포대교의 휘황찬란한 야경과 한려해상의 일몰이 자연 풍광과 더불어 빼어난 조화가 어우러진 용각산 대방사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높이 12m의 미륵반가사유상 점안대법회를 봉선사 조실이신 월운 큰스님과 스리랑카 라마니 종정이신 메이다 랑카 큰스님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대방사가 위치한 이곳은 일찍이 미륵신앙이 깃든 해상관광의 중심지이며, 1978년 3월 보물 제614호로 지정된 사천 흥사리 매향비와 삼천포 향촌 매향비가 바로 미륵신앙의 고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세계 최대의 높이 12m 미륵반가사유상 대역사 석불의 조성은 중국 복건성 샤먼(厦門)에서 돌을 가져와 1990년 불사를 시작으로 15년 원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세계최대 미륵반가사유상 점안대법회에 전국의 불자님들을 초청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법연(法緣)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아 래 –

⊙ 일 시 : 불기2550(2006)년 6월 11일(음력 5월16일) 오전 9시부터
⊙ 장 소 : 대방사
⊙ 제1부 – 점안의식(09:00)
증명법사 : 월운 큰스님(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증명법사 : 메이다 랑카 종정 큰스님(스리랑카 라마니 종단)
법 주 : 도안 스님(대방사 주지)
⊙ 제2부 – 점안대법회(10:30)
법어(1): 월운 큰스님(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법어(2): 메이다 랑카 종정 큰스님(스리랑카 라마니 종단)
⊙ 제3부 – 산사음악회(오후 3시)
출연진 : 조항조 오은정 外 다수
⊙ 제4부 – 관등행사(오후 7시)
미륵대불 관등돌이
⊙ 교통편 : 경부 고속도로 →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 → 사천IC → 국도 3호선 → 대방사
남해 고속도로 → 사천IC → 국도 3호선 → 대방사

삼천포 | 남해바다를 굽어보고 있는 용각산 기슭 삼천미륵 부처님 도량

대 방 사 주지 도 안 두손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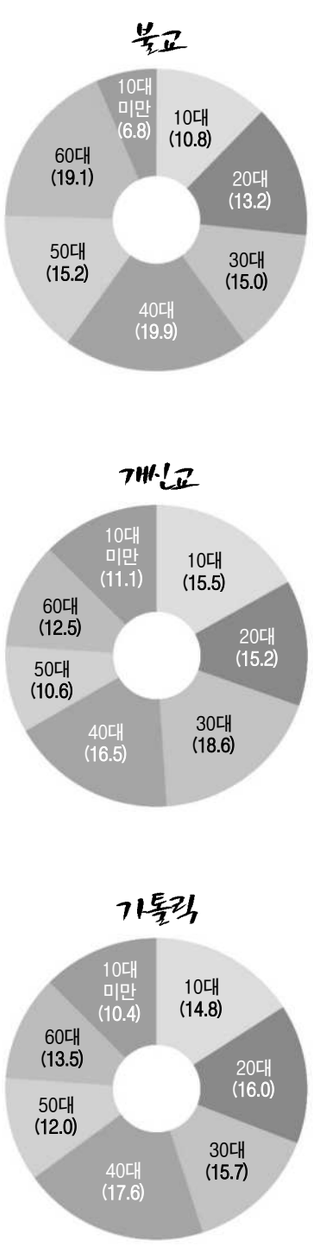
경남 사천시 대방동 44번지 ☎(055)832-6985, (055)833-5197

5교 금 23시

60대 이상 불자 50% 증가… 수도권 포교 '발등의 불'

2005 인구주택 총조사 분석

2005 종교별 연령대 구성비(단위:%)



▲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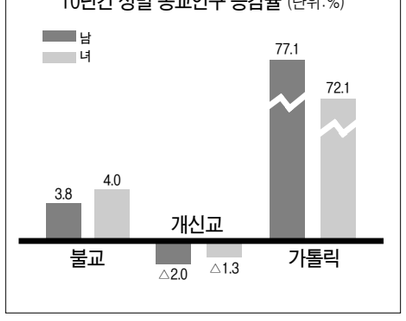
지난 10년 간 불자는 여자가 더 많이 증가했지만, 가톨릭은 남자가 더 많이 늘었다. 다른 종교에 비해 불교가 여초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세 종교 모두 여자 신자 비율은 53% 정도였다.

2005년 불자 1072만6000명 중 남자는 505만5490명(47.1%)이었다. 이는 1995년 보다 18만4637명(3.8%) 증가한 것이다. 여자는 567만0973명(52.9%)으로, 95년 보다 22만0814명(4.0%) 증가했다.

개신교 신자 861만6438명 중 남자는 400만3536명(46.5%), 여자는 461만2902명(53.5%)이었다. 95년에 비해 남자는 8만3820명(2.0%), 여자는 6만0078명(1.3%) 감소했다.

가톨릭 신자 10만4575명 중 남자는 5만7629명(46.1%), 여자는 4만6946(53.9%)이었다. 95년에 비해 가톨릭은 남자가 103만3214명(77.1%), 여자가 116만2203명(72.1%) 증가했다.

10년간 성별 종교인구 증감율 (단위:%)



▲ 연령별

40대 이상 불자 절반 넘어

불자는 전체 중 40대, 50대, 60대 이상이 1 · 3 · 2위를 차지했으며 절반(54.2%)을 넘었다. '나이든 불교'의 현실이다. 이에 비해 가톨릭은 40대, 20대, 30대가 1 · 2 · 3위를 차지하면서 비교적 '젊은' 모습을 보였다. 개신교도 30대, 40대, 10대 순.

2005년 불자는 40대(213만5571명, 19.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60대 이상(205만0239명, 19.1%), 50대(162만5863명, 15.2%), 30대(160만6154명, 15.0%), 20대(141만4557명, 13.2%), 10대(115만9470명, 10.8%)가 이었다. 95년에는 30대, 40대, 20대, 10대, 50대, 60대 이상 순이었다.

가톨릭은 40대(90만4071명, 17.6%)가 가장 많았고 20대(82만1020명, 16.0%), 30대(80만7868명, 15.7%), 10대(76만3458명, 14.8%), 60대 이상(69만5870명, 13.5%) 순이었다. 95년에는 30대, 10대, 20대, 40대, 60대 이상.

개신교는 30대가 18.6%(145만1052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40대(142만1039명, 16.5%), 10대(133만5277명, 15.5%), 20대(131만0811명, 15.2%), 60대 이상(108만0136명, 12.5%) 순이었다. 95년은 10대, 30대, 20대, 40대, 60대 이상 순.

30대 이하 불자 모두 감소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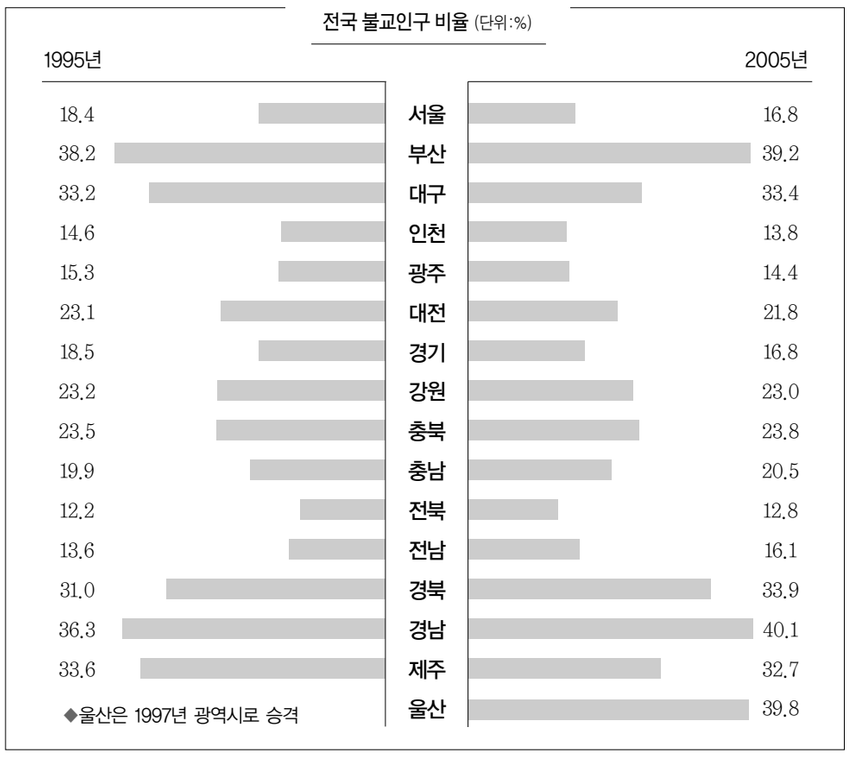
불교, 개신교, 가톨릭 모두 고령화 사회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불교, 개신교는 10 · 20 · 30대 모두 감소한데 비해 가톨릭은 증가했다. 가톨릭은 특히 40대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95년에 비해 10대 불자는 22만8369명(16.5%), 20대는 22만4448명(13.7%), 30대는 46만1618명(22.3%) 감소했다. 40대부터 39만0746명(22.4%), 50대 24만3902명(17.6%), 60대 이상 68만8514명(50.6%) 등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신교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10대 신자는 37만2876명(21.8%), 20대는 35만4305명(21.3%), 30대는 21만9820명(13.2%) 감소했다. 그러나 40대 31만4957명(28.5%), 50대 24만7997명(37.4%), 60대 이상 39만3253명(57.3%) 등 중장년층은 증가했다.

그러나 가톨릭은 10대 21만8485명(40.1%), 20대 33만1568명(67.7%), 30대 22만0993명(37.7%)이 증가했다. 특히 40대 46만0314명(103.7%), 50대 36만2641명(143.6%), 60대 이상 43만0524명(162.3%) 등 중장년층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 불교인구 비율 (단위:%)



남녀비율 |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모두 47:53

40대 이상 | 불교 · 개신교 비해 가톨릭 크게 늘어

불교세 강한 영남권 불자 비율 40% 육박

▲ 행정구역별

수도권 · 대도시 불자 비율 감소

지난 10년 간 수도권 불자 비율은 감소했다. 영남권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도심포교를 등한시 한 결과로 분석된다.

2005년 서울시 불자는 16.8%로 95년 18.4%에 비해 1.6% 줄었다. 인천시 또한 95년 14.6%에서 2005년 13.8%로 0.8% 감소했다. 경기지역도 18.5%에서 16.8%로 1.7% 감소했다.

광주시도 15.3%에서 14.4%로 0.9% 감소했으며, 대전시도 23.1%에서 21.8%로 1.3% 줄었다.

경남 불교인구 비율 40.1%로 최고

행정구역 내 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경남(40.1%), 울산시(39.8%), 부산시(39.2%), 경북(33.9%), 대구시(33.4%) 등에서 높게 나왔다. 특히 경남, 경북지역은 95년에 비해 각각 3.8%, 2.9% 증가했다.

이에 비해 전남과 전북지역은 각각 29만2747명(16.1%), 22만7364명(12.8%)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남지역은 지난 10년 간 2.5%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분당 가톨릭 인구 두배로

신도시 포교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불자는 5만7824명으로 95년 보다 7797명(15.6%) 증가했다. 개신교는 10만4798명으로 1만0059명(10.6%) 증가. 이에 비해 가톨릭은 8만0425명으로 3만8837명(93.4%) 증가했다.

같은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도 불자는 13만1969명으로 95년 보다 4만0698명(44.6%) 증가했고, 개신교도 213132명으로 73942명(53.1%)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가톨릭은 124182명으로 75439명(154.8%)으로 증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 경우 181만5174명 중 절반 이상(51%)인 92만5595명이 종교가 없었다. 강원도도 74만7547명, 충청북도도 73만 3464명, 광주도 73만1497명이 종교가 없었다.

불교 신자 가장 많은 곳 경기도

행정구역별로 보면 경기도에 불자가 174만1401명(16.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불교세가 성장했기 때문이라기보다 경기도 인구 증가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이어 서울시(164만2667명), 부산시(137만8384명), 경상남도(122만542명), 경상북도(87만8509명) 순이었다.

개신교도는 경기도(226만0594명), 그 다음은 서울시(222만2831명), 인천시(56만3433명), 전라북도(46만7454명), 전라남도(39만6183명) 순.

가톨릭은 서울시(138만2264명)가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128만6104명), 인천시(34만5843명), 부산시(26만1410명), 대구시(24만0230명) 순이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 淞澹 지음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대한불교조계종제 25교구본사
봉선사 조실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을 (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로다" (감탄하시였다)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바보사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생활화를 위해 펴내는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와 만나는 유익한 잡지



봉축화보 | 불기 2550(2006)년 부처님 오신 날
성전 스님의 산사의 풍경소리 | 부처님 곁에 머물고 싶다
고산 스님의 지상법문 |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100일 법회 "행복의 종자를 심어 부디 행복해지십시오"
2006 청정운동 |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보현 보살 10대 행원 해설 – "보현행원 실천하여 우리가 부처임을 깨닫자"
특집 | 마음 치료, 이제는 문화로 한다 – 문화예술과 대안치료
미술, 음악, 무용 등 문화예술 활동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치료하는 이른바, 대안치료의 세계를 알아보았다. 문화 치유요법에는 어떤 것이 있고, 실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마음 치료란 무엇인가
- 미술치료 – 미술은 마음의 표현이다
- 음악치료 – 한방음악치료의 활용
- 무용치료 – 춤과 명상을 응용한 몸 깨어나기
- 서구에서 심리치료에 응용되고 있는 불교수행법

종범 스님의 말하는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선(禪)의 실질적 내용과 일상생활에서의 응용
불교심리학 | 심리치료로서의 불교 (2)
지상중계 | 미얀마 파욱 사야도가 지도하는 부처님의 호흡관 수행법 (2)
열린불교, 열린경영 | 신개념의 도심 총림(叢林), 불교타운 건립하는 영남불교대학
한호흠 쉬고 떠나는 여행 | 지리산 칠백고지 고운동 이창석 씨 가족
buddhism & music | 마음으로 듣는 명상음악 「Waking The Cobra」
문화기획 | 소설가 김종록이 쓰는 바이칼을 시원으로 하는 신화와 불교
작은박물관을 찾아서 | 고관화박물관
국제불교 산책 | 하버드대학 일미 스님의 종교 뒤집어보기
미국 백인불교의 양면성
지리산 대안 스님에게 배우는 현대인의 건강 밥상
사찰요리법으로 만드는 소풍 도시락
건강에세이 | 당신의 허리는 튼튼합니까?
2006년 여름(6월~8월) 주요 사찰 템플 스테이 일정표
억불시대 수행열전 | 금강산에서 선풍(禪風)을 드날린 서산 대사의 후예들
생활 속의 불교설화 | 흔침의 노예, 봄날 오후가 나른해지는 진짜 이유
(별지) 하루에 돌아보는 테마여행 | 서울의 석비(石碑)

전화 02-719-2606 www.buddhistculture.co.kr

즐거운 법회 '비법' 공개합니다

동련, 어린이 사찰체험 모범 프로그램 모음집 발간

어린이 법회를 보다 즐겁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 토요 휴업일을 이용한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지침서는 없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지현)의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소장 심산)에서 어린이 사찰체험 모범 프로그램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한다.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는 법회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이 책만 보면 어린이와 함께 법회나 활동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6월 중순 경 발간되는 이 책은 토요휴업일이나 어린이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언어, 전래놀이, 미술, 음악, 숲 체험활동, 스포츠, 과학8개 분야, 40개 항목의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현직 교사, 스님, 오랫동안 어린이법회 현장에서 활동해온 교사 등 10명의 연구위원들이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꾸준히 실시돼왔던 프로그램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모아 정리했다.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요리의 경우, 월별로 세시풍속과 제철 재료를 이용한 요리들로 구성해, 떡국, 앵두화채, 수박화채, 쑥털털이, 다식, 국수, 차례 음식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래놀이 등 8개 분야 40개 항목
체험 활동과 의미·방법론 담아
본말사 주지 연수 통해 교육·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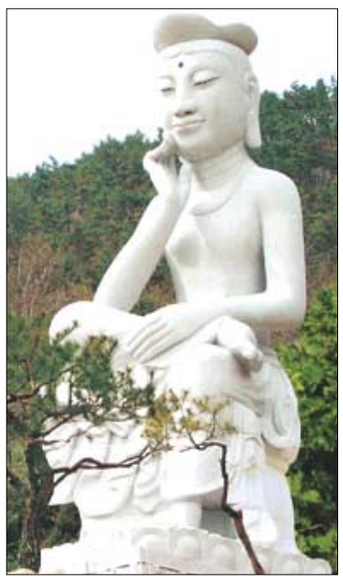
전래놀이의 경우도 부모세대가 해왔던 놀이를 아이들이 참신하고 새로운 놀이로 받아들이면서 각광받고 있다. 굴렁쇠놀이, 공기놀이, 비석치기, 줄다리기 등의 놀이는 컴퓨터 앞에서 혼자 놀던 아이들이 부모 혹은 친구들과 더불어 놀이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

이 밖에도 아이들을 사찰의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게 이끄는 숲 체험 활동도 인기만점이다. 나뭇잎사귀, 낙엽 등 자연물을 이용한 창작품은 아이들의 독창성을 길러주고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숲이 주는 혜택 20가지 적기, 자연 팔레트 만들기 등 숲 체험활동 뒤에 그 활동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까지 제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동련은 6월 3~4일 열리는 41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서 두 차례 토요휴업일 프로그램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6월 29일부터 7월 27일 열리는 전국 본말사주지연수에서 책자에 담긴 프로그램 교육 및 보급에 나서게 된다.

어린이불교교육연구소 심산 스님은 "토요휴업일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일은 포교뿐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교육면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천 대방사, 3천 미륵불 봉안

국보 제83호 미륵반가사유상을 축소한 3천 분의 미륵불상이 한 법당에 봉안되고 옥외에는 12미터 높이의 석조 미륵반가사유상(사진)이 조성됐다.

경남 사천 대방사(주지 도안)는 6월 11일 오전 9시 미륵반가사유상 점안대법회를 봉행한다.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을 증명법사로 봉행될 법회에서는 스리랑카 라마니 종단의 메이다 랑카 종정 스님이 법문 할 예정이다. (055)833-5197 천미희 기자

울 가을 개방 앞둔 내금강의 불교유적

부처님 품 속에 온 듯

오는 가을부터 관광이 시작되는 내금강 지역에는 어떤 불교유적지가 있을까. 외금강이 남성적인 산악적 풍미를 자랑한다면 내금강은 유명 사찰과 불교문화유적을 포함한 수려한 계곡으로 알려져 있다. 98년 11월 금강산 관광 개시 이후 내금강 지역에 대한 답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5월 27일, 표훈사에서 묘길상까지 약4km 구간을 답사한 현대아산과 조계종 총무원 답사팀이 탐방한 내금강 명소 5곳으로 함께 떠나보자.



북한 국보 제46호 '묘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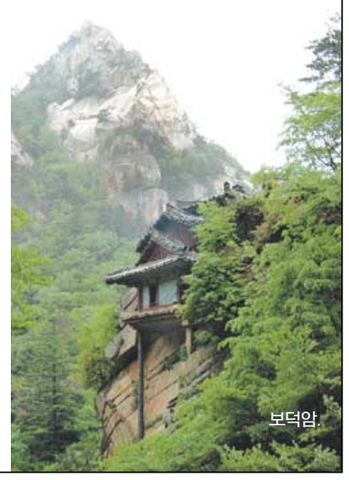


표훈사 전경.



북한 보물 제41호 '삼불암'

묘길상-나옹 선사 조성 설
표훈사-창건 당시 20여채
삼불암-뒷면 부처 60분 새겨
보덕암-절벽 위 암자 '탄성'



보덕암.

◯…북한 국보 제46호로 지정돼 있는 묘길상(妙吉祥)은 고려 말기에 묘길상암을 중창한 나옹(懶翁) 선사가 직접 새겼다는 좌불상으로 문수보살(文殊菩薩)의 다른 이름이다. 안정감 있는 연화좌(蓮華座) 위에 결가부좌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며 오른손은 위로 쳐들어 시무외인(施無畏印), 왼손은 아래로 내려 여원인(與願印)을 취하였다.

얼굴은 섬세하고 부드러운 반면에 아래의 옷 부분은 굵고 굳세며 야외광선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잘 나타냈다.

◯…내금강 만폭동에 있는 보덕암은 만폭동 분설담의 오른쪽 절벽에 매달리듯 서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기묘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보덕굴이란 이름은 옛날 이곳에서 마음씨 착한 보덕각시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고 하여 붙여진 것이다.

◯…670년에 창건된 만폭동 어귀에 있는 표훈사는 원래 20여채의 건물로 이뤄져 있었으나 지금은 반야보전 영상전 명부전 등 일부만 남아있다.

표훈사를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다리는 주변의 기암들이 개울물에 비쳐 아름답기로 유명한 함영교(含影橋 : 그림자를 머금고 있는 다리)가 있기도 하다.

◯…강원도 회양군 내금강면 금강산 장경봉(長慶峰) 아래에 있는 장안사 옛터. 신라 법흥왕 때, 또는 551년(양원왕 12) 고구려의 승려 혜량(惠亮)이 신라에 귀화하면서 창건하였다고 한다.

◯…북한 보물급 41호인 삼불암도 빼놓을 수 없는 내금강의 불교유적지다. 높이 8m, 길이 9m인 삼불암은 강원도 금강군 내강리 봉래동에 소재한 마애불. 세 부처를 새긴 바위 뒷면에는 앞면과 같은 넓이에 60분의 작은 부처를 새겼다. 노병철 기자

부산불교실업인회 '묘광선원' 개원

정기법회·문화 강좌·청소년 포교에 활용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윤환)는 5월 30일 부산불교실업인회관 옥상에 묘광선원을 개원하고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묘광선원 개원법회 모습.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감로사 주지 혜총 스님, 부산불교실업인회 공병수 회장, 김광삼 국제신문 사장 등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개원법회는 부처님 봉안의식에 이어 공로패 전달, 회장 인사, 축사, 법문의 순서로 진행됐다.

묘광선원은 회원들이 기금을 모아 건립한 법당으로 이날 개원법회에서 이수환 감사, 이환길 사업이사, 조재원 이사, 김명준 회원 등이 공로패를 받았다.

김윤환 회장은 "부산불교실업인회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법당 건립을 하게 돼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다"며 "앞으로 묘광선원이 부처님 법을 널리 펴는 포교 도량, 수행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묘광선원은 앞으로 법회공간이 없는 신행단체의 법회 공간이나 각종 문화 강좌,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다. (051)818-9914

글·사진=천미희 기자

소년소녀가정돕기 혜원음악회



사회복지법인 혜원(이사장 원허)은 5월 27일 부산 혜원정사 대웅전 앞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소년소녀가정돕기 혜원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1부,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음악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이자 혜원정사 조실인 고산 스님을 비롯 부산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혜총 스님 등 30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지은아 부산불교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1부는 혜원정사 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이어 사회복지법인 혜원 이사장 원허 스님은 백현아 등 20명의 소년소녀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어진 2부 열린 음악회는 설운동, 유지나, 우순실, 하남석, 난타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참석한 대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천미희 기자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5주년

부산 미룡사(주지 정각)는 5월 28일 문화회관 중강당에서 미룡사바라밀합창단(단장 이정희) 창단 5주년 기념발표회를 개최했다.

미룡사신도회 주최,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주관으로 열린 발표회에서는 정수연씨의 지휘와 최지선씨의 반주로 25명의 단원들이 찬불가와 가곡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단원들이 한 송이 연꽃을 들고 영산회상을 재현한 독특한 무대 연출로 막을 올렸다. 이어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은 향심, 목탁치는 스님, 정토발원문 등의 찬불가와 장안사, 석굴암, 수덕사 등을 무대에 올렸다. 또한 특별공연으로 민요춤, 남성중창이 펼쳐졌다. 천미희 기자

견불사, 호국영령추모대재

경남 견불사(회주 대풍)는 6월 6일 지리산 견불사 야외상설무대에서 제9회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민족상쟁에 의한 무주고혼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사단법인 행복한사회(이사장 대풍)와 공동주최로 열린 '용서와 화해 그리고 통일을 위한 추모대재'는 1부 추모식, 2부 국악한마당, 3부 범음범패 천도의식, 4부 영화제로 알차게 꾸며졌다.

천미희 기자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周주 易역 講강 義의

부처님 도량에서 마음을 비워보세
그리고 나면 나를 볼 것이네
그리고 나면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오고 있음을 믿을 줄 알아야 하네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인연 닿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 장 소 : 寶 明 寺 (보명사)
- 개강일시 : 2006년 6월 17일 / 매주 2회 (토, 일요일) 오후 3 ~ 5시
- 수 강 료 : 월 12만원 삼개월 과정 (총 36만원)
- 강의내용 : 전화문의
- 강 사 : 방 필 석 居士
-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2호선 신대방역 하차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오른쪽 방향, 마을버스 06번 (법원단지행 보명사) 마을버스에 표시
- 문의 : 02)738-2045

재단법인 선학원 寶 明 寺 보명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 3동 610-281호


탄생 출가 득도 무애 설법 요석공주와의 인연 선정 열반

원효 스님 일대기 한 눈에 좌악~

경산 제석사, 탄생에서 열반까지 담은 팔상탱화 점안

원효 성사의 일대기를 8가지 그림으로 형상화한 팔상탱화가 원효 성사의 탄생지인 경산 제석사(주지 적연)에 봉안됐다.

제석사는 5월 30일 원효성사 탄생 1389주기를 맞아 봉행한 다례재에 때맞춰 원효 성사전에 팔상탱화를 봉안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한 것.

원효 성사 팔상탱화는 제석사 주지 적연 스님이 2000년 부임해 온 이후 숙원사업으로 6년간 고심한 끝에 봉안하게 된 순수 창작 불화다.

적연 스님은 원효성사의 일대기에 맞춰 탄생, 출가, 득도, 무애, 설법, 요석공주와의 인연, 선정, 열반의 8가지 그림을 구상해 탱화로 표현했다. 적연 스님은 각 그림마다 삼세를 표현하고, 원효 성사의 수행과정과 무애의 가르침이 각 단계마다 잘 형상화될 수 있도록 채색 하나에까지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원효 성사의 팔상탱화에서 원효 성사는 모두 금색으로 표현하고 연꽃좌대위에 배치해 깨달음을 표현했다.

원효 성사의 탄생을 표현한 첫 번째 탱화는 제석사의 밤나무 아래에 탄생한 아기 원효 성사를 중앙에 묘사하고 위에는 도솔천을 묘사해 도솔천에서 내려온 원효 성사를 나타냈고, 아래에는 원효 성사가 출가해 설법하는 장면을 한꺼번에 묘사해 삼세를 표현했다. 두 번째 탱화는 천상의 축복을 받으며 출가해 계를 받는 장면을 묘사했고 세 번째 탱화에는 의상 대사와 함께 중국에 가려고 길을 가던 중 무덤 속에 있는 해골바가지의 썩은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묘사돼 있다.

제석사 주지 적연 스님은 이날 행사에서 "1389주기 탄생 다례제 및 팔상탱화 점안식을 봉행하게 된 것은 부처님의 가피력과 원효 성사의 원력"이라고 밝히고 "원효 성사가 탄생한 도량에서 보다 복되고 좋은 인연으로 원효보살님의 법음이 울려 퍼져 흥겨운 날이 날마다 지속되길" 발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 스님과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해 원효 성사의 가르침과 무애의 삶을 기렸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좋은인연 불교대학' 개강

6월 15일…수시접수 가능

대구불교방송 좋은날 좋은인연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불자들의 신행상담을 맡고 있는 범수스님이 대구불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6월 15일부터 대구 반월당 동아쇼핑 맞은편 동아빌딩 4층(동아빌딩 4번 출구 쪽)에서 좋은 인연 불교대학을 개강한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열리는 좋은인연 불교대학은 3개월 과정으로 4학기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천수경을 비롯한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전과 개론서를 병행해 강의한다. 대구불자들의 신심고취와 불교의 생활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좋은인연 불교대학은 논강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시접수가능하다. (0505)854-0108 www.savaha.or.kr

배지선 기자

의성노인복지관 안계분관 기공



의성군노인복지관(관장 탄하)은 5월 26일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 의성군사암연합회장 법광 스님, 정해걸 의성군수를 비롯한 노인복지 관계자와 지역 어르신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안계분관 착공부지에서 안계분관 기공식을 거행했다(사진).

이에 따라 안계분관이 준공되는 9월부터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관계로 의성군노인복지관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서부지역 어르신들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안계분관은 총 4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470평 대지에 연건평 130평 규모의 단층 건물로 지어질 예정이며 오는 9월에 우선 1차 준공을 하고, 내년에 2층과 3층 증축공사를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불교웰빙문화체험강좌 개설

대구 관오사(주지 지도)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이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 간 매주 목요일마다 불교 웰빙(well-being)문화체험 강좌를 오전반(10시)과 저녁반(6시 30분)으로 나눠 관오사 불교사회교육원 교육관에서 개설한다.

강의는 발우공양의 정신, 찬불가 교실, 사물체험, 위빠사나 수행법, 불교와 차문화, 내가 만든 108염주 등 6강좌에 걸쳐 진행되며, 누구나 참가가능하다. 불교사회교육원은 "불교 웰빙(well-being)문화체험 강좌가 불교문화 속에 숨어있는 참된 웰빙(well-being)의 의미를 찾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053)471-6640

배지선 기자

108화엄순례단원 모집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륜)에서 활동하는 '고운맘실천자원봉사단'은 자원봉사자 및 영주지역 내 불자를 대상으로 108화엄순례단원을 모집한다. 108화엄 순례단은 내년 5월가지 1년간 전국 대표 사찰 108곳을 순례하면서 자비를 실천할 예정이며 6월 14일 불보종찰 통도사로 첫 순례를 떠날 계획이다. (054)633-6415

배지선 기자

뛰고 걸으며 "사랑해요 문화재"

경주남산길마라톤대회 1500여명 참가 '성황'

제3회 경주 남산 산길 마라톤 대회가 한국불교마라톤협의회(회장 진오) 주최로 5월 28일 경주남산 통일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사진).

이른 아침부터 1500여 명의 마라톤마니아와 경주시민과 불자 등이 참석해 경주남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고, 지난해부터 경주남산 문화재 훼손을 두고 반대했던 시민단체장들도 참가해 문화재 훼손에 대한 오해가 해소되었음을 보여줬다. 대회는 하프코스와 10Km 마라톤, 10Km 산길 걷기가 모두 남산 산길 코스에서 열려 불교문화유산을 새롭게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며, 10Km 남산 산길 걷기 참가자들은 흙을 한 봉지씩 가져가 흙이 부족한 남산자락에 뿌려주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최정진 씨가 하프코스 남자 1등을 차지했고, 배정임씨가 하프코스 여자 1등을 차지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인 마하부다 구미보현의집에서 대구경북지역 외국인 노동자 150여명이 걷기 코스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배지선 기자

'참좋은유치원' 인허가 부결 논란

대구시 "유해상가 인접해 있다"
영남불교대 허가촉구 집회 계획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부설 참좋은유치원의 인허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이 5월 29일 개최한 유아교육진흥위원회에서 참좋은유치원 후방에 모텔 등의 유해상가가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인허가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유치원의 완공을 앞둔 영남불교대학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5월 31일과 6월 1일 총동문회의 이름으로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8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에서 참좋은유치원의 허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영남불교대학은 1, 2차 성명서를 통해 허가에 별 문제가 없다는 공무원의 말을 듣고 착공했으며, 처음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초대형 유치원을 지으려고 했으나 지역 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발을 고려해 달라는 담당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최종 7개 학급만 운영하겠다는 허가신청서를 제시했는데 완공단계에서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오리발을 내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그리고 참좋은유치원 전방 50m 이내의 절대 정화구역에 있는 무도학원과 단란주점 등 2개를 인수해 폐쇄했으며, 세계최고의 유치원 건립을 목표로 생태공원과 전통문화체험장 수영장까지 갖춰 놓았는데 유치원건립으로 인한 장단점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방에 모텔 등의 유해상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가를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영남불교대학 총무 밀허 스님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도 상대정화구역내의 유치원은 심의를 통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불가 처분을 유도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중립의 지를 저버린 처사며, 사립유치원의 압력에 의한 태도가 아니면 종교편향행위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허가촉구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진신사리 · 만다라 1천여점 전시

홍천 천축사 18일 만다라 보궁 개관에 맞춰

부처님 진신사리와 1천 여점의 만다라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강원도 홍천 천축사(주지 동휘)는 만다라 보궁 개관을 기념해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2006 홍천 해피만다라 산사 대축제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18일 오후 2시 개관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는 이번 대축제는 노래자랑, 전통혼례, 만다라 우리쌀사랑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전시회에서는 '부다가야 대탑 만다라'와 관세음보살을 그린 '그린타라 만다라', 21점의 '관음의 눈동자 만다라' 등 동휘스님과 티베트 부탄 네팔 인도 스님들이 그린 1천 여 점의 만다라가 선보인다.

특히 동휘 스님은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천 주민들을 위로하고 우리 쌀 사랑의 마음을 알리기 위해 우주를 표현한 '코스모스 만다라' 중심에 '쌀'을 그린 '라이스코스모스 만다라'를 제작해 특별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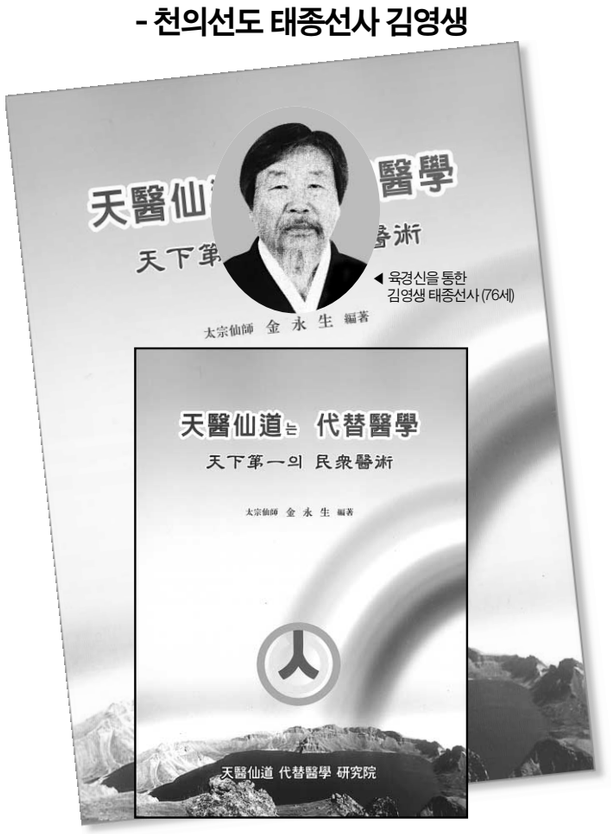
천축사는 만다라 보궁 개관에 앞서 6월 13일부터 일주일간 만다라 작품들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만다라 보궁을 개방한다.

동휘 스님은 "만다라가 새로운 불교문화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이를 통해 만다라가 일반에 널리 알려지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국 : (054)634-3429

〈화제의 신간 발간〉
- 천의선도 태종선사 김영생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출간
- 책값 50만원 / 157페이지 삽입

건강을 원하든지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몸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 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는 천하제일의 민중 의술. 기적의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드립니다.

몸 디스크, 허리디스크, 위하수, 갑상선, 생리통, 요실금, 전립선 이상자 등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주입시켜주면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전립선이 좋아진 분은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며 요실금이 좋아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니 남편 바람날 염려가 없는 신화 같은 기적의 치료법을 공개했다. 맥박 경락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몇 시간 실습 강의만 듣고 나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될 수 있다. 정신분열증, 전간(간질병)도 정상으로 회복된다.

전 세계 의료인에게 이 책을 권유한다
이 책은 영문판, 일어판, 한문판으로 출간해서 전 인류 건강을 위하여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을 전수시키려 한다.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를 정상으로 회복시킨 체험 사례와 약 제조법을 공개했다.

※ 전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선단제조법과 은 용해법을 공개했다.
※ 선단은 상기되는 열을 하단전에 모아주고 막힌 곳은 뚫어주고 몸속의 독성을 중화시켜 체외로 배출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니 여자가 복용하면 순환제요, 남자가 복용하면 팔십 노인도 이십대로 회춘된다.
※ 은 용해수는 몸속의 세균 바이러스를 질식시켜주며 축농증, 알레르기 비염이 1개월 안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아토피성 소양증, 무릎 관절염, 손마디 관절염이 3,4개월 내에 정상으로 회복된다.
※ 사상의학의 팔상 분류법과 체질에 이로운 식품, 해로운 식품, 성격, 적성, 체질따라 보사법을 수록해 놓았다.

이만하면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라 하지 않겠는가?
※ 천하제일의 명의가 되는 과정
① 천문을 열고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당신 몸에 충만할 때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이 떠나게 되니 몸이 거뜬해지고 집안이 편안해지며 하는 일이 서서히 잘풀린다.
② 환신을 받아 인당이 열려야 당신의 마음따라 생명의 에너지가 목적지에 발산한다.
③ 실습강의 1시간 듣고 나면 당신손으로 디스크 환자를 즉석에서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명의가 된다.

나는 정부당국에 묻고 싶다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환자를 민중의술인이 회복시켰다면 상을 줄 것인가? 벌을 줄것인가?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인가? 의료인을 위한 법인가? 국민건강을 위한 법이라면 민중의술인에게 상은 주지 않더라도 활동 규제를 풀어 줄 수 있는 법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호소를 합니다. 이 호소를 묵과한다면 분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닙니다. 나는 첨단과학의 의술앞에 공개 검증받고 싶습니다.

천의선도 대체의학 연구원 원장 김영생

■ 본원
● 주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화 : 041)741-4600 / 011-9803-4600
■ 서울 수련원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83-39 삼용빌딩 403호
● 전화 : 02)2216-6278 / 011-9803-4600 / 010-3129-6278
■ 부산 수련원
● 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베르빌오피스텔 1821호
● 전화 : 051)803-5953 / 011-9803-4600

※ 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나라 위한 선현들의 뜻 잇자”

죽림정사, 대통령 · 총리 등 역대 지도자 ‘천도재’ 지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후 현재까지 역대 지도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천도법회가 5월 29~30일 양일간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에서 봉행됐다.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가 마련한 이번 천도법회에서 환희, 지원, 혜력, 상현, 법승 스님 등 후원회 법사단은 역대 정부요인과 지도자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재에 이어 인등을 밝히고 호국호법을 기원했다.

천도재에 앞서 도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사회는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역대 지도자들의 뜻을 이어 인류가 다같이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자”고 말했다.

5 · 31 지방차치단체선거를 앞두고 열린 이번 천도법회는 역대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각 부처장 등 행정부 요인과 역대 대법원장, 대법관 등 사법부, 국회의장단, 국회의원 등 입법부 요인들의 영가와 현 국무위원, 각 부처장,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가족 등 일체 영가를 위한 인등 5000여개를 밝히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박상록 백용성 후원회 사무국장은 “역대 지도자들의 인등을 밝히기 위해 총무처, 행자부, 언론사 등을 방문해 명단을 찾아냈다”며 “나라를 위해 힘쓴 선현들의 뜻을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백용성후원회는 6월 3일 용성스님 탄신 143주년을 맞아 죽림정사에서 만등관등 법회를 봉행하고, <금광명경> 3만권을 발간해 전국 사찰과 기관, 신행단체에 무료보급했다.

이준엽 기자



“남도답사 1번지 사찰 위상 세울 터”

무위사 주지 법정 스님 취임식

강진 무위사는 5월 28일 대웅전 앞 뜰에서 주지 법정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대흥사 주지 묭산, 강진사암연회장 법상 스님 등 각 사암 스님과 황주홍 강진군수, 방철수 강진불교 신도회장, 신도 등 500여명 참석했다.

법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행기도, 전통문화계승, 지역민과 함께하는 사찰이 되어 남도답사 1번지 사찰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묭산 스님은 법어에서 “취임식은 포교와 수행을 위해 발원하는 자리이다”며 “무위사가 강진불교의 중심이 되도록 대중이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법정 스님은 1983년 대흥사에서 묭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법주사 승가대,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졸업했다. 목포 달성사 주지, 목포불교대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장, 해남 한듬어린이집 원장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무여 스님 초청법회 · 나눔장터

원각사 대웅전 중창 낙성법회

송광사 광주 포교당 원각사(주지 도제)는 대웅전 중창불사를 마치고 6월 11일부터 3일간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원각사는 대웅전 낙성에 앞서 11일 오후 4시 축서사 선원장 무여 스님 초청 법회를 개최한다.

이어 12일에는 원각사 마당에서 사찰음식전시회와 생활용품, 불구용품을 판매하는 나눔장터를 개설해 수익금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사암,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해 낙성전야 음악회를 갖는다.

대웅전 낙성식은 13일 오전 11시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과 지역 사암 스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한다.

100여년 전, 송광사 광주 포교당으로 개원한 원각사는 각종 신행단체가 활동하며 근세 광주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에 낙성하는 대웅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40평 규모로 지난해 1월 상량에 이어 금년 3월 단청불사를 마쳤다.

이준엽 기자



불자기업 ‘청강월’ 1주년 기념

무각사서 열린음악회로 잔치

불자기업인이 창사 1주년을 맞아 사찰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음악회를 개최해 화제다(사진).

화제의 불자는 민속주를 생산 판매하는 청강월 대표 엄일석씨. 엄씨는 5월 27일 광주 무각사 경내에 특설무대를 마련하고 콘서트 ‘해탈’을 열었다.

지역 주민 3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음악회에서 엄일석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일하다보니 사업도 급성장하게 됐다”며 “사회에 회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연에 앞서 광주불교사암련 회장 혜향스님도 격려사에서 “불교는 실천하는 종교이다”며 “나눔에 인색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불자 연예인 이상벽씨의 사회로 펼쳐진 이날 음악회에는 테이, 리아, 코라 등 인기 가수와 송승환 ‘난타’팀이 출연해 지역민과 함께 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에 예비상담원 84명 탄생

광주 · 전남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불교전문 예비상담원 84명이 탄생했다.

불교상담개발원과 자비신행회는 공동으로 5월 27~28일 양일간 자비신행회 교육장에서 불교상담 기본교육을 마련하고 수강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했다.

광주에서 처음 마련된 이번 상담교육은 상담의 기본이론, 상담기법, 불교와 상담, 상담현장 등 기본 강좌 등으로 진행됐다.

자비신행회 김영섭 사무국장은 “이번 교육으로 불교 전문상담원을 배출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비신행회는 하반기에 불교심리상담사 양성을 위해 불교상담아카데미를 개설하며 자비의 전화를 개통해 상담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영조 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밤브자브 몽골 간단사 승가대학장(세번째) · 암갈랑 간단사 부총무원장(네번째)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송광사

몽골 불교 재건 위해 함께 노력

송광사, 불교경시대회 입상대학생에 장학금

복지시설돕기 · 불서보내기 등 다각도 지원

“몽골의 대학생불자는 몽골불교의 희망입니다. 따라서 몽골 대불협(대학생불자협의회)은 사회주의 체제에 짓밟힌 몽골불교를 재건해야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5월 27일, 몽골 대불협 불교 경시대회 결선에 앞선 기념식에서 몽골 간단사 총무원장 초이잠츠 스님은 “몽골 대불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 송광사 대중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는 몽골 간단사와 불교교류 증진방안을 위해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몽골 현지를 방문한 송광사 몽골불교돕기 추진위원회(위원장 영조, 이하 몽불위) 스님 6명이 함께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격려사에서 “몽골불교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불교를 몽골에 심으려는 것이 아니라 몽골불교문화를 되찾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며 “양국 불교문화교류와 협력을 통해 불법을 널리 전하는데 힘쓰자”고 말했다.

이어 송광사 몽불회는 불교 경시대회 결선을 참관하고 대회에 입상한 몽골 대불협 학생 2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한 광주 증심사 주지 진화 스님도 몽골 대불협 사무실에 컴퓨터를 기증했다.

간단사 불교대학 강당에서 열린 몽골 불교경시대회는 일반 대학생부, 승가대 전문부로 나뉘어 총 350여명이 응시했다.

결선대회는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10명씩의 참가자들이 자웅을 겨뤘다.

몽골 대불협을 지도하고 있는 남정주 교수(몽골 국립 사범대)는 “불교 경시대회는 금년 4회째로 대회가 있기 몇 달전부터 도서관마다 불교관련 서적을 대출하는 경쟁이 시작된다”며 “해마다 참여학생들이 늘고 있어 몽골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한다”고 전했다.

몽골불교 발전을 위해 송광사가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6월 송광사 몽불위가 결성되면서부터이다.

몽불위는 평소 몽골 불교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모색하던 송광사 교무 자허 스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동안 송광사 몽불위는 몽골의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 시설 지원, 몽골불자들을 위한 불서보내기, 몽골 대불협 지원 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자허 스님은 “송광사 몽불위의 활동으로 몽골 불교계에 한국불교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었다”며 “몽골 불교 재건을 위해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송광사 몽불위는 이번 몽골 방문기간중 밤브자브 간단사 승가대학장, 암갈랑 간단사 부총무원장 등 몽골불교 지도자들을 만나 몽골불교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고, 6월 11일 몽골의 ‘부처님오신날’에 사용해 달라며 한국 전통등 2000개를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김동수 열사 추모재 열려

광주 민중항쟁 제 26주년을 맞아 前 대불협 광주전남 지부장 김동수 열사 추모재가 5월 27일 열렸다.

조선대 김동수열사 추모탑에서 열린 추모재에는 기념사업회장 이순규,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 행법 스님, 대동회장 김부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신보라 등 시민단체 회원과 지인, 유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각 단체장들은 추모사를 통해 “죽음을 알면서도 희생자들의 시신을 입관하며 염불했던 보살의 화신이었다”며 “열사의 뜻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시인 조현옥씨는 추모시를 통해 “평택 대추리, 스크린쿼터 등 잔인한 오월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땅의 민중들이 통일과 평화의 새날을 열도록 힘을 달라”고 노래했다.

故 김동수 열사는 5 · 18광주 민중항쟁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산화했다.

이준엽 기자

대성사 ‘선남선녀산악회’ 결성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5월 31일 전국에서 참석한 선남선녀 회원 30여명과 함께 서울 관악산을 등반했다.

지방선거를 마치고 참석한 회원들은 만남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악회를 결성, 회장에 방주석씨를 선출했다.

산악회는 앞으로 건전한 만남을 통한 결혼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월 한차례 등산을 할 예정이다.

혜철 대전 충북 지사장

한꽃복지센터 독거노인 나들이

광주 한꽃노인복지센터(시설장 김명실)는 5월 26일 광주 동구지역 독거노인을 초청해 ‘백양사 행복 나들이’를 가졌다.

바깥나들이 기회가 적은 독거노인들의 고독감 해소와 노후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나들이에는 독거노인과 자원봉사자 4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행복나들이 참가자들은 장성 백양사를 참배하고 담양 대나무 박물관을 견학했다.

이준엽 기자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여름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괘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



스님만의 특유한 자연건강 비법과 약사여래 부처님의 원력으로 마음과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 나십시요.

난치병 불치병 등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혜광(慧廣)스님을 아십니까?

KBS, MBC, 연합불교방송 등 방송매체와 35회 이상 언론에 보도된 혜광스님 (필명 李海堂)

성공한 사업가(전직 무역회사 회장, 수출탑 수상), 자연건강 연구가(자연건강 1급 지도사, 자연건강 연구 15년), 소설가, 투병생활 9년, 불가에 귀의(1989년,1996년 법사계 전법), 외국(티벳,태국)사원 자연건강 비법 전수, 한국 인물사(대한민국 역사편찬위 발행 1990)수록.

KBS 방영 - 이제는 중생 구제다 -
KBS의 “혜광스님의 자연건강 행복한 삶” 프로(2005.7.10 방영)에 특별 출연하여 병고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들에게 새 삶의 희망을 주고자 70노구를 바치겠노라 다짐하며 자신의 투병생활 장소이자 바닷가 자신의 별장에 약사여래 부처님을 모신 약사암(藥師庵)을 창건하다


황토굴


약사암 전경


약사암의 일몰

손꼽히는 한려수도 관광과 방생지

거제도 바닷가 황토굴에서 새 생명을!
- 몸속에 가득 채워진 독소 (오염된 물, 공기, 중금속 오염, 약품과용, 가공식품) 을천연 황토동굴에서 제거 해야 한다 -
스님 자신이 투병생활에서 얻은 결론이다.

(스님과 친견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길
경남 거제시 동부면 오송리 산 1-3 약 사 암
(동부면 면사무소에서 1Km 거리, 면사무소 - 오송리 중간 우측)
전화 : 055)632-2483 / 휴대폰 : 018-591-1322

• 인터넷 검색(혜광스님 관련)
http://www.cafe.daum.net/yaksaam
http://www.cafe.daum.net/Osongwon
http://www.cafe.naver.com/leehaedang
E-mail: lom1209@hanmail.net

탈북 새터민 25명 구인사서 템플스테이

“고달픈땐 언제나 절에 오세요”


관문사 다도회 어머니 회원들이 새터민들에게 다도법을 설명하며 차를 함께 마시고 있다.

‘예불 · 관음정근 · 다도’ 생애 첫 체험
“낯설지만 마음 차분해져 좋습네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평화와 자유를 찾아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우리 새터민들은 그동안 불법의 진리나 우리 전통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인사에서의 사찰문화체험을 통해 맺어진 인연을 통해 부처님께서 우리 새터민들에게 큰 의지처가 되어 주십시오”

6월 1일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 관성당. 천태종이 주최하고 나누며하나되기 운동본부가 주관한 ‘제 1회 새터민 템플스테이’ 입재식에서 새터민 대표 김영광씨(27 · 가명)가 발원문을 낭독했다.

사회부장 무원 스님은 “여러분들이 남한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극복해 나가는 의지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종교적 신념과 정성스런 기도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행사 참가자들은 주로 중국과 몽골 등을 거쳐 탈북한 남자 새터민 25명. 이들은 현재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던중 천태종의 요청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하게 됐다. 참가자 대부분은 중국에 피신하고 있을 때 목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인지 개신교 신자가 대부분이다.

입재식후 새터민들은 무원 스님의 안내로 구인사 경내를 둘러보고, 소백산 기슭에 있는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의 묘(적멸궁)를 참배했다.

저녁 공양 전의 일정이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사찰의 경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이었다면 저녁 공양 후에는 예불의식, 관음정근, 다도체험 등 본격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경내에 울려 퍼지자 모두 대웅전에 모였다. 부처님 앞에 선 스님들을 따라 새터민들은 절을 올렸다. 예불 순서와 독경 등 모든 것이 낯설어 얼굴에는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지만 집전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힐끔 힐끔 쳐다보며 ‘예불’과 ‘반야심경’을 열심히 따라했다.

이어 관음정근이 진행됐다. 이를 따라해 본 새터민 김지태(54 · 가명)씨는 “스님은 아무 생각말고 정근하며 마음속의 망상을 떨쳐버리라고 합디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꾸 더 다른 생각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어지러워져 결국 실패했죠. 하지만 마음이 차분해져 좋습네다.” 참가자들은 처음해본 불교 의례가 낯설고 어려웠지만 기분은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답했다.

고향이 함경북도 회령이라는 김성근(35 · 가명)씨는 “북한에 있을 때는 평양에만 사찰이 있는 걸로 교육받아 사찰 근처에는 한번도 가볼 엄두를 못냈었다”며 “숲이 푸르른 산속 사찰에 오니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싹 달아나는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관문사 다도회 어머니 회원들이 시범을 보인 다도체험. 찻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 앉은 다도회 원들과 새터민들은 차를 마시면서 다담을 나눴다.

네번이나 탈북하다 잡혀 갖은 고초를 당한끝에 간신히 지난해에 성공했다는 현동일씨(27 · 가명)는 “차 마시는 것도 하나의 도이며 예법인지 몰랐는데 차를 마시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고 신기해 했다.

이튿날 아침예불을 끝마친 참가자들은 오전 8시 회향식을 마치고 온달동굴 등 인근 관광지 견학을 떠났다. 무원 스님은 회향식에서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언제든지 절에 찾아 오세요. 절에 무언가를 배우러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그 안에 미소만 듬뿍 담아가시면 됩니다”고 말했다.

정말 그랬다. 다시 속세로 되돌아가는 새터민의 굵은 주름살 패인 얼굴들에는, 부처님의 미소와 같은 온화한 웃음이 퍼지고 있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오직 자유와 희망에 가득찬 자신감만이 흐를 뿐 사선을 넘어온 고단한 삶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글 · 사진/단양 구인사=김주일 기자**

봉원사, 단오날 통일기원 영산재 봉행



세계 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18회 영산재’가 단오날인 5월 31일 태고종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됐다(사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생전에 <법화경>을 설파하던 2600년전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보이는 불교전통의식이다. 이날 영산재에서는 목탁, 태징 등의 악기에 맞춰 범음의 소리를 짓는 범패와 호적 등의 악기를 연주하고 법고춤과 나비춤, 복청게 등을 선보였다.

이날 영산재에는 마일운 스님(옥천범음대학 학장) 등 50여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이 참여했다. **김주일 기자**

2006 군포교 합시다
조계종 군종교구-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우리 법당이 달라졌어요”

국군일동병원 호국 관음사 신축 이전
지원 스님 평생 모은 4000만원 보시
신도회 십시일반 1000만원 모금
주방 · 화장실 등 최신시설 갖춰

본지가 전국 15개 국군병원 법당의 어려움을 소개한 이후(본지 561호 8면 기사참조) 한 비구니 스님이 법당 신축 기금을 희사해 병원 법당이 신축 이전하게 되어 화제다.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군일동병원 호국 관음사는 6월 20일 오후 3시 ‘호국 관음사 이전 신축 낙성법회’를 봉행한다.

창고를 개조한 5평 남짓의 공간에 부처님을 모신 호국 관음사는 지원 스님(경남 함안 광명사) 주지 이 거금을 보시해 신축불사를 시작했다. 지원 스님은 호국 관음사의 어려운 현실을 주변으로부터 전해 듣고 평생 모은 4,000만원을 보시했다.

이에 간호장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신도회에서도 십시일반 1,000만원을 모금해 불사에 힘을 보탰다. 5군단 김갑영 군법사와 예하 사단의 군법사들도 부대 협조를 구해 신축 법당이 건립될 부지를 선정했다.

스님과 신도들의 이같은 노력으로 호국 관음사는 주방 겸 상담실, 화장실 등을 갖춘 최신 시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지원 스님이 군포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개인 가족사 때문이다. 스님의 속가 아버지는 6 · 25 당시 3사단 23연대에 봉직하다 김화지구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했다. 당시 한살배기였던 지원 스님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숭고한 호국정신을 잊지 않고 살아왔다.

출가해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산화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의 유족연금 등을 모아 2004년 10월 3사단 18연대에 총공사비 2억 1천만원을 희사해 백골 호국사를 창건했다.

3사단 18연대 백골 호국사 김경원 군법사는 “지원 스님은 호국 불교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남은 여생동안 세곳의 군법당 건립을 서원하셨다”며 “특히 스님은 군포교에 한국불교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생각에 군법당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주 군법사가 없어 인근 5군단, 8사단 연대 법사가 법회를 주관해 왔던 호국 관음사. 법당 신축을 계기로 신도회 활성화와 병원에 입원한 장병들의 위문 등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금요일에 봉행해오던 정기법회도 부대 사정에 맞게 목요일로 변경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신축 법당을 운영 관리할 민간인 성직자도 위촉할 방침이다.



8사단 12연대 박영민 군법사(사진 왼쪽)가 5군단 김갑영(중앙) 3사단 18연대 김경원 법사와 함께 신축 법당을 둘러보고 있다. 아래사진은 옛 법당 모습.

민간성직자란 군에 속해있는 군법사는 아니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군법사와 동일한 법회 주관, 부대 위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포교사다. 가톨릭의 경우 수녀들이 민간성직자로 병원 법당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5군단 김갑영 군법사는 “병원 법당은 비구니 스님이 민간인 성직자로 간호 장교는 물론 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장병들에게 더 많은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비구니 스님들이 민간인 성직자로 활동한다면 간호사관학교 등 여성들이 군에 진출하는 분야에서 군법사들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천=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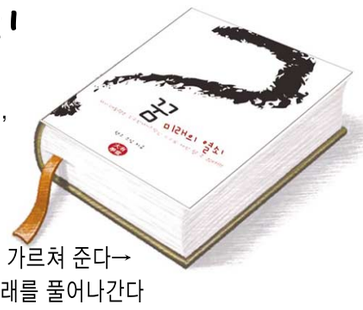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량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재료:銅) 문의:02-2004-8291

만 인 동 참
ARS : 060-700-0108 당신의 후원이 군불교를 살립니다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문의 : (02) 2249-5630 / 563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국민 807-21-0290-497(윤상철)
www.daeyou.net

꿈! 미래의 열쇠



꿈의 내용을 물어 질병의 원인을 알고,
환자의 심리상태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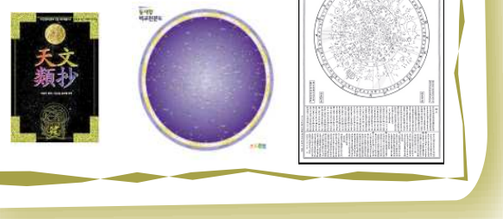
어떤 일에 대해 고민한다→
우리 몸에 잠재한 초능력이 꿈을 통해 가르쳐 준다→
그 가르침을 잘 해석하여 슬기롭게 미래를 풀어나간다
다만, ① 우리 몸에 잠재한 유전자,
혹은 전생의 기억에 남아있는 언어로 가르쳐 주므로
자칫 틀리게 해석할 수 있다.

→꿈의 해석원리를 유식이론에 의해 밝히고
꿈풀이 항목 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를 적어 놓은 책
이 한권이면 나도 꿈 해몽의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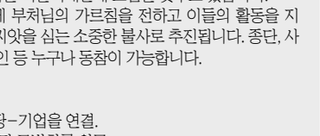
꿈! 미래의 열쇠/ 현오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 512쪽/ 20000원

생활활용 CD
CD성명학 2만원 / CD하락이수 30만원
CD자미두수 40만원 / CD육임 10만원
CD기문둔갑 1만4천원

천문 태을천문도 6만원
전정판 천문류초 2만원



옴 그림으로 푼 천수경



천수경은 80여 불보살님들의
진실한 수행과 위신력을 표현한 글이다
당나라 황실에서 비단에 황금실로 수놓아
불보살의 친견과 선과의 힘으로 소원을 빌면서
비밀리 존중되었던 그림 천수경
그 진실된 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한 권만 필사해서 전파해도 부처되는 공덕!
그냥 천수경만 외워도 10악을 면한다는데
공덕을 쌓아 실천하는 불보살님들을 친견하듯이
그림을 보면서 외우면 그 공덕이 어찌 되겠소?
그림 천수경을 가까운 친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 복덕과 마음의 평화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옴 그림천수경/ 대명스님 엮음/ 신국판 양장/ 337쪽 / 12000원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해인사 대적광전 앞에 소금을 묻고 물을 붓고 있는 모습.



매화산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는 해인사 선원장 선각 스님.



소금단지를 묻고 지신밟기하듯 땅을 밟는 약수암 입승 지현 스님.



해인사 일주문을 30m쯤 지나면 왼쪽에 위치한 소금구멍바위.



해인사 남쪽 매화산 정상 남산제일봉에 소금단지를 묻기전 의식을 하고 있다. 해인사 선방스님, 약사암 선방스님 등 5개 산내 사암 100여명이 모여 5방(동서남북중앙)에 소금 단지를 묻었다.

매화산 불기운 잠재워라

해인사가 단오날 소금단지 묻는 까닭은?

양기운 가장 왕성한 단오날
불타오르는 산세 간직한
매화산 정상과 해인사 경내 곳곳
소금 묻고 성보 보호 발원

5월 31일, 음력 5월 5일 단오날이다. 단오날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이른 새벽부터 분주하다.

매년 단오날 해인사 강원스님들은 축구대회를 통해 화합을 도모하고, 신도들은 가야산 중봉 마애불에서 사시 공양을 올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전통의 례중 하나는 해인사 남쪽에 솟아 있는 매화산(埋火山) 정상 남산제일봉에 소금단지를 묻는 일이다.

해인사의 성보를 화재와 각종 천재지변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선원스님을 중심으로 이어져 온 이 행사는 산내암자의 스님들까지 모두 동참하는 연중행사다.

새벽 6시 30분, 행사는 대적광전 앞에서부터 시작됐다. 매화산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기 전에 먼저 경내에 소금을 묻는 의식을 진행한다. 사중 소임자 스님과 종무소 직원들은 모두 나와 부처님 전에 삼귀의를 올리고 반야심경을 봉독한 후 대적광전 앞 축대에 만들어진 지름 10cm정도의 구멍에 소금을 넣었다.

총무국장 혜근 스님이 먼저 소금 한바가지를 넣고, 기획국장 만우 스님과 교무국장 포교국장 스님이 차례로 소금을 넣었다. 삼보를 외호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화재를 비롯한 천재지변으로부터 해인사의 성보가 보호되길 발원하는 의미를 담은 스님들의 손길이 엄숙하다. 소금이 구멍에 가득차자 물을 부었다. 소금이 바로 녹기 시작해 소금물이 됐다.

"소금물은 바로 바닷물을 의미하지요. 바닷물로 해인사 화재를 막으려는 선조들의 염원과 지혜가 담겨있습니다." 혜근 스님은 소금을 넣고 물을 붓는 이유를 설명했다. 스님은 "소금단지를 묻는 의식 때문인지는 몰라도 의식이 행해진 이후 화재가 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금 구멍은 해인사 경내 대적광전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종무소 앞에 위치한 우화당 쪽에는 절구통 구멍만큼이나 큰 구덩이를 가진 돌덩이가 있다. 이것도 소금 구멍이다. 스님들은 이곳에도 돌아가면서 소금을 가득 채우고 물을 부었다.

해인사에는 이런 소금구멍을 가진 큰 돌덩이가 산내암자 곳곳에 산재해 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땅에 묻히는 등 많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경내 곳곳에는 소금구멍을 가진 많은 돌덩이를 볼 수 있다.

스님과 종무직원들이 경내 곳곳의 소금구멍에 소금을 묻는 동안 선원스님들은 매화산에 오를 차비를 한다. 매화산 정상에 소금단지를 묻는 것은 선원스님들의 몫이다. 오전 8시 선원장 선각 스님을 비롯한 선원스님들이 가야산을 마주한 매화산 입구에 들어섰다. 약수암 원당암 등 산내암자 스님들도 동참해 100여명이 넘는 스님들이 매화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매화산을 묻을 '매(埋)' 불 '화(火)'자 매화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의 산이라 불기운을 잠재우러 가는 것이지요. 또, 많은 수행자가 양(陽)의 기운이 충만할 때 산을 오르면서 땅을 밟아 불기운을 누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에게는 가만히 앉아 좌선만 하다가 올라가니 체력단련도 되고 좋습니다."

선원장 선각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이렇게 모든 대중 스님들이 매화산에 올라 성보의 평안과 안전을 발원하는 것은 수행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남산 제일봉의 고도는 해발 1,010m. '불기운을 묻는다'는 의미 말고도 기암괴석들이 마치 매화꽃이 만개한 것 같다 하여 매화산(梅花山)으로 불리고, 천 개의 불상이 능선을 뒤덮고 있는 모습과 같다하여 천불산(千佛山)이라고도 불린다. 스님들의 산행은 1시간 남짓 이어졌다. 물이 흐르듯 구름이 흐르듯 매화산을 거슬러 올라가는 스님들의 발걸음이 거침없다. 하늘이 가까워오자 스님들은 주위를 살피며 자연과 교감을 나누기도 하고 헉헉거리며 오르는 재가자에게 쑥떡과 앵두를 나눠 주기도 한다. 단오절에 먹는 절기음식들이다.

오전 9시, 하늘과 맞닿은 남산제일봉에 올라 선 스님들은 가야산을 향해 합장하고, 삼귀의를 올리며 온 마음으로 발원했다. 사중이 무사하고, 평안하며, 성보가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염원했다.

선원장 선각 스님, 한주 동각 스님, 약수암 입승 지현 스님 등이 소금이 가득 채워진 직경 약 15cm정도 되는 소금단지에 물을 붓고 뚜껑을 덮은 뒤 중앙과 동서남북 5개 방향에 정성스럽게 묻고 땅을 꼭꼭 밟았다. 그리고 소금 한 줌씩을 한지로 싼 꾸러미도 5개 방향의 바위사이에 끼워 놓았다. 이것으로 의식은 모두 끝났다.

이날 해인사가 경내 곳곳과 남산 제일봉에 묻은 소금은 양은 총 30kg. 3포대 양의 이 소금은 스님들의 정진력과 성보를 외호하려는 원력을 머금고 매화산의 불기운을 잠재우며 푸르게 출렁거릴 것이다.

합천/글=배지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불 자주 나자 1818년 풍수설 따라 대적광전 방향 바꾸고 묻기 시작

▮ 소금 언제부터 묻었을까?

<가야산 해인사지>에는 '1695년부터 1871년 사이 무려 7차례나 불이 났다'는 기록이 있다. 해인사 율원장 무관 스님은 "이때 장경판전까지 모두 잃을 뻔했기 때문에 대책을 강구하던 중 해인사 대적광전을 마주보고 있는 매화산 남산제일봉의 불타오르는 산세 때문에 화기가 절로 날아들어 화재가 잦다는 풍수설에 따라 대적광전의 방향을 바꾸고, 매화산 남산제일봉에 소금단지를 묻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단오인 음력 5월 5일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은 홀수가 겹쳐 양기가 왕성하고 첫여름이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순조 18년 1818년에 경상도 관찰사며 추사 김정희의 부친인 김노경에 의해 해인사가 오늘과 같은 가람배치를 갖게 됐다"며, "1970년 대적광전 수리 때 발견된 가야산 해인사 중건 상량문을 통해 이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상량문은 31세의 추사 김정희가 쓴 것으로 국보급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현재 해인사 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소금단지를 묻는 까닭은 소금이 바닷물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소금은 바닷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바닷물로 불을 끈다는 의미다.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 의료용구 개인용 온열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전자기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전 인증서 : HH07236-5004A호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특허청 실용실안출원
● 전자파 장애실험필
가격 245.000원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약돌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약돌 볼이 70~80℃이상의 고열이 발생 화상 없이 뱃속 깊숙이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침"을 맞는 효능으로 쑥뜸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하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 입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가워 집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인증 은행석 온열복대의 효능
※ 오랫동안 참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아랫배가 냉하신 분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인 분에게 적극권장
※ 의자에 앉아 장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뱃속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중에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약물요법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산 원적외선이 뱃속 깊숙히 침투하여 췌장까지 42℃의 열을 가온시는 의료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잘 만든 상품 하나 열 매장 안부럽다

'사찰 문화상품' … 똑같은 기념품 NO

경제논리 부재로 서비스 제공 차원 못 벗어나

조계사, 수익창출 위한 문화산업단 설립 예정

전통의 멋이 살아 있는 서울 봉은사는 신도 외에도 유난히 참배객이 많은 사찰이다. 이 곳 입구에 위치한 불교용품 판매점도 기념품이나 공양물 등을 사기 위해 드나드는 이들로 늘 북적거린다.

하지만 판매점을 한번 빙 둘러본 뒤 물건은 사지 않은 채 돌아서는 이들이 많다. 봉은사를 대표할만한 기념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5월 31일 봉은사를 찾은 김진호(43 · 서울 성내동)씨 가족도 같은 경우다. 김씨는 어느 사찰에서나 볼 수 있는 똑같은 상품을 진열해놓은 판매점을 볼 때마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불교가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종교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김씨는 "허술하고 특징 없는 상품을 진열해놓고 손님을 맞는 사찰의 불교용품 판매점에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는 자폐아 같은 불교를 발견하게 된다"며 꼬집는다.

 # 경제논리 적용 없는 운영

사찰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는 전통찻집이나 서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용품 판매점과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합천 해인사의 경우 영업을 통해 얻은 금액은 사찰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익금이 워낙 소액인데다가 노동보다는 봉사 개념이 강한 직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윤을 내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마저도 이익금 가운데 공양물 판매액을 제외하면 이윤은 더 줄어든다.

사찰재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찰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찰은 별도의 건물을 짓지 않고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 사찰을 찾는 불자들이나 참배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으로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최대한의 이윤을 내기 위한 경제논리가 희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제논리의 부재는 우수한 상품개발, 적극적인 마케팅없는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찰이 적극적으로 이윤 창출을 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활동에 대한 불교의 소극적인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가 장사를 한다'는 시각을 설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부족한 탓이다. 이는 '생산불교'가 초보단계에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일본, 불교와 경제 접목

'경제불교'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환경을 가진 일본불교. 그 저변에는 모든 사업은 부처의 활동'이라는 뚜렷한 경제관이 깔려 있다. 마쓰시다전기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창업주, 후지은행의 야스다 젠지로 설립자 등 수많은 기업가들이 불교와 경제를 접목시켰다.

일본불교의 경제관은 사찰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이윤 획득을 위한 각 사찰의 상품 개발이나 사찰 부속 영묘공원 운영 등은 일본불교의 경제력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오사카 카츠오지(勝尾寺)는 부속호텔과 납골묘 운영, 불교상품 판매로 '경제불교'의 모범을 보여주는 사찰이다. 흙과 나무, 강화플라스틱(FRP) 등 다양한 재료로 독특한 공양구를 개발한 카츠오지는 사찰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판매한다.

법당은 물론 영묘, 탑 등 경내 곳곳에서 공양구를 올리고 합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신도 · 비신도를 가리지 않고 카츠오지를 방문한 이라면 누구든지 공양구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 '비즈니스 불교'로 탈바꿈해야

카츠오지의 사례는 우리 사찰의 불교상품 개발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지난달 카츠오지를 견학하고 돌아왔다. 수익모델 개발을 위해 불교문화상품 개발과 불교 조형 등의 연구 · 개발을 담당할 문화산업단 설립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조계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불교문화산업의 요람이 될 건물을 10월께 착공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조계사의 발빠른 움직임은 사찰의 수익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로 전환하지 못한 한국불교가 'biz(business)불교'로 탈바꿈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사찰 경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홍광표 동국대 교수는 "'biz불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찰의 이윤추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한국불교의 풍토를 바꾸기 위한 불교 · 경제학자들의 불교경제관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삽화=이동수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732-1520

가지방석매듭 단주



가지방석매듭 단주는 단순한 단주가 아니라 건강과 미적 감각을 살리는 '명품' 단주입니다. 특히 가지방석매듭은 금강저매듭과 함께 아미타불번에 사용되는 불교 전통의 매듭입니다. 이를 단주와 결합시켜 사용하시는 분의 위신은 물론 선물하시는 분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또한 몸에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최고의 상품이 될 것입니다.

가격: 80,000원

분다의 경제학 (9)

주주만의 행복회사?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는 기업을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돈벌이 공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른바 주주이익 우선주의 경영이 한국의 모든 기업을 점령해버린 것이다.

주주들은 철저히 기업의 이익 증대에만 관심이 있다. 이러한 주주이익 우선주의 경영이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을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단지 생산의 도구로만 인식하도록 우리 모두를 세뇌시키고 있다.

살벌한 주주중시 경영의 피해자는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경영방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도 우리들 자신이다. 주식시장의 대중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도 이미 주주이다. 우리는 주주로서 돈을 벌기를 원하면서 또 다른 한 편으로 주식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한다.

주주 경영은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 기반
배려의 마음 사라지고 이윤 추구만 급급
자리이타 정신 실현될 때 모두에게 이익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종업원들이 돈벌이 기계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 자신도 직장 내에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다. 그리고는 이 무자비하고 살벌한 현실을 한탄하고 비난한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머리띠를 묶고 투쟁하면서,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의 경영자에게는 노조 하나 제대로 못 다룬다고 질책한다. 그러한 현실을 만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주주우선주의 경영은 서구식 세계관이 만들어낸 경영방식이다. 기업을 만든 것은 자본을 댄 주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철저히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이 경영방식의 기본 철학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서양의 철저한 이원론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강성 노조가 이끌고 있는 이 땅의 노동운동도 사실은 이러한 이원론적 사고방식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IMF 외환위기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버린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둘이 아니다'라는 의식이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사고방식에는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발붙일 곳이 그 어디에도 없다. IMF 외환위기와 함께 찾아온 주주이익우선 경영방식은 경영자들로 하여금 기업 경영을 하면서 생각해야 할 많은 것들을 거추장스럽고 주주이익에 해로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종업원의 인생을 생각하는 것, 환경을 생각하는 것 등은 과연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일까.

기업의 경영자들이 일방적인 주주우선 정책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직장 내의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주주인 우리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기업은 단지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노동을 파는 곳만은 아니다. 현대 서구의 경제학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그 돈으로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들은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일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는다. 일은 우리의 삶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연기의 세계이며, 그 어느 것 하나 혼자 독립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설하고 계신다. 우리 자신은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 한 편으로는 고용인이지만 또 다른 한 편으로는 피고용인이기도 하다.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경영은 결국 그 누구에게도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주주이익 우선주의 경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그리고 자리이타(自利利他)를 강조하는 붓다의 경영방식이야말로 주주의 진정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영방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철저한 주주이익 중시 경영은 역설적으로 자리이타의 경영이다.

■구병진(경영학 박사)



수월관음도 가정의 가보로 인기
가정의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점안불공까지 마쳐!

집안의 액운을 영원히 쫓고 만사형통되는 영험!
중생의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사는동안 고통과 고뇌를 단절시키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영험의 불화다.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영험이 나타나 모든소원을 성취하게 큰 스님들로 하여금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친 영험의 불화로 집안에 모신지 100일도 안되어 수험생이 원하는 명문대학과, 사법고시등 각종시험에 합격하고, 사업장은 신비하리만큼 사업이 풀리고, 결혼문제로 고민하던 인연의 짝을 만나며, 후손을 잉태하고, 퍼하기만 하던 재판이 승소하고, 중병에서 소생하고, 취업의 고민이 해결되고, 가정의 위기가 화목으로 해결되는등 놀라운 영험이 나타나는 화제의 불화다.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수월관음도는 100% 천연코튼판 화지에 25도 관화와 베틀린 왁시를 사용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않고 최고급2단돌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불자가정의 후손에게 물려줄 3대가보중 하나!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이다.
불자가정의 영험의 3대가보중 하나인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된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울 조계사 옆에있는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등 지난번 KBS 역사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배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문의(02)741-4488 가격195,000원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세로88cm 가로58cm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닥쳐올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운전하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삼재도 물리치는 삼고금강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운전석앞에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카필라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있다.
가격 2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출시
평생부자로사는 놀라운 팔길상의 신통력!

사랑하는 아내에게 부자의 선물!
존경하는분과 자녀에게 성공의 선물!



몸에 지니는 순간부터 부처님 불광으로 소원이뤄!
옴마니 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과 병고로 시름하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불광의 비방으로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 왕진언을 설하셨다.
그후 가난한 중생은 평생부자로 공덕을 쌓고 살았으며 병든자는 믿기 어려울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 불광사에서 빨리 일어나라는 뜻에서 700일의 축원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출시 30일만에 영험을 받은 불자들로부터 입소문을 통해 구입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자녀들에게 하나씩줄려고 몇 개씩 구입하기도한다. 최고급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를 한 옴마니 반메훔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없게 제작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건강장수의 팔길상 "반장"을 넣었으며, 동서남북의 돈을 모으고 가지고있는 돈이 헛되이 나가지않는 팔길상 "보병"도 넣었다. 옴마니 반메훔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가정이 번영하고 건강하며 금전적 어려움이 해결되어 항상 풍요롭게하고 음양의 조화로 남편의 외도를막고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비방의 영험이 나타나게 했다.
"카필라"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하시고 왕세자를 하신 고대국가 이름이며 전화로 신청할때에 지갑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새벽 특별 축원불공을 해드린다.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이 있으며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문의(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 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천도재, 사찰행사, 불공, 전통의식 여법하게 집전
(밀양 강정사 음성공양회)
055)391-3274
011-869-8560

척추 허리,어깨,목, 짝다리,탈골(원인불명통증), 체형교정사주,작명,풍수지리
빙의 (신들림) **출장가능**
활법,기공최면,전생, 급방 천도 **전문 해결사**
02)835-2399
011-817-3387

신기한 - 약침요법
지압 뼈 교정법
개인지도 수강생모집
스님 직접 강의함
정력부족, 당뇨병, 간질환, 위장병, 견비통, 상기병, 만성피로, 두통 등 만성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출장강의함
반야약침연구학회
010-4712-4916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성도합장
011-850-0176

중고차 상담
스님, 불자님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절/상/담
최고가 매입!!!
연인권011-216-2603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은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스님을 모집합니다
(행자교육외 각종의식교육)
055)381-1199
055)383-6676

학인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은 종단을 불문하고 무보시 범음범패 제3기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49재의식, 천도재, 바라작법, 사물 등)
055)381-1199
055)383-6676

불심있는 위탁가족 모집합니다
- 노인행자, 마루보살 기도 하실분
- 노부모 위탁 보살피실 분
- 공동숙식 하시면서 위탁 하실분
- 불교를 공부하면서 포교하실분 자취 가능함

▷만계사
043)743-0102(야간)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통도 바라춤, 작법무(나비춤)
(살풀이, 승무, 지전춤 외 모든 한국무용)
각 사찰 행사에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부산지부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43-83 정원빌딩 內
051)515-7865
019-502-8868
통도 바라춤, 작법무 수강생 모집 中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52)243-3881

공양주 보살, 종무보살 모십니다
▷ 40~50대
011-9778-04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전후)
구파발전철역10분거리
▷구파발동 시연사
02)352-0572
011-261-057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팔공산
(55-65세)
054) 971-7561

경관이 수려하고 장엄이 여법한 도량 무보시로 포교해드립니다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의식에 능통한 법랍 31년 50세된 조계종 비구입니다
011-854-8107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집에서 통근해야함)
국방부 원광사
▷서울 용산구 삼각지
010-9091-4720

소중한 인연을 찾습니다
30대초반 남자로서 수행자의 길을 가고자 열심히 기도중에 있습니다. 함께 수행하면서 좋은인연이 되실 분 20-30대초반 진실한 불자님을 원합니다
054)430-9466
010-7745-3700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행자모십니다
(50-60대)
011-483-5639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충남서해안사찰
041)673-1888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스님)
011-576-2737

비구니부전스님 모십니다
▷ 인천부평
032)433-5147

조계종 재적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도심 불교대학
010-9511-496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836-5066

미국 가실 부전스님 모십니다(비자소유)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2)282-9270
042)282-7188

일산에 위치한 조계종 사찰
40~50대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753-1236
018-363-1191

공양주와 처사님 조용한 절입니다
공양주와 처사님을 모십니다
부부가 함께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삼랑진)011-584-3535

기도 부전스님 구합니다
(비구니스님, 대구지역)
종무원도(1명)구합니다
011-527-5908

원력을 펼칠 수 있는 장소를 구함
불교를 순수한 마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운영이 어렵거나 비어있는 암자, 사찰구함
▷서울, 경기지역-대각선원
02)2269-0813
011-785-8813

팔려고 내놓은 집이나 안 팔리는 절을 양도가 빨리 성사되도록 기도해 드리며 팔릴때까지 모든것을 무료로 사찰을 관리운영해 드립니다
010-3817-7463

보모 구함
보광정사 보광의 집
숙식 제공
50세 미만. 고졸 이상
051)524-8932

사찰에서 기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1종대형
010-2385-3455

화주보살님모십니다
활동력있는 사무장 구함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좋은 인연을 찾습니다
사찰에서 수양생활을하며 가족처럼 함께하실 어르신을 모시고져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sky33.org
화성시 원광사 031)353-2877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각 사암 등록신청 및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스님
- 스님이 되고자 하는 행자 (남, 녀)
- 동자모집 (가정이 어려운 환경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448번지 황룡사
행정실 054)972-4737
문의 010-7746-5544

동양역학 무료특장 매주토요일 선착순 30명
- 내 용 - 명리학의 정확한정통비법, 명리암기법, 공부터득요령
- 대 상 - 사주명리학에 관심있는 분, 배워도 확신이 없는 분
- 모 집 - 입문, 전문, 야간반 • 강 사 - 대학교수등의 책임교육

현대역리교육 연락처	전문교육과목
동대문, 02)2243-9598	이석영 정통명리
교대역, 인천, 019-9225-8000	사주철학, 대체역학
건대역, 수원, 011-248-2819	생활명리학, 관상학 작명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金山仙師
침, 뜸 보다 효과 만점!
경혈 지압구 우주회로 비법 단기완성
氣운영, 치병기공, 발공 우주기공 수련생및 전국 지부모집
- 남,여(경락, 스포츠마사지, 호흡, 기공) 경험자, 제자구함
35세미만 여직원 급구 일하시며 배울분, PC가능한자(각종기공, 경혈, 道)

※ 특히, 만성피로(간) 위장병, 아토피 전문 氣치료
02)562-7151/ 010-2362-1138 위치 : 강남역근처 金山仙道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 02)720-5719, 720-5682 핸드폰 : 010-8392-255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스님을 찾습니다

- 본사 : 송광사
- 본명 : 최왕영
- 법명 : 정원
- 승려번호 : 2101-29

055)289-7283
011-530-1606

하와이 무량사 종무원 모집

미국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신심이 깊고 성실한 불자를 종무원으로 모집합니다.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우는 하와이 주 수도 호놀룰루 시내에 자리잡고 있는 무량사는 미주포교의 활성화와 종무행정의 효율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래

1. 분야 : 종무행정
2. 자격요건
   - 연령 : 30 ~ 50세(남 / 여)
   - 컴퓨터 사용 가능, 영어 능통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1종 이상)
3. 인원 : 1명(가족동반 가능)
4.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5. 제출기간 : 불기 2550(2006)년 6월 5(월) - 6월 20일 (금) 오후 5시
6. 근무조건 : 숙식제공
7. 혜택 : 미국 종교비자 제공 (2년후 영주권 취득 가능)
8. 서류접수 E-mail: muryangsa@empal.com
9. 문의 : 궁금한 사항은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메일이나 전화로 답변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주지 白

독일 월드컵 기간
대불정능엄신주 독송기도합니다
한국선수들의 승리를 위한 성원으로 대불정능엄신주를 독송기도하오니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동참하십시오.
대불정능엄신주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대구 팔공산갓바위 기도 가는 분
약사여래경을 열심히 독송하십시요. 소원성취도가 다릅니다

철 야 기 도
대불정능엄신주 · 우리말 천수경 · 지장경
효과적인 독송 기도방법 지도
대학입시 사법 행정고시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매주 화요일
• 기도와 회향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 분 ● 스님동참환영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 전국만행 ● 맨발등산 하실 분 ● 택시운전기사불자회
■ 단계별 능력에 맞춰 체계있게 개인별 지도
⊙ 노사갈등없는 회사운영 특강
⊙ 사찰운영 및 신도들을 위한 특강 ⊙ 신행단체 특강
⊙ 기도불공 한 후 노숙자에게 떡공양 하실분 환영
조상영가천도, 각종 기도 불공, 생일불공
치매예방
● 술, 변비로 고통받는 분, 불면증, 우울증, 비만, 스트레스, 성격변화, 디스크, 가족갈등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9-9
부산 635-7008 대구 986-0338
서울 739-5008 마산 245-2662 안성 · 김해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경력 10년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서울경계)
- 법당 : 18평
- 요사 : 30평
- 부지 : 26,000평
- 가액 : 15억

- 위치 : 서울
- 법당 : 40평
- 요사 : 130평
- 부지 : 112(실1,000)
- 가액 : 30억 (즉시법회,도심속산사)

- 위치 : 부산
- 법당 : 18평
- 요사 : 25평
- 부지 : 195평
- 가액 : 4억9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경기사찰 960평-5억5천
2.충성사찰 2500평-10억
3.봉천동포교당 40평-월85
4.강남포교당 40평-월176
5.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6.대전사찰구함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시 (원주 IC 10분거리)
● 법당1. 칠성각1. 산신각1. 요사채2 전 500평 포함
● 가액 : 2억5천(절충가능)
011-9029-7113

포교원안내
- 위치: 동김해 아파트 상가 밀집 최요지
- 평수 : 4층 45평
- 시설 : 집기완벽. 주차A급
- 즉시법회가능
- 가액:보증금2천만원/월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명리,대체의학 최적합

055)332-6738
010-6840-8545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부지 : 천평
- 법당 : 목조33평
- 요사 : 55평
- 가액 : 9억

- 위치 : 서울
- 부지 : 국유지240평
- 법당 : 목조 40평
- 요사 : 30평
- 가액 : 7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상담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토굴안내
- 위치 : 지리산 자락 하동 악양
- 가옥 신축 황토 기와집 33평, 부지 672평
- 가액:2억5천
- 특징 : 집 위 대숲, 집안 연못가 잔듸밭

016-36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칠곡군 구미에서 10분거리
- 대지: 708평 법당, 요사채
- 가액: 4억3천만원
- 6월말까지 인수하실분

019-692-2222

토굴안내
- 위치: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
- 건물 3동
- 가액: 4천만원

010-5631-8439
017-401-4939

절터 안내
- 위치 : 경주시 산내면 감산리 근천 I.C에서 10분거리
- 평수: 대지 1161평 중 168평이 전용 건축허가(주택 25평, 창고 15평) 전용부분 토목완료. 건물바닥 기초공사 완료
- 특징: 주위 산세 경관 수려. 배산임수의 명당
- 가액: 6800만원

017-585-4980

위치	부지	가액
• 원주	약 2천평	9억
• 서울	약 100평	13억
• 서울국립 공원내	약 500평	5억
• 대구 (불사중)	약 6천평	답사후결정

한국불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 부지: 150평(대지)
- 법당: 40평(목조,단층)
- 요사 40평
- 가액 : 2억5천만원
- 특징 : 도심 포교인근 사찰로 포교지로 적지임

- 위치: 경남 소재
- 부지 : 1만평
- 법당 : 25평
- 요사 2동, 40평
- 산신각 3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특징 : 기도정진할 산중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당안내
- 위치: 대전 서구 변동중학교 부근
- 50평 방3, 주방
- 가액: 전세 2,200만원 시설비 800만원

017-420-5258

토굴안내
- 위치: 충남 홍성
- 대지: 200평 건평 50평 전 300평
- 가액: 1억9천7백만원

011-425-6054

암자토굴안내
- 위치 : 충북 보은읍 지산리
- 대지: 192평
- 건평: 27평(임법당)
- 가액: 7천만원

043)544-3398
011-9028-561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지리산 줄기
- 평수: 총 756평
- 건물: 법당 32평, 요사채 3채, 방 네개 큰창고
- 가액: 2억3천만원

010-3138-4897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 500평, 건물 :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 대지 870평, 법당 25평, 용왕당 4평, 산신각 5평, 종각 3평, 요사채 방 7개, 소방시설 완비
- 주차시설 30대, 70년된 사찰 사용평수 2,000평
- 가액: 5억

010-4877-5900

사찰부지(별장겸용)
- 위치: 천안역 10분거리
- 부지 면적: 2100평
- 산세: 산으로 둘러싸인 삼태기형
- 교통: 2차선 포장도 근접
- 가액: 25만원/평당

041)621-4411
010-3121-3900

포교당안내
- 위치: 전남 해남
- 대지: 150평 건평 30평
- 가액: 5천3백만원 시설비 답사후결정

061)533-9046
011-631-2954

암자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
- 부지 : 1200여평
- 건물 5동
- 법당,산신각,주지실 요사2동,심야보일러
- 가액 : 2억7천

033)372-6494
011-790-919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암자(임법당)안내
- 위치: 충남 온양 (터미널 부근)
- 평수 : 대지60평
- 건물25평 방2개 법당
- 가액 : 2000만원전세 시설비 1000만원

010-8519-0853
041)533-0853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안내
- 위치: 대구 서부 정류장 부근
- 평수: 75평(2층)
- 옥상 사용가능
- 시설 최상급(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700만원
- 대형주차장있음

053)655-0619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서산 서산 IC 5분거리 시내에서 5분거리
- 대지: 980평
- 건물 : 대웅전, 명부전, 요사2채
- 가액 : 8억 5천만원

016-342-7777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용계동
- 평수: 144평, 법당 20평,
- 요사채 방 4칸
- 주차시설 완비, 텃밭有
- 가액: 보증금 2000만원 연 600만원

017-565-1599

사 찰 안 내
- 위치: 전북
- 대지: 151평
- 법당: 20평
- 요사: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 건물:현대식

011-811-5466

사찰터(급)안내
- 위치: 충북 제천시 청풍호 주변
- 부지 2필지 708평. 현재 하우스 전기전화 계곡 자연수 흐르는 기도처

- 위치: 충북 괴산 지방문화재
- 부지 1필지 233평 • 가액: 상담후 결정

011-742-5925
043)644-1666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수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1000만원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1-599-8476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120평. 2층 24평
- 슬라브 2층 24평 법당, 요사채1, 산신각
- 가액 : 9천만원

011-544-9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 땅 150평, 건평 33평
- 특징 : 죽주산성 산
- 미륵부처님 기도도량
- 가액 : 6천800만원

011-394-2281
031)675-2281

사 찰 안 내
- 위치: 진주시 문산
- 산세수려한 곳
- 법당1, 방3개
- 전세, 매매 가능함

055)761-8998
011-870-6493

구합니다
암자나 사찰 임대
▷지역관계없음
010-8828-3002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안동시 도산면
- 대지 : 200평
- 시설: 삼존불, 각단탱호, 산신각
- 법당: 15평(조립식)
- 특징: 황토 벽돌집 (40평)
- 가액: 3천 5백만원
- 기타: 답사 후 가액 절충 可

054) 843-13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안강읍
- 대지: 86평 1층 요사채 34평 2층 법당 24평
- 특징: 시장옆 주택밀집지역
- 가액: 2억2천만원

054)763-6655

포교원 적지 안내
- 위치: 포천시 만세교리 (4차선도로 인접)
- 평수 500평, 건평 90평
- 현재 식당으로 쓰던것을 포교원 적지로 안내합니다 뒤에 산, 대형주차장 암반수 있음
- 가액 : 5억 5천만원

031)534-5626
031)531-9118
010-6224-485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구 용호 1동
- 평수 :15평
- 방2, 거실1, 다락1,창고1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4,200만원 (절충가능)

011-881-7881

토 굴 안 내
- 위치: 경북 동로소재
- 평수 : 40평, 대지 150평
- 방2개, 기름보일러, 창고1, 입식주방겸 방1, 나무때는 방1 , 주차가능
- 가액: 1천만원

010-4535-6673

사 찰 안 내
- 위치: 충북
- 법당,요사채,용궁,전답
- 청정수월 약사도량임
- 기치료 및 민간요법 특기를 가지신 비구,비구니 스님, 보살님 모십니다
- 가액: 2200만원(전세)

018-406-3073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남
- 대지 320평, 건물3동 있음
- 가액: 6천만원 1년 월세 일시불 150만원(가)

※ 참선 기도처로 매우적합
※ 최고 명당터
010-7763-3575

명당(부귀복덕)적지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지하철 1호선 7호선 7-10분 거리
- 대지 184평, 건평184평
- 2Km이내 중산층(아)5만세대 중,고교18 · 초등13곳
- 포교당 최적, 시가 17억원

연락처 011-9646-1990

포교당(급)안내
- 위치: 대구시 달성군 논공면
- 법당 : 75평, 건물 2층 방 3개
- 삼존불 후불탱화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천만원 (전세도 可)
- 답사 후 가액절충可

018-510-9290

사찰 및 명상센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7평, 건평 75평.
- 법당, 요사, 화장실, 창고, 기역자형
- 산자수려, 아파트 개발 예정지 근교.
- 기도터 및 명상센터, 단식원 최적지
- 가액: 2억 2천만원

011-606-1976

절 터 안 내
- 위치: 소백산 관광지 바로 옆 전망좋고 길포장완료
- 평수 : 240평
- 가액: 4천만원

016-9875-2438
043)423-1160

암자기도처 안내
- 위치: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 부지: 전 5000여평
- 건평: 30여평
- 특징: 산세 수려하고 물 좋고 청정지역 참선하는 도량으로 적격
- 가액: 3억 5천

054)673-8200
011-776-5569

명당터(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내 ↔ 부석사 중간(화천)
- 터세 : 태백산 줄기 봉황포란형(배산임수)
- 평수 : 5천평(실제 9천평 사용)
- 가액 : 1억 3천만원

016-573-2032

사찰안내
- 위치: 전남 화순군
- 연화 도수 형국, 최고의 명당터
- 법당을 중심으로 양쪽 계곡, 큰호수있음 1200평. 조립식 임법당, 요사채, 토목공사 완료 삼존불, 후불, 지장, 신중탱화 무료보시
- 가액 : 1억4천만원 (가격절충가)

010-9405-922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김천 복합도시 고속전철 도심지에 청정도량 해발 200미터 왕복4차선에서 500미터, 고속IC 7분거리 대형마트에서 10분거리
- 대지 300평, 준농지 700여평
- 태고의 천연약수 임법당30평
- 가액 : 1억 3000만원

054) 433-6315
010-4811-6787

포교당안내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서울 신림동 2층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 1, 주방 1, 화장실, 약 3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5천만원 / 월 50만원
- 12년 포교하였고, 신도가 3백가구 넘으며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0-2304-222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2동 부산은행옆
- 법당40평, 삼존불, 후불, 산신, 칠성, 신중, 지장, 탱화완비 수미단 단청, 집기일체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30만원

시설비 900만원,즉시법회가능
010-4846-5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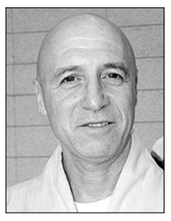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접성
- 대지: 100평, 건평 : 20평
- 조립식주택, 건축2년. 주변 자연석 많음 작은창고1, 조경, 도로접, 전기수도, 수세식
- 토지 700평. 저렴하게 구입가능(관리지역)
- 해발약500m 금수산옆. 마항산 중턱, 앞이 확트임, 조용한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최적합
- 가액 : 합 4,200만원

010-6460-1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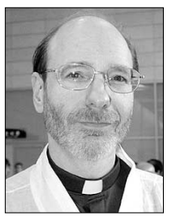
선수행 · 정신치료 키워드는

'무심과 무념'


종범 스님


대봉 스님


박홍 신부


서명원 신부

종범 스님 보시 · 인욕 통해 참된 마음 유지

서명원 신부 현대 인식론적 비평 빠져 아쉽다

대봉 스님 고통의 원인 일깨워 주는 점 같아

박홍 신부 환자에게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정신치료학회, 학술연찬 요지

"무심(無心)과 무념(無念), 다시 말해 허망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로 도(道)와 합일되는 선수행의 요체이자 이 시대 정신치료의 핵심입니다."

5월 27일 백범기념관에서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실제'를 주제로 열린 학국정신치료학회 학술연찬회에서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은 참선수행의 전통적인 내용과 방법을 통한 정신치료학적 접근을 시도했다.

종범 스님은 '선수행의 요체'란 논문을 통해 '직지인심(直指人心)' '애응지물(碍膺之物)' '사구(死句)와 활구(活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를 통해 '정신치료학 분야에 불교가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모색했다.

종범 스님은 "선수행은 행위의 결과보다는 행위주체의 역할과 과정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일상에서 '보시와 인욕'을 통한 '참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슴에 무엇인가 걸려 있는 것처럼 불안한 증상인 '애응지물'을 끊고 안심(安心)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강대 교수 서명원 신부는 "남종선과 정신치료학을 접목시킨 것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판단되지만 글의 전개에 있어서 현대의 인식론적 비평을 포함하지 않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명원 신부는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현재의 논쟁들과 성철 스님의 등장 이후 나타나고 있는 돈점(頓漸)논쟁과 정신치료학의 응용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었던 점도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다.

'선수행 및 지도경험'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한 대봉 스님(대전 무상사 조실)은 수행의 범위와 대상을 스님과 불자 그리고 산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인간으로 확대해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한계와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대봉 스님은 "모든 인간은 고통보다는 행복을 원하고 이성적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고통의 원인과 끝을 깨닫게 해주는 선수행은 현대 정신치료학과 일맥상통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동병원 정창용 진료고문은 "대봉 스님의 논문은 선수행과 무아론 등 일반적인 불교적 관점과 예시로 구성돼 있어 이해도를 높인 측면은 탁월하지만 구체적으로 선수행이 정신질환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며 특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박홍 신부(서강대 이사장)도 '정신과 의사들이 참된 선수행의 자세와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리(선수행)를 수용할 바탕이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입원, 약물치료가 필요한 사람 등) 선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선수행과 정신치료의 접목 시 선행돼야 할 구체적 제반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박홍 신부는 "우리나라는 종교다문화적 특성을 지닌 호모 렐리지오수스적 경향이 강하다"며 "종교적 진리와 정신의학을 올바로 융합 · 접목시킬 수 있을 때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을 치유하는 '좋은 처방과 명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한국정신치료학회 이동식 명예회장의 '도정신치료의 실제 예시' 동북신경정신과 김동순 원장의 '선수행의 실제' 밝은신경정신과 허찬희 원장의 '도정신치료에서의 치료자의 태도 및 해석' 등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불교학 리뷰' 창간호 발간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불교학 전문비평지 <불교학리뷰>(사진)창간호를 발간했다.

연 2회 출간될 예정인 이 책은 서평과 논평, 연구사와 연구노트, 번역, 신간소개 그리고 연구논문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연구사와 연구노트에서는 불교학의 한 분과나 중요한 과제, 불교사의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 추이를 정리할 예정이여서 불교학 연구동향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편집위원을 맡은 금강대 권탄준 교수는 "세계 각국에서 발표되는 불교학 연구논문과 서적 등을 모두 습득하는 것은 전문 불교학자도 감당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며 "<불교학리뷰>를 통해 불교학자는 물론 일반인도 불교학 연구의 현주소와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창간 동기를 밝혔다.

한편 이번 창간호 연구사와 연구노트에는 동국대 김성철 교수의 '한국유식학연구사'와 목포대 최연식 교수의 '대승기신론과 동아시아 불교사상의 전개' 등이 각각 소개됐고 번역에는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안성두 연구원의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함부르크대 슈미트하우젠)> 등 2편의 책이 소개됐다. 노병철 기자

'종립학교 종교교육방향' 주제

종교교육학회 학술대회 열어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용표)는 6월 3일 가톨릭대학교 대강당에서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방향: 종교교재의 분석과 평가'를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불교, 가톨릭, 개신교, 원불교 등의 종립학교에서 실시되는 종교교육과 교재 및 종교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현주소와 교육의 현장에서 이론과 실제를 결합하는 통로역할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대회에서는 동국대 김용표 교수의 '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재' 가톨릭대 최영희 교수의 '가톨릭 학교의 지침과 종교교재' 목원대 조은하 교수의 '개신교계 종립학교 종교교재 연구' 원광대 고원국 교수의 '원불교계 종립학교의 종교교재'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종교학과 문화 콘텐츠' 학술대회

한국종교학회(회장 강돈구)는 6월 9일과 10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종교학과 문화콘텐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근현대 한국불교의 특징과 개신교의 복음화 과정, 중국의 민간종교, 힌두교의 구조 등을 소재로 한 논문 28편이 발표된다.

특히 10일부터 진행되는 제4발표장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종명 교수의 '현대 한국예불의 구조와 의미'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효원 연구원의 '한국 관음신앙 유형-발원문을 중심으로' 서울대 민순의 교수의 '조선 초 조계종의 불교주도적 자의식과 종파' 등 불교관련 논문 6편이 소개될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통도사 삼층석탑 보물 지정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 삼층석탑(사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경남 양산 통도사 경내 소재 9세기 무렵 통일신라시대 삼층석탑을 보물 1471호로 지정했다고 5월 29일 밝혔다.

통도사삼층석탑은 1972년 2월12일 경남도 유형문화재 18호로 지정, 관리되다 이번에 문화재위원회 건조물분과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격상됐다.

통도사 삼층석탑은 2층 기단 위에 3층 탑신을 올린 삼층석탑으로 높이 3.9m에 기단 폭은 1.8m이며 보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석탑은 하층기단 네 면에 우주와 탱주를 생략하고 안상을 조각했다. 이런 석탑으로는 범어사 삼층석탑과 무장사지 삼층석탑 등이 있다. 노병철 기자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51>

데카르트

근대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의 명언은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서양의 과학사에서 데카르트가 왜 그렇게 많이 회자될까. 데카르트의 출현을 이해하려면 먼저 서양에서 17세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다. 당시 서양은 오랜 중세의 암흑에서 벗어나 찬란한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었다.

중세 암흑시대는 고대 문명인 로마의 멸망과 게르만 민족에 의해 비롯됐다. 글자 · 제도가 없는 게르만 민족은 로마의 전통과 찬란한 제도 · 문명 · 그리고 철학을 파괴했다. 그나마 이러한 중세의 암흑 와중에도 카톨릭 수도원에 의

물리적 세계인 기하학 · 영적세계인 해석학 결합

기독교 속박서 벗어나 자연과학 발전 물꼬 터

해서 글자와 문명은 유지됐다. 불교의 사원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포교를 위한 교회와 수도를 위한 수도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사회와 분리된 수도원에 의해서 오히려 문화가 유지된 것이다.

스콜라 철학의 끝자락에서 '영혼과 물질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온다. 데카르트는 이러한 시점에서 해석기하학을 세운 사람이다. 기하학과 해석학의 결합, 이것이 데카르트의 업적이다. 역사적으로 기하학은 현실에 대한 학문이다. 토목, 건설 등 공사에서 인류는 기하학을 이용했다. 특히 삼각함수를 이용함으로써, 토목공사에서 높이 측량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해석학은 다분히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학문이다. 물리적 세계의 기하학과 영적인 세계의 해석학이 한가지로 결합되는 길을 연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다.

몇 가지 수학적 원리로 자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듯이, 진리 또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하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 가장 명료한 진리를 찾고자 한 바탕에 바로 데카르트의 '나'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나서 남는 제일 원칙으로 'cogito'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리의 바탕을 세우려고 하였다. 우리의 주위에서 인식되는 사물의 존재를 아무리 의심해도, 마지막으로 남은 그 의심하는 나를 가장 기초가 되는 원리로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이 cogito를 영적인 세계와 물질의 세계의 연결통로로 보았다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고의 틀 내에서 수학으로 자연의 진리를 설명하고 체계화하고자 하는 전통이 생겼다. 수학에 의해서 당시 '연금술'과 같았던 기술을 합리화 시키고 산업혁명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따로 그 길을 열어주고, 자연의 원리는 자연의 원리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연과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 즉 과학적인 방법론이 계속 인류의 방향을 결정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대의 과학이 가져다 준 환경재해, 인간성의 피폐화를 보면서, 의심할 수 없는 '나'을 더 근저까지 추가해 간 동양의 선이 궁극적인 해답을 주지 않을까, 또 해답을 얻기 위해서 불자들의 대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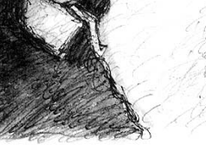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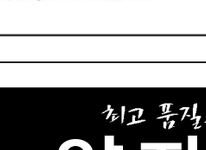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20만원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최고 품질의 악기만 생산하는
양지 국악사
- 불심, 장인정신, 전문성, 품질로 국내 최고의 제품 생산 -
저희 양지국악사는 1991년도에 종로에 처음 국악기 전문매장을 개업한 이래 2001년 경기도 하남 시에 국악기 제작소를 마련하였으며, 그곳에서 각종 북과 특수 악기를 직접 제작함으로,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서 불자고객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


◈ 타악기 PRERCUSSION INSTRUMENTS
고정음율이 있는 악기와 고정음율이 없는 악기로 이루어진다.
●장구 ●북 ●소고 ●징 ●꽹가리


◈ 현악기 STRING INSTRUMENTS
악기의 몸통에 줄을 매어 이 줄을 통해 소리가 나는 것이다.
●가야금(21현, 22현) ●아쟁 ●거문고 ●해금 ●양금 ●비파


◈ 관악기 WIND INSTRUMENTS
입으로 김을 불어넣어 혀를 진동시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대금 ●소금 ●단소 ●나각 ●태평소 ●피리 ●통소 ●당적


◈ 악세서리 ACCESSORIES
◈ 소 품 STAGE PROPERTIES
●풍물보 ●상모 ●북받침 ●장고띠 외
일체 기타주문제작

양지국악사 제품문의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HP:011-264-3439
www.yangjikukak.com
하남공방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일주문



백일지장기도 및 고승대법회

부산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6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백일 지장기도 및 고승대법회를 봉행한다. (051)508-3122~7



몽골 유치원 기공식 및 의료봉사

前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은 6월 6~11일 몽골을 방문, 유치원 기공식에서 컴퓨터 및 성금을 전달하고 의료봉사 활동을 펼친다.



부채전 수익금 '거룩한 만남'에

수원 아란야 선원장 지묵 스님은 5월 31일 단오절 부채전을 열고 그 수익금 전액을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에 보시했다.



몽골 고려사서 한·몽 봉축법회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6월 10일 오전 11시 몽골 고려사에서 2006년 한·몽 불교문화교류 행사 '부처님 오신날 한·몽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제25차 전국불교청년대회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손정현 회장은 6월 10~11일 부산 범어사, 안국선원, 홍법사 등지에서 제25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한다. (051)467-5241

선진규 중신회 고문 '목련장' 서훈



조계종 중앙신도회 선진규 고문(사진)이 5월 30일 '2006 청소년의 달'을 맞아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청소년 육성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을 서훈 받았다.

청소년 시설인 봉화산청소년수련원장을 맡고 있는 선 고문은 한국청소년시설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그동안 청소년 육성과 지원 사업에 매진해 왔다.

선 고문은 "지난 20여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청소년 육성과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6월의 환우,T세포림프종 앓는 김연진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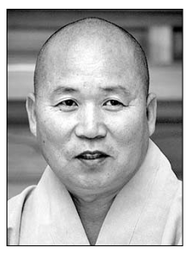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6월의 환우로 선정한 김연진씨(사진)는 머리를 삭발한 채 하루 종일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말초 및 피부성 T세포림프종이라는 판정을 받고 어렵게 항암치료를 받고 있지만 골수이식을 위한 비용조차 없어 가족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02)734-8050 농협(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이은비 기자**

"40년 인연 더 발전 시킬것"

캄보디아 정부 훈장받는 혜자 스님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사진)이 한국과 캄보디아 불교교류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는다.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해 라자보 사원에 '한-캄 우호기원 왓라자보 전산실' 개관과 지역주민에 대한 구호품 전달 등 주지 재임기간 동안 꾸준하게 펼쳐온 인도적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6월 20일 혜자 스님을 초청, 소칸부수상이 직접 훈장을 수여키로 했다.

도선사와 캄보디아 불교계와의 인연은 중창조인 청담 스님이 1964년 제4회 세계불교도대회 대표로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후 40여 년간 계속되어 왔다. 혜자 스님은 "은사의 뜻을 이어 양국의 불교교류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방문기간(6/17~21)동안 40년 전 남방불교국과 활발한 교류를 펼친 청담 스님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동수(도선사 총무국장), 장연수(총무원 문화사업단)씨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는다. **조용수 기자**

"어린이포교 활성화 견인"

레크리에이션포교회 새회장 송묵 스님



"어린이 지도자들을 위한 불교대학을 개설하고 포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문화강좌를 열어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하 불레협)의 활동을 한 단계 높이겠습니다."

6월 16일 11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송묵 스님(남양주 동원정사 주지 · 사진)이 불레협의 도약을 선언했다.

송묵 스님은 "불레협의 장기인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어린이 포교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청소년과 여성불자들을 위한 문화교실을 운영하겠다"는 취임소감을 밝혔다.

어린이포교의 제1과제로 지도자 양성과 교재 개발을 지적한 송묵 스님은 "어린이 지도교사 부족과 스님들의 무관심, 빈약한 재정이 어린이 포교의 3대 장애물"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묵 스님의 불레협 제11대 회장 취임법회는 6월 16일 오후 7시 한국일보 13층 송현클럽에서 열린다. **유철주 기자**

김민규 법사 자이툰부대 파견



6월 초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자이툰부대에 파견되는 김민규 군법사(사진)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곳에서 장병들과 동고동락하며 부처님 법을 알리고 싶어 지원하게 됐다"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참고 또 참으며 법사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

김 법사는 "자이툰 부대는 병원, 학교 건설 등 평화재건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는 위험하지 않다고 들었다"며 "현지에서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는 활동 계획을 밝혔다.

김 법사는 또 "그동안 1년여에 걸쳐 심리 상담 기법인 에니어그램을 공부했고 이라크 파견을 위해 그동안 체력 훈련을 비롯해 다양한 교육을 받아왔다"며 "다시 돌아올때는 웃통을 벗고 사진을 찍고 싶다"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김두식 기자**

'한국비구니 수행전통' 첫 포럼

전국비구니회, 논문 총 14편 발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성)는 6월 1일 일원동 비구니회관 대강당에서 '한국 비구니 수행 전통'을 주제로 첫 포럼을 개최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승단과 비구니는 일찍이 양성평등의 수행자로서 수행과 교육, 포교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대회를 밑거름으로 세계 속의 한국 비구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현재 8천여 비구니승가를 있게 한 비구니 큰스님들의 수행이력과 그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부와 2부, 3부로 나뉘어 진행된 이날 발표회에서는 고대 비구니 스님들의 삶을 조명하고 청규와 강원 변천사를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으며 3부는 근대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법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발표됐다.



동국대 교수 해주 스님, 미국조지아대 이향순 교수, 이화여대 김영미 교수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사진 오른쪽부터).

논문은 동국대 교수 혜원 스님의 '한국 비구니선원의 '청규'에 대한 고찰'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의 '한국 비구니 승가의 출가정신 확립에 대한고찰' 삼선승가대학 학감 수경 스님의 '근·현대 강원 변천사' 미국 조지아대 이향순 교수의 '조선시대 비구니의 삶과 수행' 등을 포함해 14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발표논문 전문은 buddhanews.com에서

영암 스님 열반19주기 추모법회



前 조계종 총무원장과 봉은사 주지를 역임했던 영암 스님 열반19주기를 맞아 6월 2일 봉은사(주지 원혜)에서 '영암당 임성대종사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서는 영암 스님의 금강경해설법문을 모은 유고집 <마음 없는 마음>의 출판고불식도 함께 진행됐다.

삼광한글학술상 시상식 거행



삼광한글학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영제)와 한글학회 부산지회(지회장 박선자)는 5월 25일 부산 삼광사 지관전에서 제19회 삼광 한글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성숙자 한국영재학교 부장 교사와 채영희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에게 삼광 한글학술상이 수여됐다.

강릉 등명낙가사 경로잔치 열어



강릉 등명낙가사(주지 청우)는 5월 28일 경내 큰법당 앞에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800여명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벌였다. 이날 행사는 점심공양 후 각 마을 대항 노래자랑을 비롯해 창공연 등 즐거운 놀이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청우 스님은 "경로잔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 개최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총재 현성)는 5월 28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19회 청소년 전통예술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보리수동산팀의 '사물놀이'가 대상을 받았으며, 진선여고의 '서도소리'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불기협 2006 상반기연수 개최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은 5월 27일부터 28일 예산 수덕사에서 2006년도 상반기 정기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에는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의 법문,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과의 차담, 신두리 갯벌 체험 등 회원간 친교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복 회장
(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서양의학의 본 고장인 독일 동서의학병원에 초청되어 그곳 환자들을 치료하여 의사들과 환자들로 부터 "슈퍼"라는 최상의 찬사를 받고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정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천일기공책[이재복 지음] 300면 값 10,000원

● 단체강의 : 삼성종합화학(주), 국립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주), 한솔개발(주) 등 다수

天一氣功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현대인의 만성질병은 무게 중심이 무너져서 생긴다.
스스로 골반, 척추를 바로 잡아 무게 중심을 바로 세워서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 性命雙修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너 숨쉴줄 아느냐?" 세상에는 숨 쉴줄도 모르는 구도자들이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 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
◆ 음기(사기)제거법의 원리도 모르는 스님들이 자기 죽는줄도 모르고 구병시식이나 천도제를 많이 지낸 후 빙의에 시달리거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고 손발이 싸늘하게 되면서 병마에 시달리는 스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 여기 음체(냉한몸)를 양체로 바꾸고 氣場을 높이는 고급수련 법이 있습니다 단시일에 氣場이 높아지고 건강이 좋아지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들 몸에서 엄청난 음기(사기)가 쏟아져 나오면 구역질이 날 정도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 나오면 그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수련을 마치신 스님들께서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천일기공소백산수련원에 오시면 수련에 대해 총 정리가 됩니다.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전화주시면 책(약사 나경환 지음)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천일기공 소백산 수련원에는 전국에서 대덕스님과 불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스님들이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14년간 수 많은 스님들이 건강을 되찾고 기치유법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57기 - 6월 15일(목) 오후 2시 - 18일(일) 12시

<매월 1회 실시 - 선착순 20명 마감>

천일의학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 회원가입신청 : 054)637-9810(수련원) / 02)3436-3206 ~ 7(서울본회)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자리) ※ 전화주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놀랍고 두려운 민심

어떤 과정이었든 어떤 결과였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번 5.31 지방자치 단체 선거 과정이나 결과 역시 마찬 가지다.

'집권 여당의 완패' '한나라 당의 싹쓸이' 로 표현되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수많은 분석과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주로 현 정권 구성원의 독선과 오만, 저급한 통치 스타일이나 세계사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아마추얼리즘, 경제경시 정책 등 국민정서에 역행하는 정치 행태에 대한 지적이 많다. 맞는 말이다. 여권에서도 이점을 처음으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그동안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온 한국의 민주적 선거문화에 새로운 경험과 반성을 더해 주고 있음도 살펴야 한다.

지난 반세기동안 선거 판은 혼탁하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었다. 어느 선진 민주국가이든 초기 민주주의 단계에서 겪었던 과정을 우리도 겪었을 뿐이다.

지금 한국에 그런 후진국적 선거문화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름대로의 선거법 개정이나 높아가는 민도가 후진 문화를 추방해 온 셈이다.

대신 정치권은 야비함과 교활함, 흑색선전에 편 가르기, 저질적 발언 등으로 새로운 진흙탕을 만들었고,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선동 정치에 맛들이기 시작 했다.

집권여당이 석권했던 2004년 총선은 '탄핵' 이라는 야당의 극단 대응을 역이용, 국민정서를 자극하여 얻어낸 결과였다. 국민정서가 정치권에 의해 한번 크게 흔들린 것이다.

한때 정치인들이 '국민정서가 가장 무섭다.' 고 한 적이 있다. 정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치적 판단에는 정서보다 냉정한 이성이 더 필요하다.

극단은 극단을 불러온다. 지난 총선과 이번 지자체 총선의 쏠림현상은 그런 의미에서 같은 리듬,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버스 승객의 좌우 쏠림과 비교해 보라.

한나라당의 압승은 절대적인 국민적 지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서 '압승' 이라는 것도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놀랍고 두렵다.' 는 한나라당의 압승 반응은 오히려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21세기 초 우리는 극단이나 선동의 결과에 대한 큰 경험과 여기에 대한 얼마간의 항체를 키웠을 것이다. 한편 극단을 경계하는 '중도' 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한번 되새겨 보게 된다.

정치인들이나 국민이 극단을 버리거나 극단에 휩쓸리지 않고 중도를 찾는다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 날 리도 없다.

민주화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민주화의 질을 높여 가는 것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화의 질은 정치권이나 국민의 정신적 차원이 만들어 낸다.

오랜 역사 속에 우리가 간직해온 '중도' 나 '팔정도' 는 정신적 차원을 고양시키는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분열과 증오 등 이 시대 고질적 증상을 화합으로 치유하는 약제로도 이만한 것이 없다.

중도란 극단과 극단 사이에 자리한 고요하고 깨어있는 마음 상태로 만약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질 수만 있다면 여기서 확장된 통찰력으로 당면 문제들의 본질을 냉정하게 짚어 보고 그 해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도의 마음가짐이 그렇게 쉬운 경지가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적어도 정치인이나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신적 차원을 높이기 위해 '중도' 를 정치의 이상적 목표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오늘의 진흙탕 속에서 그런 연꽃을 키워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오대산 사고에 보관되었다 도쿄대로 건너간 약탈문화재 조선왕조실록 47책을 불교계의 조선왕조실록 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와 서울대의 노력으로 되돌려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귀한 문화재를 돌려받게 된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다.

약탈 문화재의 환수는 최근 텔레비전 방송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이 문제를 타이틀로 삼을 만큼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병인양요때 프랑스 군인들이 가져간 외규장각 도서에 대한 반환 협상에서 보았듯이 약탈 문화재의 환수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협상은 1992년 7월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이에 비한다면 이번에 조선왕조실록을 되돌려 받은 일은 괄목할만한 성과이다. 환수위에서는 올 3월부터 도쿄대와 조선왕조실록의 환수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으니, 불과 3개월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환수위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5월 31일 서울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도쿄대로부터 조선왕조실록을 환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환수위가 배제된 채 올 5월 갑자기 도쿄대와 서울대간의 협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기증' 과 '환수' 의 차이

더군다나 도쿄대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을 "기증"한다고 표현하여 명분을 살리고, 서울대에서는 "환수"받는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실리를 챙기는 협약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서울대는 약탈 문화재 환수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자평했고, 환수위에서는 약탈된 문화재를 돌려주는 것에 대해 반환이 아닌 기증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 앞으로 문화재 환수에서 오히려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명분보다 실리를 택한 서울대의 결정에 대해 결과적으로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고, 도쿄대가 환수위와 협상 중에 제 3의 기관인 서울대를 택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것이다. 명분을 강조하면 실리를 얻기 어렵고, 실리를 택하면 자칫 자존심의 손상과 역사왜곡으로 비출 수 있는 어려운 선택이다. 명분과 실리의 사이, 그 어디쯤에서 새로운 모델을 찾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정병모(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

특별기고

'절' 바로 알고 바로 하자



스님에게는 1배로 상호교례를

佛前에만 3배 … '손바닥 들기' 우리 전통 아니야

부처님당시에는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나서 부처님의 발아래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앉아 있는 것이 예절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인도에서는 수행자나 성자에게 예배하는 것이 상례로 된듯하다.

티베트불교에서는 전신 전면오체투지(全身前面五體投地)로 시행되고 있다. 말하자면 합장(合掌)이나 오체투지(五體投地) 예경의 형태는 인도의 것이라는 점이다. 합장 예배는 우리나라에도 불교교단에 흡수되어 체질화 되었다.

'우리나라 불교전래 1600여년이 지났지만, 우리민족은 오체투지로 절하기도 하지만 본래 생활화하고 있던 일반적인 예배법을 사용했다. 여인들은 보다 더 장엄한 몸짓으로 예배 했었다.' <불교예술 3권>

옆 사람이 부딪칠 정도로 양쪽 팔을 크게 벌려 아래에서 위로 휘감아 원형을 그리면서 내려서 합장한 채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의 고유한 전통적인 신불에게 드리는 절(拜)이 있었던 것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불교인들이 외국의 여러 나라에 왕래한 이후에 종전과 다른 새로운 모양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절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변형되기 시작 것이다. 그것이 예배하고 나서 양손을 뒤집는 모습이다.

앙부(仰俯)의 자세라고 하나, 딴 소리 일 뿐, 지금은 신도 법요집과 사찰의 신도교육지도지침서에까지 수록되어 있는 실정이다.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와 티베트 태국 중국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예배형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큰 법당에서 예배할 때 손동작을 보면 1960년대 이전에 불자가 되었거나 모태신앙이었던 신도의 손 모습은 일반적인 전통적 절할 때 모습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불자가 된 분들은 손을 귀를 감싸거나, 귀 위로 바로 세우거나, 아니면 머리위로 두 손바닥을 치켜세우는 분도 있는 실정이다.

한마디로 성스러운 종교의식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예절마저 통일되지 않았다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무질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손동작을 하고 절하는 것은 일본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다.

친일(親日)이니 왜색(倭色)이니 하면서도 정작 고칠 것은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를 조금 안다고 하는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복혜양족(福慧兩足)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일축해버리는 실정이니 말이다.

또, 예배문제중에 세 번 하는 절에 대한 것, 많이 절하는 다배(多拜) 관행 및 재(齋)를 올릴 때 절하는 횟수 등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내가 어릴때는 절에 가면 법당에서나 세 번 절하는 것으로 여기고, 재(齋) 지낼 때는 영단(靈壇)에 두 번 배례(拜禮) 하는 것을 '정석' 으로 여겨왔다. 역시 1960년대부터 스님께 세 번 절하고 법당에도 세 번 절하는 특별한 형식이 전개되어오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노장스님들께 여쭈어보면 근래에 그렇게 되어버렸다고 증언한다.

"1994년 10월 6일 조계종 개혁회의가 통도사에서 개최한 종단개혁 불사 보고법회 법어(法語)를 통해 종정(宗正)스님은 '승려나 신도가 큰스님에게 3배(拜)를 올려 인사하는 관행은 잘못' 이라고 지적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3번 절하는 것은 불경(佛經)이나 불교의례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것이며, 불전(佛前)이 아니면 절(拜)은 한번으로 그쳐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절에 서 재(齋)를 올릴 때 영가에 2번 절하면 되고, 집전하는 스님에게 절하는 것은 잘못"<문화일보 기사/월하스님 대담/1994. 10. 8>이라고 밝히면서 이것부터 개혁하라고 권장하셨다.

다른 노장스님의 기록물을 살펴보자.

"영단(靈壇)에 잔을 올리고 뒤돌아서서 절하지 말라. 집중하여 재를 지내는 스님을 산란하게 만드는 일이다. 살아계신 분에게는 1배를, 영단에는 2배를, 자기스승 제삿날에는 3배를 해야 한다."<법공양/우룡스님편>

이와 같이 권유하고 주장하신 원로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봉행해야 할 텐데도 어느 불교종단에도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다. 민족적 자존심을 우리가 찾아 전통예절을 살리면서 새롭게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다배(多拜)관행은 어떠한가? 불상을 향해 백팔 배, 천팔십 배, 3천 배 등의 관행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절에 가서 신도 되기가 힘든다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고행자(苦行者)의 경우 실천의지에 따라 행할 수는 있지만, 붓다께서 가르치지 않은 것을 구태여 왜 대중 불교시대에 절(拜)을 많이 하도록 강조하며 마치 붓다의 정법수행인양 자처하며 장려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싶다.

'절(拜)하는 곳이 절(寺)이 아닌가, 절로 한다는 절을 함에 있어 무슨 기교가 필요하겠는가? '뒤집는 손바닥은 붓다의 복혜양족(福慧兩足)을 나타내지 않느냐' 는 거짓 꾸며대기식 주장보다는 하루속히 본래 우리민족의 예배방식을 회복하여 경건하게 터 잡아 나아갈 일이다.

스님에게 3번 절하는 관행을 한번으로 회복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절하고 난 뒤 손바닥 뒤집는 형태도 국적을 찾아야 한다.

재(齋) 지낼 때 영단(靈壇)에 두 번 절하면 되고 다른 곳에 절하지 말라는 노장스님들의 말씀도 실천으로 옮겨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스님과 신도들 모두는 상호 교례(交禮)를 해야 할 것이다.

불자 모두는 삼귀의례(三歸依禮)가 있음을 생각하고 누구에게 절하든 공경스럽게 경배하고 존경해야 한다. 상호 교례를 하면 자신들도 각기 4부대중의 일원이기에 자신이 타인에게 예배함은 내 스스로에게 절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승속을 막론하고 우리 민족이 전승해온 우리 불자들의 절(拜)을 다시 개발하여, 절(拜) 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원주(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강사)

'현대' 만평 심 민 섭



2005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 『현대불교신문 합본 11집』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불교신문 2005년 합본집이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한해 불교계가 지나온 발자취가 담겨진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상, 하 두권으로 나누어 불자님들께서 보다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깊이 있고 다양한 불교교리와 불교문화 관련 자료와 정보 등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 스님들께는 수행의 반려자가, 불자님들께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 2005년 1월(507호) ~ 6월(532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 2005년 7월(533호) ~ 12월(558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 × 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낱권 판매 불가)
- 입금계좌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 / 농협 053-01-236053

주문 및 문의
- 구성 : 전화 (02) 2004-8211, 2
  팩스 (02) 737-0697
  Email: cetana@buddhapia.com
  현대불교신문사 고객1팀
- 과년호 한정판매
  2000년 ~ 2002년 (6집~8집) : 50,000원
  2003년 ~ 2004년 (9집~10집: 상, 하권) 70,000원

※ 재고가 많지 않아 한정판매 합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031)334-9490, 334-9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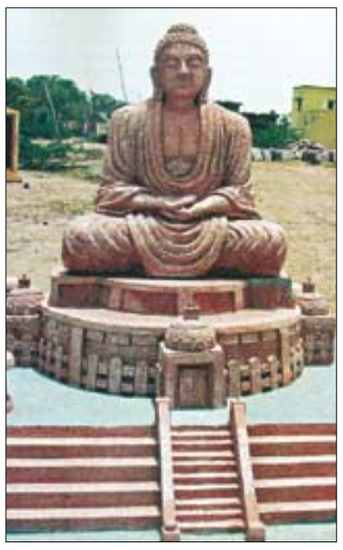
印 안드라 프라데시주 일대 불교성지로 개발

세계 경전번역센터 · 테마파크 등 조성 계획
용수보살 말년 보낸 곳… 등록 유적지 144개


나가르쥬나 콘다에 위치한 싱할라 승원의 유적.

지난 1월 중순 인도의 암라와띠에서 진행되었던 칼라차크라를 계기로 암라와띠와 인근의 나가르쥬나 콘다 등이 불교 성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안드라 프라데시 주 정부는 칼라차크라가 열린 시기를 전후하여 나가르쥬나 콘다를 비롯한 크리슈나 강변의 불교 유적지 개발 계획과 불교 연구소 설립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불교 유적지 보존사업과 불교 순례단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칼라차크라를 기념해 암라와띠와에 조성된 불상.

<숫타니 파타>에 의하면, 안드라 프라데시는 부처님 생존시 불법이 전파되었던 지역으로, 이후에도 주변 지역에 불교 전파가 계속돼 안드라 프라데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크리슈나 강 주변 여러 군데에 사찰과 승원이 생겨났다.

특히 그 중 한 곳의 승원은 대승불교의 시조인 나가르쥬나(용수보살)가 말년을 보낸 곳으로 유명하다.

이후 대승불교는 티베트와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전해졌는데, 그 뿌리를 되짚어 가면 결국 안드라 프라데시의 나가르쥬나 콘다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다.

원래 나가르쥬나가 살았던 승원은 나지막한 산 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지난 1974년 나가르쥬나 사가르 댐이 완공되고 이로 인하여 부근이 수몰지역이 됨으로써 애초에 언덕이었던 이 지역이 섬이 되었다. '콘다'라는 말은 안드라 지역어로 '언덕'이라는 의미로서, 유명한 나가르쥬나의 승원이 언덕 위에 있었기에 그 지역을 아예 '나가르쥬나의 언덕'이라고 부르게 됐다. 그러나 현재는 언덕이 아닌, 댐에서 45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 되어버려, '콘다'라는 이름이 조금은 무색하다.

수몰로 인하여 주변에 흩어져 있던 30개의 불교유적지가 함께 수장되는 아픔도 있었다. 그러나 주 정부는 각 수몰 유적지에서 불교 유물들을 모두 모아 섬이 된 나가르쥬나 콘다에 박물관을 건립했다.

현재 인도 고고학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박물관은 5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는 안드라 프라데시 지역의 불교 유물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나가르쥬나의 것으로 추정되는 치아 사리가 사리함에 모셔져 있기도 하다.

이런 역사적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안드라 프라데시 주 정부는 이 지역을 국제적인 불교 센터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박물관 이외에도 암라와띠에 연구소 설립을 선포하고 제반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은 경전번역센터로 출범할 이 연구소를 몇 년 내로 국제적인 불교 연구소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이 주 정부의 계획이다.

또한 안드라 프라데시주의 수도인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주립 박물관에 '불교 유물 갤러리'를 개장해 이 지역의 불교 성지를 찾는 순례자들에게 선보이고, 나가르쥬나 콘다에는 불교 테마파크를 건립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안드라 프라데시에는 인도 고고학협회에 등록된 불교 유적지만도 144개에 이르며, 이 중 55개 유적지에서 현재 보수 및 주변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 정부는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하이데라바드에 국제공항과 숙박시설, 도로망 등 관광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도=이지은 통신원

"비구니 수계, 세계 합의 이끌어내야"

달라이 라마 강한 의지 피력

지난 5월7일 태국에서 열린 '웨삭데이(Vesakday) 국제불교도 회의'에서 태국의 비구니승단 설치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달라이 라마가 최근 티베트에서 열린 불교관련 세미나에서 비구니 수계에 관한 불교계의 합의 필요성을 언급해 관심을 끌고 있다.

티베트 인터넷 뉴스 사이트 '파율닷컴(Phayul.com)' 5월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달라이 라마는 이 세미나에서 "비구니 수계에 관한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티베트 불교계의 입장을 정리한 뒤 스리랑카와 태국 등 세계 불교계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달라이 라마의 이 같은 말은 티베트 불교계가 세미나 등을 통해 비구니 수계에 대한 전 세계 불교국가의 관심을 고취시킨 뒤, 이를 주제로 한 국제불교회의를 열어 일반적인 합의에 도달하기를 바라며, 티베트 불교계가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 사이트는 전했다.

달라이 라마는 또 "비구니 수계에 관한 결정사항을 이행해야만 티베트 불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비구니 수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명우 기자

재앙 면한 인니 보로부두르 사원



지난 5월 28일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지진은 6천여 명의 사망자와 1만 여명의 부상자를 내는 등 엄청난 재앙을 몰고 왔다.

그러나 족자카르타에 있는 세계 최대 불교 유적 중 하나인 보로부두르(borobudur · 사진) 사원은 동남아 최대힌두교 유적지인 프람바난 사원이 심한 피해를 입은 것과는 달리 화를 모면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보로부두르 사원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사원 한 변의 길이가 111.5m로 단일 건축물로는 세계 최대이며, 432개의 500 여 개의 불상과 1500 여 개의 벽면 조각 등 내부 규모 또한 엄청나다.

한명우 기자



이병두와 함께 읽는 **오늘의 세계불교**

'주부(JuBu) 붐'에 주목하자

오랜 역사 속 다양한 사상과 만나 불교 발전
부처님 가르침 온 세상에 전할 방안 모색해야

최근 불교계 언론을 통해 접하는 해외 불교 관련 소식 중 '주부(JuBu)'라고 하는 용어가 눈길을 끈다. 이 단어는 유대교 신자이면서 동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인 '유대교 불교도, Jewish Buddhist'를 줄여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이런 소식을 대하는 불자들의 반응도 다양하다. "명상의 방법만을 받아들이는 일시적 현상이지 결코 불교세의 확장은 아니다"며 평가절하하고, 심지어 이런 흐름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렇게 독선적이던 유대교 신자들까지 불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면 역시 불교가 21세기의 대안이다"며, 불교의 미래에 대한 낙관론을 펴는 근거로 삼는 이들도 많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5월 26일자에 '두 종교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흥미 있는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에 따르면, 베카 토폴(Becca Topol)이라는 37세의 유대인 여성은 헤브류 말로 평화를 뜻하는 '샤롬(Shalom)'이라고 새긴 작은 돌과 부처님 상을 함께 거실에 모셔놓고 명상에 잠긴다.

그녀는 말한다. "저는 유대-불교도입니다. 불교 수행을 통해 유대교로서 저의 신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41세의 유대인 남성인 데이빗 그로텔(David Grotell)은 "우상 숭배를 금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어기는 일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집안에 명상 수행 공간을 마련하면서도 불상을 모실 수는 없었다"며 자신이 겪고 있는 혼란을 토로하기도 한다.

현재 이른바 '주부'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몇몇 통계에 따르면, 새로 불교도가 되는 사람들 중에서 30% 정도가 유대인들이라고 한다. 미국 내 유대인들이 600만 명에 이르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주부' 붐이 계속된다면 미국의 종교 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불교에 다가오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에 대해 몇 가지 추론이 있다. 10여 년 동안 불교 공부를 한 뒤에 유대교 랍비가 된 알랜 류(Alan Lew)는 유일신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는 유대교와 초월적 존재가 없는 불교의 절묘한 혼합을 "아름답고 창조적인 두 종교의 만남"이라고 부른다.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 불교 단체인 '로스앤젤레스 다르마(L. A. Dharma)'의 설립자 마이클 시프만(Michael Shiffman)이 말하듯이, 대다수 '주부'들은 불교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단지 조금 더 행복하게 느끼며 살기를 원하는 지도 모른다. '주부' 붐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주부'와 유사한 흐름은 늘 있었고 그런 흐름이 불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것 또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유학자와 도가 사상가들 중에 불교에 심취해서 재가 거사로 활동하거나, 스님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른바 '중국 불교'의 발전을 가져왔던 이들이 많았다. 우리 불교사에서도 그런 예들을 숱하게 찾을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초의선사와 서신 논쟁을 펼친 추사 김정희였다.

오랜 불교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상과 접하여 그들을 끌어들여 오늘의 불교가 이룩되었다. 아마 이 시대 '주부'들 중에서도 훗날 역사가들 눈에는 '위대한 불교 사상가'로 비칠 인물이 태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주부' 뿐만 아니라 이미 '크부(ChBu; 기독교 불교도)'와 '무부(MuBu; 무슬림 불교도)'도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불교계가 할 일은, 이처럼 다양한 종교 전통을 지켜온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할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해외에 불교를 포교하고자 계획을 세우거나 이미 활동에 나서고 있는 곳에서는 '주부' 붐을 예의주시하고 그 흐름을 다른 종교 신자들에게까지 넓혀가는 적극적인 방안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 자유기고가

大韓佛教曹溪宗 第九教區 本寺 桐華寺 第二十五代 住持 南明 虛韻和尙 晋山式

초 · 대 · 합 · 니 · 다

듣고(聞), 사유하고(思), 닦음(修)에 의해 스스로 정진하는 제9교구 본사 동화사 주지 남명 허운화상의 진산식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진산식은 새 주지스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 비움과 마음 맑히는 것을 수행의 제일로 삼았습니다.
화합의 실천은 마음이 비워지고 깨끗하게 맑혀져야 가능합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부디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오며 많은 격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 동화사** 제25대 주지 진산식 봉행위원회 합장

불기 2550년 6월 17일(토) 11시 · 동화사 통일대불 앞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객스님 여비는 종단 지침에 따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팔공산동화사 701-430 대구광역시 동구 도학동 35번지 Tel 053)985-4404 Fax 053)985-4405 www.donghwasa.net

현대불교 buddhanews.com 17
서기 2006년 6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581호



오아시스 레코드 손진석 사장

팔순을 앞둔 나이에도 꾸준히 배우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손진석 사장의 힘은 정직한 사람으로 살기위한 부단한 노력에서 나온다.

"팔불출만 알면 즐거운 인생"

식지않는 학구열, 경전·불서 읽으며 마음 다스려
한국 음반업계 산 증인… 해외시장 직접 개척
'정직'과 '필요한 사람되기' 경영철학 50년 지켜
"둘도 없으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팔불출(八不出)'의 뜻을 아십니까?"

불교와의 인연을 질문하는 기자에게 오아시스 레코드사 손진석(79) 사장은 되레 질문을 던진다.

"마누라나 자식 등 가족 자랑이나 늘어놓는 모자란 사람"이라 대답하니 손진석 사장은 "국어사전에서는 그것만 나오는데 '팔불출' 안에 진리가 다 있다"는 답변이다.

"'팔불출'의 뜻을 불교사전에서 찾으니까 더 깊어요. 뭐냐, '불생불멸(不生不滅) 불거불래(不去不來) 불일불이(不一不異) 부절불상(不絶不常)', 이 여덟 가지를 못 하기 때문에 '팔불출'이라는 겁니다. 이 여덟 가지가 바로 불교의 진리이자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법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고 멸하는 것도, 오고 가는 것도, 하나도 다른 것도, 끊어지거나 항상하는 것도 없다는 '팔불'은 <중론>에서 설한 진정한 공(空)의 세계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손진석 사장이 처음 불교를 만난 것은 사찰도 아니고 주변인들의 권유에서도 아니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음반회사를 하다보니 긴급조치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몇 십 년 전이죠. 그때 7개월 20일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불교서적들을 만났어요." 그렇게 시작한 불서와의 만남은 여든을 눈앞에 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무실 곳곳에 손때 묻은 <육조단경> 등이 평소 그가 읽었던 자취를 남기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딱 나를 위한 것 같아요. 불교는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기 때문이죠. 의문을 가지면 답을 줘요. 기복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복은 안돼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알고 믿어야죠."

책을 통해 불교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론적으로 알면 알수록 불교는 무궁무진한 재미를 안겨줬다. "어떤 일본인이 쓴 책을 보니까 '불(佛)'은 곧 '마음(心)'이고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에 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 '부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경주에서 태어난 손진석 사장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수재다.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8회 졸업)한 손진석 사장은 과대표를 시작으로 단대학생회장, 총학생회장, 전국학생회장 등을 모두 휩쓸기도 했다. 일제시대에 태어난 탓에 고생도 많이 했다. 초·중교는 일본인 선생 밑에서 일본의 역사와 말을 배웠다. 내 나라 역사를 일본의 역사보다 모른다는 자책감도 있어 더욱 책을 열심히 봤다. 간도에 건너가서 학교를 다닌 시절도 있었다. 한때 부산에 기거하며 부산사범을 다니기도 했다. 여러 곳을 다녀서인지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한다.

"외국어라는 것이 말을 안 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단어라도 안 잊어버리려고 말 하는 중간 중간에 영어 단어를 섞어서 말하죠. 중국어는 새로 좀 공부하려고 했더니 온통 약어들이 많아져서 쉽지가 않더군요."

나이를 잊은 학구열이 대단하다. 불교서적들도 한국어 일어 가리지 않고 읽는다. 기자와 만난 날도 <야마토(ヤマト) 어근사전> 등의 책 선물을 받고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일본인이 썼다는 <대무량수경> 읽은 얘기를 하면서 손진석 사장의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가 만들어낸 불교음반은 송춘희 찬불가를 비롯해 영인 스님 염불 시리즈, 박범훈 창작불교음악 시리즈, 영산회상곡, 참선 명상의 말씀, 이차돈의 하늘 등 다양하다. 얼마 전 오아시스 레코드는 불교계 봉사단체 무량회의 음반을 만들었다. 단순히 음반만 제작한 것이 아니다. 작곡을 맡은 이동훈 작곡가에게 불교음악에 대한 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불교음반을 한 아름 안겨주고 교육도 시켰다.

"새벽 6시에 출근하자마자 2~3시간 동안 무량회 음반을 계속 들었어요. 작품이 너무 좋아요. 불교가 음악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진석 사장의 사무실에는 동자승 그림이 걸려있다. "예전에 진관사에 가서 찻집을 들렀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표구도 되지 않은 채 놓여 있더군요. 그림에 쓰인 문구가 너무 맘에 들어서 사왔죠."

그림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벌떡 일어나 직접 그림의 문구들을 가리키면서 일일이 설명해준다. 그림에는 '말이 화살같이 나가는데 가볍게 나가는 것은 안 된다. 한번 사람 귀에 들어가면 힘이 있어도 빼내기 어렵다'는 문구가 써 있었다. 손진석 사장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그림에 쓰인 글을 읽는다.

이 그림이 각별한 인연은 이게 끝이 아니다. "범패하는 범진 스님이 녹음 때문에 왔는데 당신 그림이라고 하더군요. 인연이 참 대단하죠?"

그가 전하는 에피소드 하나. 화두를 처음 접했을 때의 이야기다. "한자로 '話頭'라고 쓰잖아요. 처음엔 책 서문을 말하는 건줄 알았어요. 화두에 대해 여기 저기 많이 물었는데 내 맘에 딱 떨어지는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이후에 성철 스님 책을 보니까 '이뭣고' 'What is this'가 나오더군요. 성철 스님 책을 보면서 많이 배웠죠."

손 사장은 불교TV 강의는 빼놓지 않고 본다. 잘하는 강사를 메모해뒀다가 그들의 강의는 꼬박꼬박 챙겨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손진석 사장이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레코드 원료를 수입하던 무역회사였다. 여기서 오아시스 레코드를 인수했고 그 때부터 오아시스는 손 사장의 몫이었다. 음반 계약을 위해 인도로 미국으로 영국으로 전 세계를 발아래 두고 열심히 뛰던 시절이었다.

"당시 영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영문학 전공에 미군부대 연락장교로 복무하면서 영어에 익숙해있던 저였습니다. 덕분에 EMI나 워너 쪽과 직접 계약해서 음반을 냈고 회사를 살려낸 거죠."

일제시대부터 있던 레코드사중에서 남아있는 것 이제 오아시스 한 곳 뿐이다. 50년동안 사장으로 이끌어온 오아시스는 민요나 창 등 인간문화재들의 음반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서정주 시인이 어느 글에서 '때 되면 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어요. 이제 철이 좀 든 것 같은데 철들자 죽을 때라더니 딱 그렇네요. 하하하"

손 사장은 '즐겁게 살자'주의자다. 짧은 인생 우거지상으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그래서 잘 웃는다. "생전의 한 마디가 사후의 열 마디보다 낫다"는 것을 강조하는 손진석 사장의 경영철학은 '정직한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직원들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이 세상 60억 인구 중에서 '나'는 오로지 하나뿐입니다. 인간뿐이 아니에요. 모든 생물이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그 생물체 하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도 없으니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손진석 사장의 말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떠올리게 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현대불교신문 공동 캠페인
'2006 군포교 합시다'
찬불가 반주기 군법당에 보내기
우리의 불자 장병들이 활력 있고, 보람찬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합시다!!!
군대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는 장병들이 "찬불가-하나로반주기"로
찬불가를 배워 신행생활의 기쁨과 성불의 연을 맺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법회의 설법용 앰프로 사용이 가능하며,
군부대 위문 공연과 경로위안잔치 등
각종 사찰행사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교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어린이도 찬불가 동요와 법회 의식곡 등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신도님들도 찬불가 가요를 송년회, 친목회,
지역법회 등의 다양한 포교활동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외행사에서도 "찬불가-하나로반주기"면 OK!
간편한 이동과 고출력의 웅장한 사운드로 군법당이나
사찰의 야외 법회나 행사용으로 제격입니다.

KY Kumyoung Life is Entertainment
세계최초 육성 코러스 기술개발하여 노래방기기에 도입
고객맞춤형 제품출시로 노래방문화 정착 일등공신
고객만족도·판매율 선두주자 '금영'



■ 제품사양
• 출력 : 100W+100W , 소비전력 : 350W
• 입력전압 : AC 220V 전용 50/60Hz
• 사이즈 : 64.5(가로) × 67(세로) × 150(높이)Cm
※ 모니터포함
• 모니터 21인치(완전 평면)
마이크 2개(5m), 리모콘 포함
• 일반곡 23,000곡 이상 내장 ※ 찬불가 120여곡 내장

현대불교와 풍경소리가 함께하는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보급 캠페인에 참여합시다.
풍경소리에서 제작한 법회 의식곡 / 찬불가 가요 / 찬불가 동요 120여곡 추가 내장

찬불가 하나로반주기 구입 및 문의 02)2004-8207, 8210 (현대불교 영업2팀)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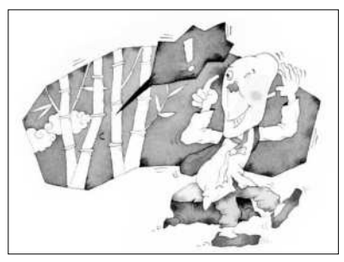
<65> 임제선사가 탑전(塔殿)에서 열(?) 받다

해동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다례재를 5월 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모셨다.

삭발, 목욕재계하고 참석했다. 설악산 진전사에는 도의국사의 부도와 탑이 남아있다. 폐사지 탑전도 얼마전 복원을 마쳤다.

종조는 종도의 사상적 구심점이며 정체성 확립의 방편이다. 종조는 부처님과 같은 반열에 두고 있는 것이 종문 가풍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진전사 종조 부도탑의 참배인구는 하루에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조계종 사부대중에게 종조가 어떤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라 하겠다.

인근의 인기있는 해동제일성지 봉정암 부처님 진신사리탑 참배와 아울러 종조 도의국사 부도탑 순례라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처님 제자로서, 또 종도로서 정체성을 동시에 확립할 수 있는 대대적인 인식전환 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게 그곳을 참배했다. 탑전(塔殿)에서 몸을 추스리며 주변의 풀과 나무들을 정리했다. 번민을 쉬니 위산선사가 준 화두가 저절로 참구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을 청소하다가 땅바닥에 튀어나온 기와조각을 발견하였다. 그걸 치우기 위하여 뽑아들고서는 멀리 내던졌다. 그 기와조각이 대나무에 부딪치면서 '딱' 하고 울렸다. 이 소리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홀연히 깨쳤다. 저절로 '껄껄껄' 하는 웃음이 나왔다. 그 대답 별거 아니네.

임제의현(?~867) 선사가 달마선사의 부도탑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 탑전에 사는 스님이 물었다. "화상은 부처님에게 먼저 절하십니까? 조사에게 먼저 절하십니까?"

이게 뭔 소리야. 뭘 묻자는 거야. 내가 대웅전을 들르지 않고 이쪽으로 바로 온 것을 눈치라도 챈 것인가. 그건 아니겠지. 뭘 모르고 하는 소리렸다. 어디 한번 무게나 달아보자.

"부처와 조사 모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도 가당찮은 질문을 하니까 대답도 거기에 걸맞게 해버린 것이다.

"화상께서는 부처님과 조사와 무슨 원수라도 졌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완전 맹탕이군. 그저 탑만 지키고 있을 뿐 안목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야말로 '밥중'이었다. 전혀 말귀를 못 알아 들었고 묻는 말마저 동문서답이다. 임제 스님은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묻지도 대꾸도 않고 열(?) 받아 참배까지 생략한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렇더라도 그냥 '쌩' 하고 튀어나올 것은 뭐람.

시탑자(侍塔者)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삼배나 마치고서 떠나실 일이지. 성깔하고는…. 하긴 임제선사가 풀 먹인 옷 칼칼하게 세우고 찬바람 내며 다녔던 젊은 시절 이야기겠지. 결론은 부도탑도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조사 사리탑은 추모대상이자 깨달음의 공간

향엄선사, 사리탑 청소하다가 홀연히 깨쳐

조사 사리탑은 참배만을 위한 단순한 추모공간이 아니다. 깨달음의 공간이다. 부도탑 참배공덕으로 깨친 이의 대표적인 인물은 향엄지한(?~898)이다. 그는 키가 칠척이나 되고 아는 것도 많아 제 잘난 맛에 살았다. 그런 그에게 하루는 스승인 위산영우(771~853)선사가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대는 처음 부모의 태에서 갓 나와 동서를 아직 알지 못했을 때 본분의 일을 한마디 일러 보시오." 이건 말재주나 잔머리를 굴려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선지(禪旨)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기고만장하다가 그만 대답이 콱 막혀 고개를 푹 숙여야만 했다. 한참 후 정신을 추스려 스승에게 답을 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진전이 없었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 결국 걸망을 싸야만 했다. 그리고 정처없이 길을 떠났다. 우연히 남양혜충(?~775) 국사의 사리탑을 지나게 되었고 자연스럽

어리석은 사람 멀리하라

미얀마 삼장법사에게 듣는 '…행복하게 살기위한 법'

미얀마의 삼장법사(三藏法師)인 우 간하말라 라카라 스님이 보리수선원(02-517-2841) 초청으로 5월 29일 '현생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위한 법'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는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있는 빨리어로 된 경전 강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강의는 빨리어 경전 <망갈라숫타(Mangala Sutta)>, 우리말로 <행복경>을 중심으로 다른 경전도 함께 인용되면서 진행됐다.

통역은 서울대학교 인문대 재학 중 미얀마 빤디따라마 선원으로 출가한 마 마나삐까 스님이 담당했다. 강의는 이날 시작돼 6월 2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강의내용을 요약했다.

<행복경> 첫 부분에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신 이유가 나타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 좋은 광경'을 보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냄새나 맛이나 감촉'을 축복으로 여겼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대상, 듣는 대상,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을 놓고 어떤 것이 축복인가에 대해 오랜 세월동안 분쟁을 했다. 그리고 이 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신과 범천(梵天)에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천신의 왕인 천왕이 부처님께 그 답을 구했는데, 바로 이것이 <행복경>이다.

<행복경>은 좋지 않은 결과와 법을 제거하고 좋은 법과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 이대로 수행하고 따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구족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따르면 발전과 번영은 물론 열반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경 안에는 38가지 축복의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범부)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구분하는 사람이다. <행복경>에서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른 경전에서는 '자기수행과 도덕성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자기수행'에는 종교적 의미와 세간적 의미의 자기수행이 있다.

종교적 의미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세간적 의미로는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한다.

또 어떤 경전에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부른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깊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이익과 번영을 망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을 망치는 사람, 기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정신 현상 구분 못하는 사람
자기수행·도덕성·지혜가 없는 사람
부적절한 생각과 언행을 하는 사람

또 다른 경전에서는 생각하고 떠올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 네 가지 경전을 요약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과 정신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수행과 도덕성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지하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고, 자기에게 존재하는 행복과 번영조차 잃을 수 있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물건에 다른 물건을 놓으면 냄새가 배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냄새가 배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강한 독을 가진 뱀을 피하듯이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을 봤을 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최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자애의 마음은 끊임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자애의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것과 가까이 하고 교류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다.

글·사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우 간하말라 라카라 스님의 <행복경> 강의를 들은 불자들은 빨리어 경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이었다.

■ 우 간하말라 라카라 스님은?



미얀마에는 11명의 삼장법사가 있다. 삼장법사란 경장 율장 논장의 삼장을 단어 하나하나 기억하고 모두 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님이다. 다시 말해 빨리어 경전 20권(8026쪽 분량)을 모두 정확히 외고, 그에 따른 주석서 등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삼장법사는 시험을 통과하는 스님이 7~8년에 한 명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우 간하말라 라카라 스님은 미얀마의 아홉 번째 삼장법사다.

빨리어경전 20권 모두 암기

미얀마 11명 삼장법사 중 한명

우 간하말라 라카라 스님은 비구계를 받고 나서 삼장법사가 되기 위해 13년간 꼬박 공부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삼장법사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10년 간의 사미생활 역시 공부에 매진했다. 결국 23년간 공부에 매달린 끝에 삼장법사가 된 셈이다.

현재는 밍곤에 있는 담마나라 절에서 삼장을 공부하는 150여 명의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 밍곤은 물이 귀하고 의료 환경이 취약해 물을 공급하고 의료시설을 짓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있다.

스님은 "한달간의 강의에서는 일반적이고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처님 지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삼매)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전, 정신세계원 '삼매교실' 강의
전, 미내사 금강경 강의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저서 : 1.삼매 2. 방어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 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일명상

나의 病은 내가 고친다
언제까지나 약을 의지하고 병원만 다니시렵니까?
만가지 질병이라도,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병이라도 원인과 치료방법만 알면 돈 없이도 내 힘으로 완치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이용법, 자연 치료법, 요가운동 치료법, 프라나 치료법 등 여러가지 치료법을 무료로, 자세히, 정성껏 알려 드립니다.
위장병같이 오장육부에서 생긴병, 고혈압, 당뇨, 아토성, 각종 암병도 치료 가능합니다.
병이란 나의 무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무료 상담 031)769-7842 010-3336-3745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침 맞고 약도 받고 "고맙지유"

불자약사보리회 정기 봉사활동 하던 날


수지침 봉사팀이 진천 주민들에게 침을 놓아주고 있다.

충북 진천 용화사엔 아침부터 웃음꽃
"이런 날 아니면 약 먹기도 쉽지 않아"
2000여명 분 준비… "한번 더 왔으면"

5월 28일 충북 진천의 작은 절 용화사(주지 무위)에서는 아침부터 웃음꽃이 피어났다. 불자약사보리회(회장 백경숙) 회원 30여명이 잔병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와 투약을 하기 위해 용화사를 찾았기 때문이다.

"다 똑같지 뭐~. 촌 노인들 중에 무릎하고 허리 성한 사람이 있나?"

"그렇지유."

아침 일찍 집을 나서 1시간이나 버스를 타고 용화사까지 찾아온 정윤분(65) · 이연순(78) · 배정남(70) 할머니. 며칠 전 동네 이장이 무료진료에 약까지 준다는 말을 해줘 서둘러 나왔다고 한다. 정윤분 할머니는 "이런 날이 아니면 약 먹는 것도 쉽지 않아 나왔어"라며 일주일치 약을 받고 수지침까지 맞았다.

진천에서 군의원 선거에 나선 친구를 돕다 용화사에 온 양명천(62 ·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씨는 "다리가 아파서 침을 맞았다"며 "평소에 교회에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작은 사찰까지 찾아와 어르신들을 돌봐주는 선생님들께 절이라도 하고 싶다"고 고마움을 표시한다.

부인과 함께 온 박승혁(35)씨. 평소 혈압이 높아 약을 먹고 있지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 용화사에 왔다. 병세를 들은 문동길 박사(강북동산의원 내과 전문의)는 "술과 담배부터 끊어야 완치될 수 있다"며 박씨를 호되게 다그쳤다. 문 박사는 그러면서도 "가장이 건강해야 가정이 평안하다"며 따뜻한 격려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가톨릭 신자이지만 부인인 김영옥 약사를 따라 진료에 동참한 이만선 박사는 산부인과 진료에 여념이 없다.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과 부처님 모두의 공통적인 가르침 아니겠냐?"며 "'사랑'과 '자비'는 결국은 같은 말"이라며 차례차례 상담을 이어갔다. 이만선 · 김영옥 부부는 현직에서 은퇴하고 불교와 가톨릭을 가리지 않고 봉사현장에는 어디든 달려가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 수지침을 놓던 김우영씨도 "미력이나마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왔다"며 "간단한 수지침에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있기에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한다.

불자약사보리회의 봉사활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까지 계속됐다. 이날 약을 받고 수지침을 맞은 사람은 모두 400여명. 작은 병이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활력소가 듬뿍 주어진 날이었다.

불자약사보리회 류남영 총무는 "2000명분의 약품을 준비했는데 농번기여서인지 많이 안 오신 것 같아 아쉽다"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용화사에서 지역 어른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용화사 주지 무위 스님도 "선거가 겹치는 바람에 홍보를 많이 못했다"면서도 "주말에 쉬지도 못하고 진천까지 온 불자약사보리회가 고맙기만 하다"며 마음을 전했다.

지난 98년 창립된 이후 9년째 전국을 돌며 활동을 펼치고 있는 불자약사보리회는 지금까지 90여만명에게 무료투약을 진행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소외지역은 물론 노숙자와 장애인들에 대한 투약을 계속하고 있으며 티베트 망명정부에도 매년 3000명분의 의약품을 전달하고 있다.

활동 10년을 맞는 내년에는 100만명 무료투약 목표를 달성하고 내년 8월에는 그동안 불자약사보리회를 도와준 후원자들과 소외계층을 초청해 조촐한 회향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자약사보리회 창립 당시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 나청자 명예회장은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가르침을 차근 차근 실천하는 것이 회원들의 목표"라며 "일과 신행이 둘이 아님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진천군 내에 있는 칠장사를 참배하며 신심을 다진 불자약사보리회원들은 용화사 석불입상 부처님의 잔잔한 미소와 같은 법향(法香)이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며 다음 봉사활동을 기약했다.

글 · 사진/진천 용화사=유철주 기자

교정인불자련, 동화사서 하계수련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변동윤, 이하 교정인불자련)는 6월 10~11일 대구 동화사에서 제10회 하계수련회를 실시한다.

교정인 불자와 가족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수련회에서는 특히 △미창립지회 조직화 방안 △수용자 포교 및 교화 기법 △이웃종교 교화위원회와 유기적 연대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한 대화마당도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정인불자련 류성현 사무국장은 "회원들의 신심 고취는 물론 교정인불자연합회 조직의 강화방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2)2611-8100

공불련, 10 · 11일 해인사 합동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윤갑 · 관세청장)는 6월 10~11일 합천 해인사에서 '제6차 합동수계법회 및 제13차 성지순례'를 봉행한다.

공무원불자와 가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수계법회는 해인총림 율원 율주 종진 스님을 계사로 진행되며, 합동수계법회 외에도 보경당 비로자나부처님 친견과 철야정진 등의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02)739-1080

불이회 '위빠사나 수행의…' 법담회

서울대 교수불자들의 모임인 불이회(회장 임승빈)는 6월 8일 오후 6시 30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에뜨와르 룸에서 제16차 법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담회에서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전현수 박사가 '정신과 의사가 경험한 위빠사나 수행: 위빠사나 수행의 정신치료적 유용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02)880-1262

일터가 도량입니다

"환자들에게 불법 전할때 가장 행복"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구병수 교수

"꼭 만나야 하나요?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데…."

일터를 도량삼아 수행하고 정진하는 불자를 찾기 위해 전화를 했을 때 동국대 일산불교한방병원 구병수(44 · 효암) 교수는 다소 거친 경상도 말투로 "열심히 신행하고 있는 선배들이 많은데 저를 만나신다고 하니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겸연쩍어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찾은 구 교수의 진료실은 "도량이 따로 없으며 바로 이곳이 수행처"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다. 가지런히 정돈된 책상에 올려진 <금강경>만으로도 구 교수의 평소 신행생활이 어떠할지 능히 짐작이 될 정도.


구병수 교수가 진료에 앞서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다.

부산 범어사 사하촌에서 나고 자라면서 절의 스님들이 바로 이웃사촌이자 친구였던 구 교수는 "같이 자란 동자스님들이 이제는 범어사 말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며 불교와의 인연을 소개한다.

이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단양 구인사에서 몇 개월을 보내고 또 동국대 한의대에 입학하면서 불교는 바로 생활의 일부가 됐다. 대학 졸업 후 동국한방병원과 강남한방병원 근무에 이어 일산불교한방병원이 문을 열면서 불자 한의사로서의 생활은 계속되고 있다.

평촌에 살고 있는 부인 ·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는 구 교수는 "그나마 혼자서의 생활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불교에 있다"고 한다. 진료 시작 전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또 심신이 지칠 때면 인근에 있는 여래사를 찾아 새벽예불을 올린다. 구 교수는 "하루라도 <금강경>을 읽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 환자들을 대하기가 힘들다"며 "매일 식사를 해야 사람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한다.

"내가 행복해야 환자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나 두통, 화병, 우울증 등을 겪는 환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평소에 이렇게 신행활동을 한다는 '소문'이 병원 내에 퍼지면서 구 교수는 자연스럽게 '연우회' 부회장을 맡게 됐다. 연우회는 올해 1월 단일병원으로는 최대 규모인 4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된 불자회다. 구 교수는 이와 함께 전국병원불자연합회 사무국장일도 함께 보고 있다. 병원 내에서는 교육부장으로 후배 한의사들을 지도하고 또 3주에 한 번씩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시간은 금방 흘러간다.

"연우회가 창립된 지 얼마 안 돼 매월 첫째 월요일 새벽법회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정기법회 외에 아직 눈에 띄는 활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6월 4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진행하는 첫 사찰순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매일 10건 이상의 일정이 적혀있는 다이어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구 교수는 오늘도 진료가 없는 시간을 이용해 연우회원들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을 옮긴다. 글 · 사진/일산=유철주 기자

고단한 인생의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 내 삶의 진정한 응원꾼 '작대기'●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 '작대기'

여시아문

푸른 감동을 선사하는 이야기 잔치

신간



인생의 다리를 가장 수월하게 건너는 법 =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영국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서 수도인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많은 답이 제시되었지만 당선된 작품은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루한 여행일지라도 좋은 동반자와 함께 하는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인생의 여행에서 좋은 동반자를 만나는 것,
진정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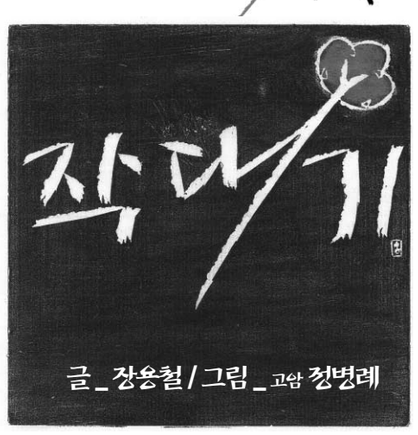
<풍경소리>의 작가 장용철이 드리는 지혜의 선물

동서고금의 성현들이나, 이름 없이 살다 간
많은 분들이 작대기처럼 짚다가 남겨놓고 간 이야기들.
헛간 한 구석에 지게와 함께 나란히 받쳐 놓은 작대기처럼
인생의 힘이 되는 '작대기' 같은 이야기들을 한데 모았다.

양장본 / 164쪽 / 값 9,000원 / 도서출판 여시아문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연수원) 연수동 309호 도서출판『여시아문』
Tel: 02)2004-8225(출판부), 02)2004-8292(영업부), Fax: 02)2004-8297



고단한 인생의 등짐을 받쳐주는 '작대기'● 내 삶의 진정한 응원꾼 '작대기'● 지친 삶에 활력을 주는 감동의 이야기들 '작대기'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24> 참선하는 사람들이 점검해야 할 일

<선가귀감> 22장에서는 참선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점검할 일들을 살펴본다.

大抵參禪者 還知四恩 深厚麼. 還知四大醜身 念念衰朽麼 還知人命 在呼吸麼 生來值遇佛祖麼. 及聞無上法 生希有心麼. 不離僧堂 守節麼. 不與隣單 雜話麼. 切忌鼓肩是非麼. 話頭 十二時中 明明不昧麼. 對人接話時 無間斷麼 見聞覺知時 打成一片麼. 返觀自己 捉敗佛祖麼. 今生 決定續佛慧命麼. 起坐便宜時 還思地獄苦麼. 此一報身 定脫輪廻麼. 當八風境 心不動麼. 此是參禪人 日用中 點檢底道理 古人云 此身不向今生度 更待何生度此身.

참선하는 사람으로서 부모, 임금, 스승, 시주의 은혜가 깊고도 두텁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땅, 물, 불, 바람의 기운으로 이루어진 추한 이 몸은 순간순간 썩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은가? 사람의 목숨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으니, 들이쉰 숨을 내쉬지 못하거나 내쉰 숨을 들이쉬지 못하면 그 때가 바로 죽는 때임을 알고 있는가? 이 세상에 와서 부처님과 조사 스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스쳐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가? 뜻이 깊고 거룩한 법문을 듣고서 이 법이 참으로 귀한 법이라는 마음을 낸 적이 있는가? 수행터를 떠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의 절개를 지키고 있는가?

또한 곁에 있는 사람들과 쓸데없이 잡담을 하며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깨를 툭 치며 시비하는 일들을 간절히 꺼리고 있는가? 오가는 삶 속에서 화두가 끊이지 않고 똑똑히 들리고 있는가? 곁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화두가 끊기는 일은 없는가? 보고 듣고 느낄 때도 화두가 하나로 영글어져 있는가? 자신의 근본을 돌아보고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금생에 반드시 부처님의 지혜를 잇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가? 앉고 눕고 편할 때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는가? 이 육신으로 윤회의 고통을 반드시 벗어날 수 있겠는가? 팔풍(八風)의 경계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내용들은 참선하는 사람들이 일상사 생활 속에서 늘 점검해야 하는 도리이다. 옛 어른께서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는다면, 어느 생에 이 몸을 제도하기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말씀하셨다.

일상생활에서 늘 점검하여 화두공부에 매진할 것 강조

첫째, 추한 몸을 만들어 내는 네 가지 요소인 땅, 물, 불, 바람의 기운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이른바 우리 몸에 있는 머리털과 손톱, 치아와 살갗, 근육과 뼈로써 만져지는 것은 모두 썩어서 땅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콧물과 피고름 눈물로써 손에 적셔지는 축축한 것은 모두 물의 기운으로 돌아가며, 몸에 있는 따뜻한 체온은 불의 기운으로 돌아가고, 들숨과 날숨처럼 몸 안에서 움직이는 기운은 모두 바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모여 사람의 몸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아난 존자가 "욕망의 기운이 거칠고 탁하여 더럽고 비린 것이 서로 어울려서 이 몸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했듯이 이 몸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

둘째, 이 몸이 순간순간 썩어간다는 것은, 세월이 한 순간도 멈추지를 않으니 얼굴에 주름살이 잡히고 머리털이 나날이 희게 세어 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옛 어른께서 "지금 늙어서 이미 옛 모습도 아니고, 뒷날 죽고 나면 지금의 모습일 수도 없다"라고 한 말과 같으니, 이것이 덧없이 변하는 세상살이의 실체이다. 그러나 덧없이 변화를 부르는 무상(無常)이란 귀신은 죽이는 것을 오락으로 삼고 있으니 실로 순간순간이 두려울 따름이다.

셋째, 세간에서 좋아하는 마음과 싫어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므로, 그 마음을 움직이는 바람에 비유하여 말한 것이 팔풍(八風)이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과 손해, 내 뒤에서 험담하거나 칭찬하는 것, 내 앞에서 비방하거나 칭찬하는 것, 괴로운 일과 즐거운 일 이 여덟 가지 경계에 집착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팔풍'이라고 한다.

넷째, 지옥의 고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세계 육십 겁(劫)이 지옥의 하루인데, 지옥에서는 뜨거운 쇳물이 끓고 시뻘건 숯불이 튀고 날카로운 칼들이 숲과 산을 이루어서 지옥 중생들이 받는 고통은 말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사람의 몸을 받는 것이 바다에 떨어진 바늘을 찾는 것보다도 더 어려우므로, 안타깝게 생각하여 발등의 불을 끄듯 화두 공부에 매진할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上來法語 如人飮水 冷暖自知
聰明不能敵業 乾慧未免苦輪
各須察念 勿以自謾.

위에서 말한 법어는 물을 마신 사람만이 그 물이 차가운지 뜨거운지를 아는 것과 같다.

총명한 사람이라도 지어놓은 업을 뿌리칠 수는 없고

알음알이 쓸모없는 지혜로는 쳇바퀴처럼 이어지는 고통을 면치 못하니

저마다 모름지기 한 생각을 살피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지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도량석(道場釋)

수행자를 깨우고 경책하기 위해 새벽녘 사찰을 돌며 목탁을 치는 도량석. 옛부터 '하늘은 자시(밤11시~1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1시~3시)에 어둠에서 풀리며, 사람은 인시(3시~5시)에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이 전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 3시가 되면 산사에서는 부전스님이 모든 생명을 어둠과 잠에서 깨우기 위해 목탁을 치면서 도량을 돕니다. 도량을 정화하는 의식인 것이지요.

도량석에는 요령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탁이 사용된 까닭은 선종의 영향 때문이지요. 선종사찰에서 수행의 지침으로 삼았던 <백장청규>에 보면, '물고기는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는다'면서 '수행자로 하여금 잠을 자지 않고 도를 닦게 하기 위해 목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목어를 두드려 수행자의 잠을 쫓고 혼미한 정신상태를 경책한다는 의미지요.

도량석 목탁소리는 고요한 상태에서 작은 소리로 시작해 점점 커졌다가 마칠 때에는 큰 소리에서 점점 작아져 마침내 본래의 고요 속에 묻히고 맙니다. 여기에서 작은 소리는 어둠과 고요한 본체를 상징하고, 큰 소리는 밝음과 힘찬 움직임을 상징하지요.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행복동 사람들

노력과 만족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9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45강 혜능의 권유(1), "선근(善根)을 심어라!"

6장 각 절마다 붙인 혜능의 설명을 끊어 듣는다.

1절

須菩提, 白佛言, 世尊, 頗有衆生, 得聞如是言說章句, 生實信不.

수부티가 부처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대체 어떤 중생이, (여래는 오지 않는다는) 이런 말을 믿겠습니까."

(혜능의 해설) 須菩提問此法甚深難信難解, 末世凡夫智慧微劣, 云何信入. 佛答在下.

수보리는 "이 법이 깊고 깊어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말세의 범부들이 미약한 지혜로 어떻게 이 속으로 믿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하고 물었다. 부처의 대답은 아래와 같다.

2절

佛告須菩提, 莫作是說. 如來滅後, 後五百歲, 有持戒修福者, 於此章句, 能生信心, 以此爲實.

수부티가 부처에게 말했다. "세존이시여, 대체 어떤 중생이, (여래는 오지 않는다는) 이 말을 믿겠으며, 진실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 혜능의 설명은 없다. 다만 '후오백세(後五百歲)'에 대한 함허의 부연설명은 다음과 같다.

"제행무상(諸行無常), 모든 것은 변한다고 믿는 불교가 자신의 가르침만은 여기서 예외였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뜨거운 종교적 열망과 창시자의 인도도 시간과 함께, 차츰 식고 희미해지기 마련이다. 승가 또한 점차 쇠퇴와 하강의 단계를 밟는다. 처음 5백년은 해탈뇌고(解脫牢固)라, 수행을 통해 깨달음과 평화를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다음 5백년은 선정뇌고(禪定牢固), 명상을 통해 안심입명에 이른 사람들이 나타난다. 다음 5백년이 되면 다문뇌고(多聞牢固), 즉 경전의 지식으로 깨달음을 대신하는 것이 유행하며, 다음 5백년은 탑사뇌고(塔寺牢固), 경전도 죽고, 외형적 절간과 탑만 덩그라니 남은 쓸쓸한 풍경이 남는다. 마지막 5백년은 투쟁뇌고(鬪諍牢固), 알음알이의 권위와 절간의 소유를 놓고 서로 다투고 헐뜯는 막가는 드잡이가 벌어진다."

<금강경>은 이 말세 중 말세에도 최종적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분명 있다고 말한다. 이 귓 뉴스는 소승이 생각한 불법의 쓸쓸한 하강을 비웃으며, 희망의 복음이 언제나 빛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가위 돈교적 전회라 할 수 있다.

3절

當知, 是人, 不於一佛二佛三四五佛, 而種善根, 已於無量千萬佛所, 種諸善根, 聞是章句, 乃至一念, 生淨信者.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수많은 삶을 거치며, 수많은 부처에게 나아가 선근을 심은 사람들이라, 이 말을 듣고서는 바로, 깨끗한 믿음에 이를지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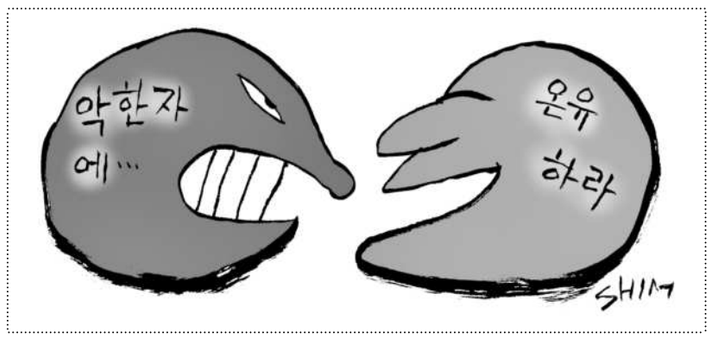
– 혜능의 설명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첫 부분은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을 때, 즉 토대(住)를 잃을 때, 그때 위에서 믿음으로 들어설 수 있다. 이들이 지니고 있는 언설(言說)은 진실하여 믿을 만하다. 왜냐. 이미 무량천만억겁에 걸쳐 선근을 심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여래는 말한다. "내가 멸한 후, 후5백세에, 이미지를 여읠 수 있었던 수행자(離相修行者)가 있으니, 마땅히 알라. 이사람은 하나, 둘, 셋, 넷 , 다섯 부처만에 선근을 심은 것이 아니다.

2. 何名種諸善根. 略說次下. (1) 所謂於諸佛所, 一心供養, 隨順敎法, 於諸菩薩善知識師僧父母耆年宿德尊長之處, 常行恭敬供養, 承順敎命, 不違其意, 是名種諸善根. (2) 於六道衆生, 不加殺 害, 不欺不賤, 不毁不辱, 不騎不?, 不食其肉, 常行饒益, 是名種諸善根. (3) 於一切貧苦衆生, 起慈愍心, 不生輕厭, 有所須求隨力惠施, 是名種諸善根. (4) 於一切惡類, 自行和柔忍辱, 歡喜 逢迎, 不逆其意, 令彼發歡喜心, 息剛戾心, 是名種諸善根.

무엇을 일러 "선근을 심었다"하는가. 개략 다음과 같다. (1) 여러 부처 계신 곳에 일심으로 공양하고, 가르침을 따르고, 여러 보살, 선지식, 스승, 부모, 나이든 자, 덕 있는 자, 존귀한 자가 있는 곳에 늘 공경하고 공양하며 가르침을 따르고, 그 뜻을 어기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선근을 심는다'고 한다. (2) 육도의 중생들에게 살해를 가하지 않으며, 그들을 속이지 않고, 업수이 여기지 않으며, 비방치 않고 욕보이지 않으며, 올라타거나 굴레 씌우거나 않으며, 그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늘 그들을 요익(饒益)케 하는 것, 이것을 일러 '선근을 심는다'고 한다. (3) 일체의 가난과 고통 중생들에게 연민과 동정을 일으키며, 무시하거나 염증내지 않고, 그들이 바라는 바 있을 때, 있는 힘껏 베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을 일러 '선근을 심는다'고 한다. (4) 일체의 못된 악한 무리들에게, 스스로 화유(和柔) 온유하게 대하며, 참고, 그들을 기쁘게 맞고 보내며, 그 뜻을 거스르지 않아, 그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일으키고, 강포한 마음을 식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일러 '선근을 심는다'고 한다.

–요약하자면, 부처님을 믿고, 스승을 따르며, 짐승과 사람을 존중하고, 약자와 빈고한 자들을 돌보며, 악당들에게도 온유하고 그들을 따뜻하게 감화시키는 것, 이 어려운 일이 '선근을 심는 일'이다.

악한 자들에게 온유하라



3. 信心者, (1) 信般若波羅蜜, 能除一切煩惱. (2) 信般若波羅蜜能成就一切出世功德. (3) 信般若波羅蜜, 能出生一切諸佛. (4) 信自身中佛性本來淸淨, 無有染?, 與諸佛性, 平等無二. (5) 信六道衆生本來無相. (6) 信一切衆生盡能成佛, 是名淨信心也.

다음 신심(信心)이란 무엇인가. (1) 반야바라밀이 일체의 번뇌를 제거해 준다는 것을 믿고, (2) 반야바라밀이 일체의 출세간의 공덕을 성취시켜준다는 것을 믿고, (3) 반야바라밀이 일체의 제불(諸佛)을 낸다는 것을 믿고, (4) 내 몸 가운데 불성이 본래 청정하여 오염이 없으며, 여러 부처의 불성과 더불어 평등 무이(無二)하다는 것을 믿고, (5) 육도중생이 본래 무상(無相)이라는 것을 믿고, (6) 일체 중생이 모두 능히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를 일러, '깨끗한 믿음(淨信心)'이라고 한다.

–"<금강경>의 언설 한 마디에 깨끗한 믿음에 이른다!" 대체 무엇을 '믿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혜능은 말한다. (1) 반야바라밀은 우리 안의 오랜 번뇌를 제거하고 삶을 고양시켜 줄 것이다! (2) 그 힘과 가능성은 내가 이미 갖고 있던 것이었다. 나는 그것을 다만 발견했을 뿐이다. (3) 그러므로 중생이란 없다. 명심하라, 사물의 차이와 구분은 다만 자아의 불완전한 눈에 비친 이미지 혹은 그림자일 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플라톤의 <국가>, 마르크스의 <자본론>,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등 서양의 대표적 고전에서부터 피어시그의 <선(禪)과 모터사이클 관리술>,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푸코의 <감시와 처벌>등 현대의 고전까지.

서양의 고전을 읽자.

세월과 비판을 견디며 살아남아 우리에게 정의와 자유, 평등과 행복 등 삶과 문명의 화두를 던지는 많은 서양의 고전들 중에서 다시 읽어야 할 책이 수두룩 하다. 오늘의 '문화상황'이 고전을 갈망하는 것이다.

도서출판 휴머니스트가 발간한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1·2·3·4>는 68종의 고전을 각계의 전문가 58인의 저자들이 공동 참여하여 1권-인문·자연, 2권-정치·사회, 3권-문학上, 4권-문학下 등 4권에 나누어 담았다.

특히 이 책은 서양의 고전읽기가 21세기 한국이라는 시공간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재발견하고 있다. 서양 고전은 우리와는 다른 배경과 문제의식 속에서 싹트고 결실 맺은 것들이라 시대적 문화적 맥락을 짚지 못하면 이해가 겉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우리의 시각에서 서양 고전을 새롭게 해석한 듯 하다.

<1권 인문·자연>에서는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회상>을 소개한다. 그리스의 젊은이들을 미혹했다는 이유로 처형당할 운명에 처한 소크라테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씌어진 책인 만큼 대화술과 사상을 설명한다.

또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은 범신론적 철학인 스토아 사상을 토대로 일기속에 담아내고 있으며,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보편적 방법을 통해 확실한 지식, 즉 진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철학을 말하고 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그것의 핵심주제인 삶과 자유, 행복의 문제를 설명하며, 칸트는 <형이상학적 서론>에서 새롭고도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이밖에도 헤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인간 의식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 과정을 서술하며, 미셸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광인의 문제를 다룬 의학 영역의 인도주의적 개혁이 과거의 육체적 감금보다 훨씬 철저하고 영구적인 형태로 정신에 대한 감금을 재생산하는 것에 대한 노련한 정당화라고 주장한다.

<2권-정치·사회>편에서는 철인통치론을 설명하는 플라톤의 <국가>와 국가의 구성요소와 구성원의 역할을 다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설명한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권모술수의 달인이자 냉혹한 정략가인 근대정치의 개념을 소개하며,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이란 물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치를 증식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임을 설명한다.

뒤르케임은 <자살론>에서 자살행위들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을 전형을 제시하며,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는 서양문화의 자기 중심주의와 인간중심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틀고 있다.

이어 <3권 문학 上>은 문학작품을 소개한다.

서양 문학작품의 원조로 손꼽히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트로이 전쟁과 오디세우스의 모험이야기를 통해 호메로스가 펼치는 장엄한 대서사시를 보여준다.

또 한계상황에 처한 인간의 실존문제를 분석한 헤밍웨이,



미켈란젤로가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그린 세계 최대의 벽화 '천지창조'의 한부분.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그렸다.

우리 눈으로 서양고전 읽기

플라톤의 '국가'에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까지

인문·자연·정치·사회·문학 고전 68편 선정

국내 각 분야 전문가 58인이 제기한 '어떻게 살 것인가'



서양의 고전을 읽는다 1·2·3·4
김정현 교수외 57명
출판사 휴머니스트
5만1000원

60년동안 희곡인 <파우스트>를 집필한 독일의 대문호 괴테, 끝없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데미안을 통해 통합과 단일의 공간으로서 세계를 바라보는 헤세, 어린이의 눈으로 인간과 세계, 우주를 성찰한 <어린왕자>를 쓴 생텍쥐페리 등 총 14명의 작가가 쓴 17종의 고전이 소개된다.

<4권 문학 下>에서는 작품이 네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현실과 욕망'편에는 셰익스피어의 <맥베스>, 스탕달의 <적과 흑>, 발자크의 <잃어버린 환상>,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가 있다.

'낮은 땅 높은이야기'에는 만초니의 <약혼자>, 에밀졸라의 <목로주점>,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가면>, 네루다의 <모두의 노래>가, '여성성으로 여성성을 넘어'편에는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울프의 <등대로>,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능세계 혹은 허구적 실험'에는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스위프트의 <걸리버여행기>, 브로헤스의 <픽션들>, 마르케스의 <백년동안의 고독>, 피어시그의 <선과 모터사이클 관리술>이 추천됐다.

이 작품들에 대한 리뷰들은 저자에 따라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글쓰기로 되는데, 저마다의 다양한 코드로 안내하는 방법을 따라가 보면 고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현재적인 문제 상황과 결부하여 어떻게 문제의식을 던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만약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진 독자라면 자기만의 독창적인 문제의식을 키워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강추

잡초들의 생존전략, 허리굽혀 들어 보실래요?



풀들의 전략 출판사 도솔, 이나가키 히데히로 지음

<풀들의 전략>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잡초, 가장 잡초다운 잡초 50가지를 면밀하게 연구 관찰, 알기 쉽도록 흥미롭게 풀어 쓴 글이다.

잡초의 대명사 질경이가 세운 전략을 볼까?

밟히고 밟혀도 꿋꿋이 살아가는 잡초의 대명사 질경이는, 어찌나 밟혔는지 자세히 보면 잎사귀는 구멍이 송송 뚫려있기 일쑤다. 굳이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만 골라 자라는 질경이는 오히려 사람의 발길에 당당히 맞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런데 질경이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을 택하면 금방 다른 식물들에게 쫓겨난다고 한다. 질경이는 다른 잡초들과의 경쟁 대신 사람의 발길을 당당히 받아들여 진화했기 때문이다.

잡초들의 생존전략은 우리 인간에게도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동물에게 먹히거나 밟히는 경우를 맞아들여 유리하게 바꾸는 위기관리, 필요 없을 때 쓸데없는 꽃을 피우지 않는 폐쇄화들과 근검, 질경이처럼 밟히는 경우 치명타가 될 줄기를 최대한 줄이는 절약, 개미와 식물들의 아름다운 공생과 은혜 갚기, 도주, 대규모의 비용 삭감 등 어려움에 처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잡초의 생존전략이었다. 저자의 면밀한 관찰이 또한 놀랍다.

(dooen, book.naver.com/bookdb)

시적 영감으로 가득한 타고르 우화집



황금보트 작은이야기,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지음

<황금 보트>는 '우화'가 아닌 '시'로 내게 왔다. '우화'에서 '시'를 읽다니, 참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우화의 형식에서 시적 영감을 얻을 것이다.

이 책에는 타고르의 종교적, 정신적 성찰이 담긴 삶의 우화 33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한두 페이지 분량의 콩트로부터 십여 페이지 정도의 짧은 단편까지 다양하다.

나는 긴 이야기보다는 짧은 이야기들이 타고르의 세계를 더욱 잘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비로소 결혼식이 끝났다' '붓다에게 바친 연꽃' '실수로 노동자의 낙원에 간 남자' '오솔길' '어슴푸레한 빛 속에서 보았다', '라후의 사랑' '별의 자살' '구름의 전령'이 그러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나즈막히 속삭이기도 하며, 때로는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붙였다. 불현듯 서사가 시작되고, 영문도 모르게 단절되기도, 갑작스러운 인과관계가 성립되기도 하면서 <황금 보트>는 거대한 삶의 바다 위를 지나는 것이다.

언뜻 <황금 보트>는 타고르의 또 다른 시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다. <황금 보트>가 유랑하는 세계는 우리의 삶이며, 그러므로 이 책은 '우화'에서 '시'로 넘어간다.

(rainmars, blog.naver.com/rainmars)

책속의 밑줄긋기



○…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 이웃들은 이상한 옷을 입고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것이예요. 우리는 모두 다른데 그 다름의 방식도 다르답니다. 우리는 모두 닮았지만 그 닮음의 방식은 다르답니다. 그렇게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때로는 같은 것처럼 위장도 하고 말이예요.

요정들은 언제나 기대하지 않을때 나타나지요. 생명도 그래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던 그곳에 있지요. 모래만 보이고 심한 열기가 느껴지는 사막 한가운데서도 뱀이나 벌레같은 생명체가 별안간 나타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쩌면 생명은 요정 그 자체인지도 몰라요. 전혀 예기치 않는 장소와 시간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에는 슬픔이 있어요. 우리는 슬픔이 있기에 기쁨을 볼 수 있어요. 슬픔이 가능하지 않다면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없어요.

-<깊은 이야기> 21~23쪽에서, 닥터필로스, 페르 예스페르센 지음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겨울 선방에선 무슨 일이?

동안거
현성 스님 지음
민족사 | 9500원

새벽 3시, 고요한 산사의 아침을 깨우는 원주스님의 도량석이 시작되고 종이 울린다. 지전스님의 죽비소리를 따라 예불을 본다. 이어 열중스님의 입선 죽비가 울리고, 아침 5시까지 새벽수행이 이어진다. 중간에 50분 수행하고 10분 행선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아침 5시 방선죽비가 울리면 아침 5시 40분 발우공양 시간까지 108배를 하거나 요가, 산책을 한다. 공양후 오전 7시 50분까지 차담시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동안은 좌선시간이다. 11시부터 가사를 수하고 사시예불을 올린뒤 11시 20분 점심 발우공양이다. 공양후 차담과 자유시간, 2시부터 4시까지는 오후 좌선시간이다. 4시부터는 청소를 하고 5시에는 저녁공양을 한다.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밤 정진시간이다. 취침은 밤 10시에 목탁소리에 맞춰 이뤄진다.

'민족사' 출판원고 공모 당선작
용상방 짜기 등 41가지 주제로
백양사 운문암 동안거 샅샅히 '기록'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선방. 선승들은 여름 겨울 3개월 안거기간동안 어떻게 생활할까?

선방에서 수행중인 현성 스님이 2002년 음력 10월 보름부터 이듬해 1월 보름까지 장성 백양사 산내 선방인 운문암에서 체험한 동안거 생활을 기록한 책을 펴냈다.

책 <동안거>의 내용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스님들의 일상생활과 수행에 관한 주제가 대부분. 현성 스님은 2002년 늦가을 걸망하나 둘러메고 운문암에 들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느꼈던 이야기들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기록했다.

중앙승가대 재학시절 문단에 등단한 현성 스님은 선방스님들의 생활을 글로 담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안거동안 휴식시간 등에 짬을 내 메모를 했다. 그런다음 안거가 끝난후 기억을 더듬어 가며 글을 써 나갔다.

인연때문이었을까. 도서출판 민족사가 제1회 출판원고 공모를 했다. 곧바로 응모했고, 결과는 '당선'.

총 3장에 걸쳐 41개의 주제로 되어있는 <동안거>의 1장에서는 입산하여 용상방 짜기, 참선의 즐거움, 지대방 이야기, 운문암의 하루일과, 삭발하는날, 무명옷 풀하기, 산행, 울력까지 선방 소임 용어등이 소개된다.

또 2장에서는 발우공양, 선방의 구조, 도반, 스님들의 수행법, 반철산행, 가행정진, 외롭고 쓸쓸한 길, 숲속의 동물들, 등산객과 불화등 선방의 생활과 관련한 얘기들이 주를 이룬다.

3장에서는 대중생활, 이판과 사판, 선방의 베스트셀러 방함록, 방부들이기, 출세간 속의 세간, 공양주보살등 독자들이 낯설어 하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선방에 대한 친밀함을 갖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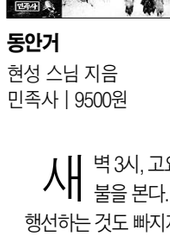
특히 이 책에서는 '운문암의 하루 일과'처럼 선방생활의 내밀한 부분까지 소개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곳이기에 더욱 호기심이 이는 곳이 선방이다. 그렇기에 선방 생활에 대해 알고자 하거나 혹은 언젠가 체험하고 싶다는 발원을 한 사람들에게는 지침서가 되고도 남는 책이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선방으로 유명한 수도암과 운문암은 특히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장성 백양사 운문암 선방스님들이 1m까지 쌓인 눈을 치우는 모습. 사진제공=민족사



비구니 산사 가는길
이기와 글
노마드북스
1만5000원

삶의 의미 찾아나선 길

1968년에 태어난 이기와 시인은 서울 서대문 굴레방다리 밑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았다. 6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하나밖에 없던 오빠는 그 무렵 집을 나갔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포장마차 일을 도우며 살아야 했고, 양부로부터 발가벗겨 내쫓기는 학대를 받으며 자라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으로 어머니를 잃은 후 결혼했지만 무직의 남편은 알코올과 노름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하나 있는 딸을 키우기 위해, 생활을 위해 미장원 원장, 가정부, 술집 마담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생활해야 했다.

이처럼 시인 이기와는 드라마 같은 삶을 살아왔다.

시인 이기와가 전국에 있는 비구니 산사를 여행하며 느낀 단상을 모은 책 <비구니 산사 가는 길>을 내놓아 화제다.

이 책은 여행 중에 만난 여러 비구니스님들을 통해 스스로 정화되는 과정을 담담하고 아름답게 그려놓았다.

자신의 근본을 찾아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진정한 자아'를 되찾기 위해 비구니 산사를 헤매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법당 뜰에 근엄하게 앉아 있는 누렁이 한 마리를 보고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저 개가 온 곳과 내가 온 곳이 둘이 아니라 하나일 텐데, 어찌해서 저 개는 태연하고 난 불안한가?"

그 이후로 그녀는 그 누렁이처럼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순간순간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세상 어느 것에 대해서도 분노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대하는 시인의 넉넉한 마음이 책 곳곳에서 훈훈하게 전해져온다. 그녀는 시종일관 '존재의 무상함'과 '삶의 의미'를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길을 스스로 찾아내고 있다.



벽암록
성본 역해
한국선문화연구원
2만5000원

한글로 푼 선문답 100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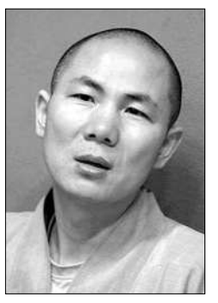
선문의 수행자들이 당대 선승들의 대표적인 선문답 100칙을 이해하고 선사상을 배우고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교재인 <벽암록>. 말하자면 선문답 100칙에 강의록이라 할 수 있다.

<벽암록>은 설두중현(980~1052) 선사가 당대 선승들의 어록에 선문답 100칙을 선택하여 해설한 독자적인 선사상을 원오극근(1063~1135) 선사가 수시(垂示, 간결하게 요약해 보여줌) 착어(着語, 화두나 송의 구절마다 논평) 평창(評唱, 화두나 송에 대한 설명)을 첨가한 책이다.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인 성본 스님이 최근 발간한 <벽암록>은 10여년 전부터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어려운 한자로 기록된 선문헌을 누구나 선문답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고 자세한 해설을 첨가했다.

성본 스님은 <벽암록> 번역서 발간과 관련 "학자나 스님들도 어려운 한자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한 문법체계없는 한자를 번역하다보니 오역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한글세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이 어려운 책을 읽고 선불교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한자로 기록된 불교경전과 어록을 한글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번역해야 한다"며 "번역문장을 통해 내용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작업했다"고 밝혔다.



8세에 입산 출가한 광주 유마선문화원 원장 정암 스님(사진)은 '유마경'을 읽고 안심(安心)을 얻었다. 어머니에 이끌려 입산한 스님은 염불을 한번만 들어도 줄줄 외우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큰절로 출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동해 백양사 서옹 스님께 동자승 수계를 받았다.

그런 스님이 20대 초, 서울로 올라와 그동안 알고 있던 불법과 세상의 부조화를 경험하며 정신적 방황을 거듭하다 몸의 건강까지 잃게 됐다. 폐결핵 3기. 겨우 치료를 마치고 기공치료를 위해 건너간 중국에서 '유마경'을 만났다.

북경대 지도교수에게서 선물 받았던 '유마경'을 밤을 새워 읽어 내렸던 스님은 '세상에 유마법문, 불이법문을 널리 알려야 겠다'는 원력을 세웠고 이후 유마경에 대한 연구로 북경대학교 철학과에서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것이 정암 스님이 재가수행자를 위한 선(禪) 수행지침서 <유마禪不二>를 세상에 내놓게 된 인연이다. 이번에 펴낸 <유마禪不二>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가려 뽑아 재가선수행자들을 위해 쉽게 풀어쓴 것이다.

유마처럼 살자꾸나

재가자 위한 선수행 지침서

<유마禪不二>는 유마경이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온 정황, 유마경이 중국에서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 유마경의 구성과 불이법문의 참선 정신, 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승속불이와 유심정토의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는 유마경을 통해 유마거사처럼 '세간에 노닐면서 출세간의 선법과 함께 하는' 선수행자로 살아가는 것이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수행자의 모습"이라고 강조한다.

스님은 유마경 공부를 3단계로 나누고 <유마禪不二>에 이어 유마경을 원문(구마라집본)으로 공부하면서 불이법문의 선 수행체계를 확립하게 하기 위한 <유마경 공부>와 대선지식이 남긴 유마주석의 연구를 통해 불이법문의 선경과 선지를 체득하게 하기 위한 <유마玄妙門>을 집필 중이다.

천미희 기자



유마禪不二
정암 스님 지음
하늘북 | 2만2000원

yosiamun.com 추천도서

· 그냥 살라	대산출판사, 장영섭, 1만5000원
·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민족사, 성법 스님, 9500원
·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불광출판부, 무비 스님, 9000원
·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고즈윈, 서화동, 1만2800원
· 큰 스님 큰 가르침	문예출판사, 윤청광,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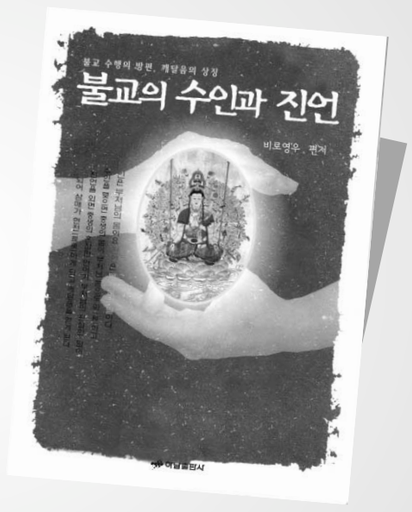
도서주문 (02)2004-8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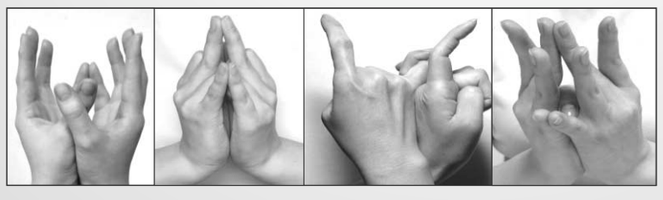
수인은 부처님의 몸이요
진언은 부처님의 말이다

밀교에 밀(密)은 비밀스러움을 뜻하는데
중생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법이라는 뜻에 기인한다.

이 밀(密)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신밀(身密), 구밀(口密), 의밀(意密)이다. 이를 함께 삼밀(三密)이라 하는데, 삼밀을 구유(具有)하고 수행하면 실지(悉地)를 성취할 수 있고 큰 깨달음에 들어 삼명육통(三明六通)에 자재한 불보살이 된다.

삼밀 가운데 첫 번째인 신밀을 다른 말로 수인(手印)이라 하고 범어로는 무드라(mudra)이다. 두 번째는 구밀이라 하고 다른 말로 진언(眞言) 또는 다라니(darani)라고 부르며, 범어로는 만트라(mhantra)라고 한다. 세 번째인 의밀(意密)은 참된 성품(性品)으로부터 나오는 삼매(三昧)의 형상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불보살님의 중생교화방편의 삼매를 상념으로 지어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책에서 다루고 소개하려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신밀과 구밀인 수인과 진언이다.





비로영우 스님 편저 / 사륙배판 / 382쪽 / 값20,000원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302호 TEL. (02)720-3211 FAX. (02)720-0312 http://www.hnp.co.kr 하남출판사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독일월드컵 원정응원에 나선다. 사진은 안성남사당전수관 상설공연장에서 벌어진 풍물놀이.

사당놀이 절에서 시작
판염불 합창하며 시주 받아
거리공연문화 '원조'

영화 '왕의 남자'로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이 독일로 월드컵 원정 응원에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연예집단인 남사당을 복원해 전승하고 있는 '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은 6월 10일 우리 축구 대표팀 공개 훈련장인 레버쿠젠을 시작으로 12~13일 프랑크푸르트, 17~18일에는 라이프치히, 20~21일은 베를린, 23일에는 하노버에서 우리 가락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토고와 예선 첫 경기를 비롯해 스위스, 프랑스와의 시합에는 우리 교민들과 함께 길거리 응원전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바우덕이' 캐릭터.

영화 '왕의 남자'로 세간의 주목…판염불 선소리산타령으로 명맥 이어

조선 후기 대표적인 민중놀이였던 남사당놀이(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는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남사당의 한자를 '寺黨'이라고 쓰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중들의 일상생활을 담았던 감로탱에 사당패의 줄타기가 나올 정도이다. 남사당은 여성들로 구성된 사당놀이에 대해 남성들로 구성돼 있다해 붙여진 명칭이다.

원래 사당놀이는 절에서 시작됐다. 사당패 가운데 걸립패는 시주를 받기 위해 기예를 선보였다. 스님이 직접 기예를 배워 선보이는 걸립승도 존재했다.

재가불자로 이뤄진 사당패들은 큰 저자로 다니며 판염불을 합창하며 시주를 걷어 절에 바쳤다. 조선 후기 불교가 쇠퇴하자 사당패는 타락해 술과 기예를 파는 집단으로 전락했고 남사당으로 대치됐다. 전문기예집단인 남사당도 여전히 사찰을 근거지로 활동했다. 소멸될 뻔했던 판염불은 선소리산타령(중요무형문화재 제19호)으로 명맥이 이어졌다.

법현 스님(동국대 국악과 교수)은 "걸립화청이라고 해서 회심곡이나 고사염불 등을 공연하고 시주를 걷어 사찰중흥에 사용하기도 하는 등 사당패는 절에서 키운 걸립승과 전문기예집단을 활용해 시주를 받았던 걸립패, 기예집단인 남사당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며 "사당놀이의 한 가지인 솟대놀이 즉 줄타기는 인도에서부터 불교와 함께 전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독일 공연을 떠나는 바우덕이 풍물단의 주인공 바우덕이는 안성 청룡사와 인연이 깊다. 동학혁명에 부모를 잃고 청룡사에서 자랐다는 말이 전해올 정도다.

한국 남사당패에서 유일한 여성 꼭두쇠(우두머리) 바우덕이는 1865년(고종 2년) 경복궁 중건 당시 안성 남사당패를 이끌고 기예를 뽐내 흥선대원군에게 정3품 당상관 벼슬에 해당하는 옥관자를 받아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때부터 안성 남사당패는 바우덕이 남사당패로 불렸다.

안성 청룡사는 바우덕이 남사당패의 근거지

안성 청룡사는 바우덕이 남사당패의 근거지였다. 당시 사찰재정이 열악했음에도 겨울에 오갈 데 없는 남사당패를 거두었다고 한다. 사찰 건너편에는 남사당마을이 아직도 남아있다. 청룡사와 남사당마을이 있는 이 곳은 불당골이라고 불린다.

바우덕이 남사당패는 청룡사에서 절의 허드렛일을 거드는 불목하니(절에서 밥짓고 물 긷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로 겨울을 났다. 봄~가을에는 청룡사에서 준 신표를 들고 안성장터를 비롯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연희를 팔아 서민의 애환을 달래주었다.

민요에 "안성 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는 구절이 심심찮게 나올 만큼 명성을 얻었던 대중스타 바우덕이는 스물셋 꽃다운 나이에 폐병으로 요절했다. 줄타기 하다가 떨어져서 병을 얻었다는 설도 전한다. 바우덕이의 시신은 어려서 자랐던 청룡사 부근에 묻혔다. 몇 년 전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가묘를 만들기도 했다.

청룡사뿐만 아니라 남사당의 근거지로 밝혀진 경기도 진위, 충남 당진 · 회덕, 전남 강진 · 구례, 경남 진양 · 남해, 황해도 송화 · 은율 등에서 활동하던 남사당패들은 겨울이면 사찰로 들어가 삐리(신참)들에게 기예를 가르치며 겨울을 보냈다.

민속학자 심우성 관장(공주민속극박물관)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겨울에는 묵을 곳이 없었던 남사당패들이 지역 사찰들을 근거지로 활동했다"며 "황해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남사당패들은 절에서 만든 부적을 팔기도 하면서 기예를 뽐냈다"고 말했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제공=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표충사 감로탱속의 '줄타기' 모습.


영화 '왕의 남자'에서 장생의 줄타기 장면을 대역한 어름산이(줄타기 고수) 권원태씨(안성시립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

절에서 겨울 나고
봄 오면 저잣거리서
서민 애환 달래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남사당패의 여섯 놀이마당

■ 풍물



–일종의 농악인 인사굿으로 시작해 돌림벅구 · 선소리판 · 당산벌림 · 양상치기 등 24판 내외의 판굿을 돈 다음 상쇠놀이 · 따벅구(벅구놀이) · 징놀이 · 북놀이 · 새미받기 · 채상놀이 등의 순서로 농악을 친다. 꾕가리 · 북 · 징 · 장구 · 날라리 땡각(令角)의 잽이(악사)와 법고 등을 포함한 최소 24명이 한조를 이룬다. 어린이를 등에 태우는 무동놀이, 상모놀이가 이어진다.

■ 버나



–가죽으로 둥글고 넓적하게 만든 가죽 접시 버나를 앵두나무 막대기로 돌리는 묘기이다. 이 놀이의 묘미는 접시 등을 돌리는 사람인 버나잽이와 받는 소리꾼인 매호씨(어릿광대)가 주고받는 재담과 소리에 있다.

■ 살판



–잘하면 살판, 못하면 죽을판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곤두 · 뒷곤두 · 번개곤두 등 11가지 순서를 가지고 있다. 살판쇠(땅재주꾼)와 매호씨가 잽이의 장단에 맞추어 재담을 주고받으며 재주를 부린다.

■ 어름



–줄타기 곡예로 얼음 위를 걷듯이 어렵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무대 중앙을 가로지른 외줄을 어름산이(줄꾼)가 건너가며 매호씨와 재담을 주고받는 놀이다. 종류는 앞으로 가기 · 장단줄 · 거미줄 늘이기 등 15종의 순서가 있다.

■ 덧뵈기



–탈놀음을 뜻하는 덧뵈기는 춤보다는 재담과 연기가 우세한 풍자극으로 마당씻이 · 옴탈잡이 · 샌님잡이 · 먹중잡이 등 네 마당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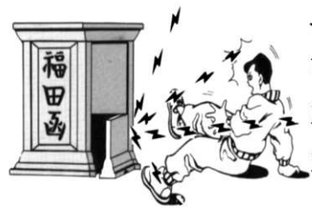
■ 덜미



–남사당놀이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인형극인 꼭두각시놀이이다. 인형의 목덜미를 쥐기 때문에 '덜미'라고 한다. 대개 두 마당 일곱 거리로 박첨지마당(박첨지유람거리 · 피조리거리 · 꼭두각시거리 · 이시미거리), 평안감사마당(매사냥거리 · 상여거리 · 절 짓고 허는 거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6. 6. 7 (수 · 목요일 주 · 야간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포행·공양 빼곤 자정까지 홀로 번역·원고 정리

혜경 스님이 한 신도가 임시로 빌려준 임대 아파트 거실 한켠에서 <법화경> 번역과 해설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혜경 스님 (화담정사 조실)

법화경 권위자…경전 번역 · 강의에 주력

혜경 스님은 | 1933년 전남 여수에서 출생했다. 스님은 56년에 서울대 사학과를 졸업한 후 불가에 귀의했다. 법명은 혜경(惠耕) 당호는 회옹(晦翁). 재단법인 법화종 유지재단 이사장과 법화불교대학 학장을 지냈다.

스님은 85년부터 현재까지 경전번역에 주력하고 있다. <법화경> 번역과 해설의 권위자로서 출 · 재가자들에게 그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법화경 이야기>(범우사), <법구경 입문>(범우사), <법화삼부경>(문학예술사), <우리말 법화경>(도서출판 삼양), <법화경 총설>(도서출판 삼양), <관무량수경>(집문당) 등 다수의 번역서를 내놓았다.

경기도 양주시 화담정사 가는길. 형형색색의 꽃들이 나무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나무숲 사이로 난 길에는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있었다. 꽃을 보니 오늘따라 웬지 부처님의 법비에 흠뻑 젖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절에 도착하니 노스님이 출타중이다. 세수 74세의 혜경 스님은 신도가 임시로 마련해준 절 인근의 임대아파트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 왜 노스님이 아파트에 머물고 있을까? 스님은 나름대로 5년불사를 계획해 두었다. 그동안 <법화경> 번역서를 많이 냈지만 법화경에 관한 종합해설서가 필요하다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이다. <법화경> 해설서는 <관무량수경> 1권, <법화경> 8권, <관보현보살행법경> 1권 등 총 10권으로 출간할 예정이고 일에 효율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 임시로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것.

스님은 거실 한켠에 컴퓨터 책상을 놓고 큰 돋보기를 보며 도우미(?)도 없이 자료수집에서 초안작성, 최종 원고 작성까지 <법화경> 해설서 발간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6개월에 한권씩 발간하는 빡빡한 일정이다보니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작업에 몰두할 수 밖에 없다. 스님은 아침에 1시간동안 논길을 산책하고, 매 끼니마다 잠깐씩 공양하는 것 빼고는 꼬박 작업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1권의 3분의 2밖에 쓰지 못했어요."

<법화경>의 최고 권위자인 혜경 스님. 스님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런데 몸이 편안하려면 작업을 놓아야 하는데 작업을 놓으려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어떤 것이 나은 것인지 모르겠다고 조용히 되뇌였다. 스님은 "평생 해온 작업을 이제는 집대성할 때가 되었다"며 "후학들을 위해 고생할 것은 해야 하지 않느냐"고. 또 일도 일이지만 공양까지 혼자 챙겨 드셔야 하니 보통일이 아니다. 독살이 이유에 대해 스님은 "절에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 일이 진행 안되니 어쩔수 없이 칩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스님이 서울 무설정사에 계실때는 자연과학, 인문학, 예술학은 아우르는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불법의 대의를 설명해, 많은 신도들의 친견이 이어졌었다. 또 스님도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침을 선사했었다.

스님은 "<법화경>이 백제 위덕왕때 현광 스님에 의해 일본으로 전해졌는데 지금은 일본에서 역수입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현재 한국의 강원에서는 이제 <법화경>을 배우지도 않고 있다. 문제는 한국적인 사상이 전혀 없는 일련정종계통의 해설서만 난무하고 있는 것. 일본 법화종 계통의 불교가 한국에서 흥하고 있는 이유라는 스님의 지적이다.

"일본의 해설은 꼭 <법화경>을 하면 '이익을 준다' '복을 준다'는 식"이라며 "하지만 <법화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주와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혜를 줄 뿐"이라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일본에서 <법화경>을 하는 정통 천태종이 들어왔으면 '나무묘법연화경'을 하지 않고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해설서의 도입부에 '나무아미타불' 참회법을 소개하고 있다"고 귀띔해 주었다.

스님은 "의식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염불을 해야 한다"며 "나무아미타불 염불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자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법화경> 해설서도 글자의 번역에 연연하지 않고 모두 해탈에 답을 맞춰 해석하고 있다.

스님은 "아침에 아미타불 만번, 준제진언 천번만 하면된다"며 "부처님 명호인 '아미타불'은 내가 아미타불임을 알게 해주는 염불이다. 선종에서 '이뭐고' 화두가 결국 '나'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성불의 가능성을 스스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를 건지는 길"이라는 것이 스님의 '단골법문'이다.

글=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화경〉 종합해설서 발간 '5년 불사' 중 자구 번역 연연않고 해탈에 답을 두고 해석



화담정사 인근의 논길을 포행중인 혜경 스님.



가족이 늘었어요
사랑이 늘었어요

오늘 우리집에 새 가족이 온대요.
친부모님의 어려운 사정으로 잠시
우리집에서 함께 살게 된 동생이랍니다.
이제, 엄마도 나눠 갖고, 장난감도 나눠 가져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꽉 찬 느낌이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 와도
행복한 기억만 가득하도록 만들어 줄래요.

위/탁/부/모/가/ 되/어/ 가/족/의/ 사/랑/을/ 나/눠/ 주/세/요.

▸가정위탁보호 사업이란?
친부모의 실직, 이혼, 질병 등으로 부모와 함께 지낼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살펴 주는 제도입니다.

▸가정위탁보호 사업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 / 전세자금 지원 /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 / 기타 민간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02)597-9119 서울 가정위탁지원센터 : 02)325-9080 부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1)758-8801 대구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656-2510 인천 가정위탁지원센터 : 032)866-1226 광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2)351-1206 대전 가정위탁지원센터 : 042)242-5240~1 울산 가정위탁지원센터 : 052)286-1548 강원 가정위탁지원센터 : 033)764-7001
경기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234-3979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 031)821-9117 충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43)250-1226 충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41)577-1226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53)813-3953 경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55)237-9397 전북 가정위탁지원센터 : 063)276-2600 전남 가정위탁지원센터 : 061)279-1226 제주 가정위탁지원센터 : 064)747-3273

"욕망 누르는 것이 자비"

혜경 스님의 가르침

결코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주 진리자체가 다 외향성이고, 확장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자체가 더 커지려고 하는 것도 우주진리의 속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민들레 씨앗이 멀리 날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명체 모두가 우주만물 중에서는 자기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뇌의 욕망이 크고, 서로의 존재만 내세우다보니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서로간에 부딪침은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욕망을 없애라는 것과 다릅니다. 서로를 위해서 조금씩 누르라는 것이지요.

스스로 욕망을 누르면 바로 보리심을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망을 자제해야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적멸은 조화를 이루는데 있습니다.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식물이나 동물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의 순환원리이기도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분들은 동물을 해치는 것에만 죄의식을 갖습니다. 그러나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식은 죄가 안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런 논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식당을 가서는 항상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세요. 그래야 먹어도 극락이요, 뱃속도 극락이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있어서 욕심도 있습니다.

욕심에 얽매이지 말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나무아미타불' 한다면 그것은 지장보살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장보살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습이라는 것이 있어요. 습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말라식(무의식)의 세계가 80~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습은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인 전생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조상이나 부모의 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 습을 고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생물이 처음 생긴 아메바로부터 지금까지 진화하며 축적된 습을 고쳐야하기 때문입니다.

수행은 바로 이런 습을 바꾸기 위한 행위입니다. 또한 좋은 버릇들이기라고 해도 맞습니다.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좋은 습을 익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만 내세울때 '충돌'
맑은 정신으로 '법화경' 읽으면
등장인물이 바로 '나' 알게 돼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한다는 것은 습을 부처님 가르침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습을 바꾸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극락세상을 가면 천인들이 만다라 핀 곳에서 기악을 켜고 항상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깨치기 전에는 꽃이고 나무로 분별돼 보이지만 깨치고 보면 모두가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부처의 화신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부처의 물결속에 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우주의 이치를 아주 쉽게 가르쳐 주는 경전이 <법화경>입니다. 우리의 옛조상들이 <법화경>을 좋아했던 것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법화경>은 몸으로 읽어야 합니다. 읽을 때 맑은 정신을 갖고,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자기로 읽어야 모든 등장인물이 결국 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전의 '사리불아'는 사리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1인칭으로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시오입(開示悟入)'이라.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 불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부처님이 이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칸트의 목적론과 비슷한데, 중생을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싯다르타는 개인의 소원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성취입니다. 불교의 성취는 결국 중생구제에 있습니다.

<법화경>은 보살행 즉 바라밀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곧 극락이요 누구나 다 부처를 이룰 수 있다고 의심치 말고, 그러한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이 보살행이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불법의 실천이며 보살도를 완성하는 가장 쉽고도 올바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선의 범위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참선의 범위를 염불선까지 넓혀야 합니다.

중생들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일하면서 참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절에서 사는 스님들은 참선이 가능하지만 속세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생들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참선이 가장 수승한 수행법인 것은 맞지만 일반 불자들이 생활속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염불수행법도 제시했으면 합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혜경 스님이 상좌인 회담정사 주지 혜학 스님(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68>



'분별심'은 어떻게 분별하지?(1)

가까운 사람 중에 언론계에서 일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불교에서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런다면서요?"

"예."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면 그건 분별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럼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을 똑같이 대하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히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반야심경>을 함께 읽어가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도둑도 이 세상에는 다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군요. 그들이 있으니 경찰이며 판검사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기꾼을 두고 나쁘다거나 경찰을 두고 옳다고 분별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바로 부처님 말씀인 것이지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참뜻은?
부처님, 세밀하고 냉정하게 따져 본 후
제자들에 깊이 생각해 판단할 것 주문

나는 이때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말은 불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쉽게 부담없이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왜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까'라는 질문조차도 분별심에 사로잡힌 수준 낮은 사람들이나 하는 질문이라 생각해서 궁금해 하지도, 궁금해 할 수도 없었던 것이 불교계의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 때문에 생사 윤회하는 것이니 이런 생각조차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생각을 할 수 없는 나무나 돌은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니 지금의 나보다 한 단계 더 깊은 경지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옳다 그르다, 밉다 곱다 착하다 못됐다… 이런 상대적인 생각을 내지 말라는 말이라는 대답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은 이미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바깥세상을 받아들이는데 그럼 내 감각기관의 기능 자체를 부정해야 한단 말일까요?

그리고 내 옆 사람이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 주변 사람이 매우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잘 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판단도 하지 말고, 그런 시비를 가리는 사람들을 향해 '네 발 밑이나 잘 살펴봐라'라고 일침을 주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게 해야 할까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을 앞에 두고 '너의 행동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분별심을 내지 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식이 못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분별심인 걸까요?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이가 나왔을 때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분별심을 일으킨 것이 될까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말이니까요.

부처님 자신도 막 출가한 뒤에 당시 이름 높은 수행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가장 완전한 경지까지 도달한 뒤에는 "이것은 궁극의 경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들과 헤어졌습니다. 이런 행동은 역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세밀하고 냉정하게 따져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을 보아도 의외로 부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심사숙고하여 선한 일, 선하지 않는 일, 올바른 일 그릇된 일을 판단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제부터 설명할 터이니 그것을 고요한 곳에 앉아서 골똘하게 깊이 생각하라"는 주문을 항상 넣습니다. 나아가 당시 다른 종교나 사상의 오류를 예리하게 짚어내어 그들이 왜 착하지 않고 그릇되었는지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예도 꽤 많습니다.

게다가 과거 일곱 부처님의 그 유명한 게송을 보아도 "그 어떤 악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힘써 행하여 그 마음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런 당부를 실천하려면 가장 먼저 선악과 시비를 따져야만 하는 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어떤 경계와 맞닥뜨려서도 일체의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분별심을 일으키지 말라는 말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불자들은 이런 의문들을 다 해결하였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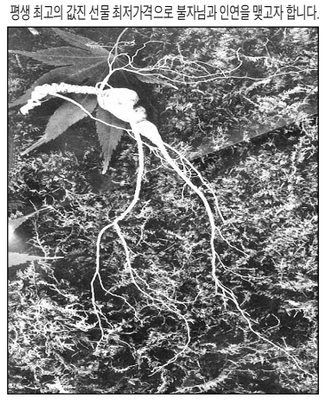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元·氣·回·復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루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잘시 스치는 인연도 소중하게 받아들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특히나 슬프거나 어렵고 힘이 들 때 '누군가'라는 존재는 큰 힘이 되어준다.
그 누군가가 도반이 될 수도, 친구가 될 수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 주고,
몸으로 막아 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120P / 신국판 / 값 6,000원 / 옥천 대성사



저자 | 혜청스님(옥천 대성사 주지)
1995 한국불교태고종 성원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00 옥천대성사 주지 취임
2001 옥천군 바르게 살기 종교분과위원장
2003 한국불교태고종 충북교구 남부분원장
2004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장 취임
2006 한국결혼상담소협회 고문
2006 옥천군 문화원 총무분과 이사

선남선녀 불자들의 특별 만남 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옥천읍 대성사 043)732-5560

현대불교신문 윤년 특별 기획

불자수의 長樂壽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원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불자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현대불교신문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소중한 효심을 담아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지었습니다.

예로부터 윤년에 지은 '윤달수의'는 탈이 없고, 손이 없어 부모님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최상의 효행 선물이었습니다. 불자님들이 윤년 윤달에 장락(長樂)과 장수(長壽)의 기쁨을 드릴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는 부모님께 깊은 만족과 감동을 드릴 것입니다.

탐·진·치, 삼독(三毒)으로 물들었던 과거를 돌아보고 여생을 겸허하게 생사일여(生死一如)의 경지로 맞이하실 계기가 될 불자수의 장락수(長樂壽)를 불자님들께 올립니다.

자손의 정성으로 부모님이 건강하게 편안히 사시고 후손이 번창을 염원하는 일이야말로 불자님들이 가장 으뜸으로 행하여야할 도리라 사려 됩니다.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법향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장락수의 특징

- 원사직물시험연구원의 원사심사와 품질보증 Q마크를 획득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면사실로 직접 제작
- 옷함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 특별 주문 · 제작한 수의함

품 명	재 질	특 징	판매가
珍品	대마 100%	최고급 원단 안동포로 제작한 한정된 물량의 최고급 불자수의	4,500,000
名品	대마 100%	최상의 중국산 흑대마, 안동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품격 유지	1,800,000
特品	대마 100%	중국산 사천대마, 남해포 전통가공법으로 제작 실용적 가격	1,450,000
上品	저마 100%	중국 현지에서 엄선된 고급 수직저마를 원단으로 제작한 수의	600,000

※ 멧베 추가 주문시 판매가의 10%가 추가됩니다.

제품구성

- 남성용(18종) : 도포 도포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허리띠 대님 장매 악수 고깔
- 여성용(17종) : 원삼 원삼끈 두루마기 저고리 속저고리 겉치마 겉바지 속바지 천금 지금 베개 면모 버선 오낭 장매 악수 고깔

현대불교신문사 기획사업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전화 02) 2004-8207, 8210 / 팩스 02)737-0697 휴대폰 010-6238-5923 / 011-9872-3163
홈페이지 http://biz.buddhapia.com e-mail : sujung@buddhapia.com

원재 스님에게 배우는 사찰된장요리



서울 당산동에 사는 문지선(35) 주부. 최근 건강열풍을 타고 최고의 '웰빙 음식'으로 꼽히는 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문씨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식탁에 된장 요리를 올려보리라 다짐한다. 하지만 된장찌개도 한두 번. 찌개나 나물 무침 외에는 딱히 다른 요리법이 떠오르질 않는다.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의 입맛을 '장맛'으로 돌리기 위한 좋은 방법은 없을까?

흔히 '음식 맛은 장맛'이고 '장맛을 보면 그 집안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료인 된장은 건강식품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각광을 받고 있지만, 소비량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핵가족화와 외식문화 발달로 인해 집에서 밥을 해 먹는 횟수가 부쩍 줄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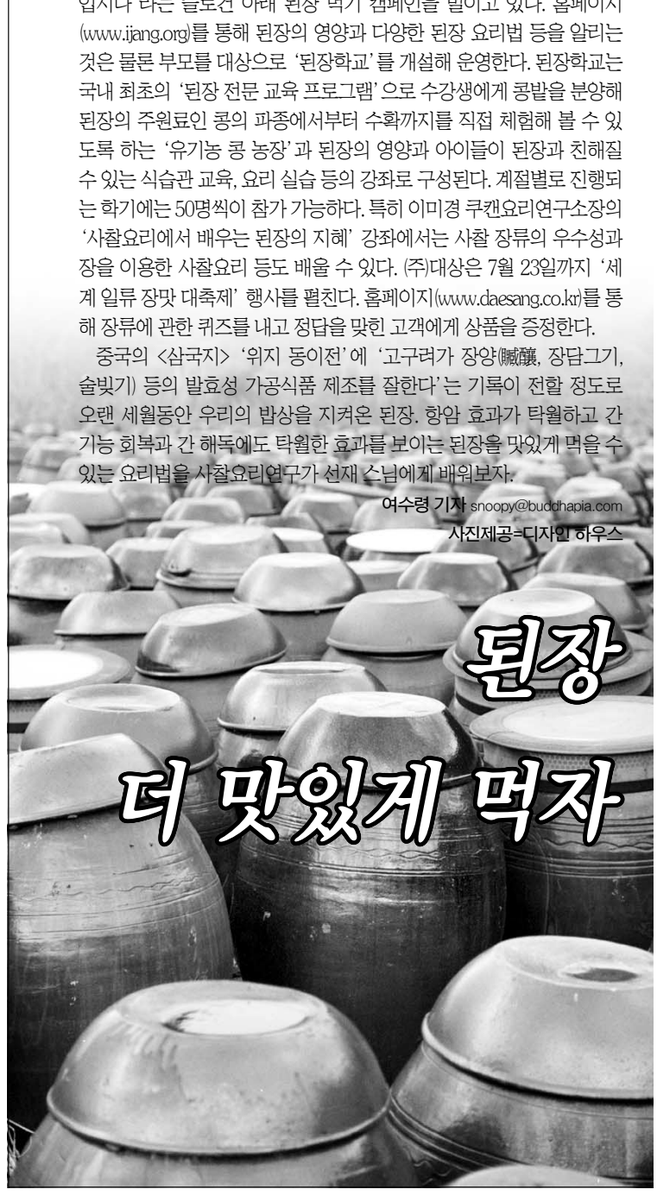
직접 장을 담그는 집이 드물고 된장 소비량도 감소하자 최근에는 기업들까지 나서 '된장 먹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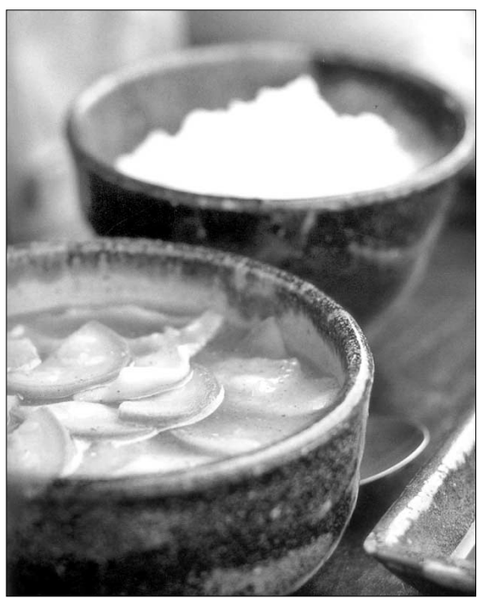
샘표식품은 지난 5월 5일부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 된장을 먹입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된장 먹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홈페이지(www.ijang.org)를 통해 된장의 영양과 다양한 된장 요리법 등을 알리는 것은 물론 부모를 대상으로 '된장학교'를 개설해 운영한다. 된장학교는 국내 최초의 '된장 전문 교육 프로그램'으로 수강생에게 콩밭을 분양해 된장의 주원료인 콩의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유기농 콩 농장'과 된장의 영양과 아이들이 된장과 친해질 수 있는 식습관 교육, 요리 실습 등의 강좌로 구성된다. 계절별로 진행되는 학기에는 50명씩이 참가 가능하다. 특히 이미경 쿠캔요리연구소장의 '사찰요리에서 배우는 된장의 지혜' 강좌에서는 사찰 장류의 우수성과 장을 이용한 사찰요리 등도 배울 수 있다. (주)대상은 7월 23일까지 '세계 일류 장맛 대축제' 행사를 펼친다. 홈페이지(www.daesang.co.kr)를 통해 장류에 관한 퀴즈를 내고 정답을 맞힌 고객에게 상품을 증정한다.

중국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고구려가 장양(臟釀, 장담그기, 술빚기) 등의 발효성 가공식품 제조를 잘한다'는 기록이 전할 정도로 오랜 세월동안 우리의 밥상을 지켜온 된장. 항암 효과가 탁월하고 간 기능 회복과 간 해독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된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사찰요리연구가 선재 스님에게 배워보자.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제공=디자인 하우스





옥수수 된장 수제비

옥수수 2개, 밀가루 3컵, 소금 약간, 미역 100g, 애호박 1/2개, 된장 2큰술, 고추장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시마(20cm) 1장

① 옥수수 알을 칼로 긁어 믹서에 물을 조금 넣고 간다. 여기에 밀가루를 넣고 소금간해 말랑하게 반죽한 다음 냉장고에 30분간 넣어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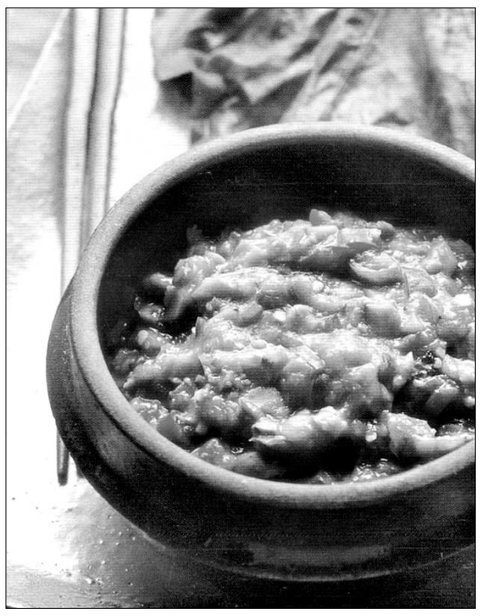
② 미역은 물에 씻었다 건져 잘게 썬다. 애호박은 반달 모양으로 썬다. 된장과 고추장을 잘 섞은 후 참기름을 넣어 기름이 뜨지 않도록 골고루 섞는다.

③ 냄비에 물과 다시마를 넣고 끓으면 다시마는 건지고 된장, 고추장 섞은 것을 풀어 다시 끓기 시작하면 미역을 넣고 5분간 더 끓인다.

④ ①의 반죽에 찬물을 한 번 부었다 따른 다음 얇게 떼어 수제비를 떠 넣은 후 애호박을 넣어 좀 더 익힌다.

쌈 된장찌개

사찰의 쌈 된장찌개는 빡빡한 짠 일반 강된장과 달리 감자를 갈아 넣어 짜지 않고 맛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찜통에 쪄낸 호박잎이나 우엉잎, 양배춧잎 등을 싸먹을 때 좋다.



표고버섯 3장, 풋고추 10개, 된장 4큰술, 감자 1/2개, 다시마 국물 1/2컵

① 표고버섯은 물에 씻어 불린 다음 곱게 다진다. 표고버섯 불린 물은 따로 둔다.

② 풋고추는 곱게 다져 된장과 잘 섞는다. 감자는 껍질을 벗겨 강판에 간다.

③ 뚝배기에 다진 표고버섯과 표고버섯 불린 물, 다시마 국물을 붓고 풋고추에 버무린 된장을 잘 풀어 끓인다.

④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감자 간 것을 넣어 숟가락으로 눋지 않게 저으면서 서서히 익힌다.



호박잎국

호박잎 200g, 굵은 소금 약간, 애호박 1개, 된장 2큰술, 고추장 1큰술, 표고버섯가루 2큰술

① 호박잎은 껍질을 벗긴 후 소금을 뿌리고 비벼 부드럽게 한 다음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뜯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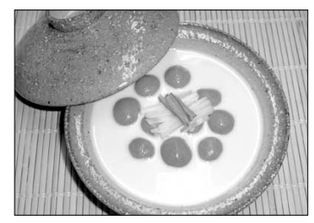
② 애호박은 반으로 갈라 방망이로 두들겨 잘게 부순다.

③ 된장과 고추장을 섞어 물에 풀고 표고버섯 가루를 넣어 끓인다.

④ 끓기 전에 호박잎을 넣고 어느 정도 끓었을 때 잘게 부순 애호박을 넣어 끓인다. 호박잎에 날콩가루를 무쳐 넣으면 국물 맛이 더 좋다.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0>

시금치콩국과 시금치나물





어느새 길거리의 가로수들이 무성한 푸른 잎으로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라 버렸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네요.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나' 생각해보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렇게 시간은 잘도 가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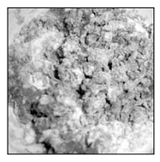
하루하루 사찰음식연구란 명목 하에 바쁘게는 살고 있지만, 이 삶을 잘 살고 있는 것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늘 명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더위 때문에 지칠 때면 먹고 싶은 음식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제 어머니의 친정은 부여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귀암이란 작은 시골마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땐 절 너무나 예뻐하셨던 외할머니를 뵈러 외갓집에 며칠씩 머무르곤 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 손을 잡고 놀러가곤 했던 곳이 바로 사찰이었습니다. 그 절에 가면 스님께서는 꼭 파란색 둥근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색도 예쁘고 맛도 아주 좋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더운 여름날이면 스님은 그 파란색 떡에 제가 유난히 싫어했던 콩국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땐 콩국의 비릿한 맛이 싫어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먹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찰음식을 배우고 익히면서 전 이 음식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면 제일 먼저 생각나고, 손님이 오셔도 꼭 이 음식을 대접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불린 콩을 믹서기에 갈고, 시금치로 만든 경단만 있으면 더위에 지친 입맛을 살려줄 수 있는 자연의 먹을거리가 완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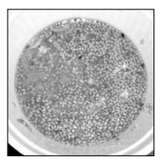
사찰 공양간에서는 참 다양한 먹을거리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마 사찰음식과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부처님께서는 저에게 사찰음식과의 인연을 맺어주신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만드는 법



<시금치 콩국> 재료: 시금치 2줄기, 찹쌀가루 1컵, 죽염, 콩 국물 8컵, 오이 1/2개

① 시금치는 흐르는 물에 씻어 믹서기에 갈아서 시금치 물을 만든다. ② 찹쌀가루에 죽염을 약간 넣어 간을 해준다. ③ 오이는 돌려 깎기 해 파란부분이 아닌 하얀 부분을 채 썰어준다. ④ 찹쌀가루를 시금치로 반죽해 완자를 빚어 뜨거운 물에 데쳐낸 후 찬물에 바로 헹군다. ⑤ 그릇에 시금치 완자를 담고 콩 물을 부어준 다음 오이채로 완성한다.



<시금치나물> 재료: 시금치 반 단, 양념장(포도씨유 1작은술, 죽염 약간, 다진 대파 흰 부분 1작은술, 참깨 약간)

① 분량의 재료를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② 시금치는 끓는 물에 데쳐서 꼭 짜 둔다. ③ 데친 시금치에 양념장을 버무린 후 완성한다.

▶다음 주에는 오이 즉석장아찌와 오이나물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불자주주경영자 및 소액주주 분을 모십니다
대리점 계약금으로 주주가 되십시오

● 제품소개
1)숙취해소 기능식품 : 세계특허 출원완료 각국 진입단계 국내특허 출원 중 (9월 완료 예정)
2)관절치료 기능식품 : 국내특허 출원 중 (9월 완료 예정)
● 당사는 전문 웰빙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 당사의 특허 관리는 회사 명의로 되어있다
● 당사는 한방화장품, 한방비누, 제약으로 발전할 다수의 제품을 개발 완료 하고 특허출원 중인 제품도 있으며 현 기능식품, 한방비누는 출시 중
● 당사는 주주분의 참여시 즉각 한방화장품 출시

● 특 전
1) 주주경영자 및 소액주주 분에게 상기의 모든 특허 건 및 향후 특허 건에 대해 공동소유의 자격을 부여함
2) 소액주주 분은 각 지역 대리점권도 부여함

주식회사 9up9 (김보현행 합장)
053)314-3363~4 / 010-9025-3363

실기 훈련을 위주로 하는
설법 연수생 모집

● 교육목표
각 개인별 특수성을 파악하여 설법의 실기 연수과정을 통한 능력배양, 자료를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 시킬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교육내용
1. 정체성 확립(가치관&성격)
2. 단전호흡의 이론과 실제
3. 설법의 개념 및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제
6. 원고 작성법(자료의 재구성)
7. 표현상 修辭 및 논리상의 修辭
8. 상담&대화의 이론 및 실제
9. 회의진행법, 토론 및 각종 사회진행 요령
10.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등 요약

◆ 특 징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 모 집 : 종합반 - 수시접수 5명이내
※ 맞춤식 개인지도 - 총 8회과정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3,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왼쪽부터 '돈조' 역 지춘성, '허운' 역 정진, '돈조' 역 배수백, '허운' 역 오영수, '혜산' 역 명로진, '우지' 역 이태환.

요절복통 수행이야기 '지대방' 리뷰

결코 가볍지 않은 내면의 소리

대학로 김동수플레이하우스, 7월 9일까지

연극 '지대방'이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이 쓰고 불교연극의 대가 강영걸씨가 연출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지대방'을 둘러싼 진지한 이야기와 요절복통을 끌어내는 '재미'가 환상적으로 조화된 탓이다.

자그마한 무대는 산사의 승방으로 꾸며졌다. 드나드는 문에는 보살상이, 천정에는 단청을 입혀 고즈넉한 산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켰다. 징 북 목탁 등은 다양한 음향효과를 연출해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제 동안거(冬安居) 중인 겨울산사의 지대방을 훔쳐보러 가자.

칼바람이 매섭게 부는 산사. 그곳에서 철통같은 수행 정진을 하는 스님들에게도 잠시 잠깐의 휴식이 꿀같이 달콤하게 주어지는 공간이 있다. 바로 지대방이다.

지대방은 사찰의 큰 선방 옆에 딸린 작은 방으로, 안거에 들어간 스님들이 참선 중간 휴식할 수 있는 공동생활 공간을 말한다. 몸과 마음을 서로에게 '기대는 방'이라는 뜻이다.

이곳에서 노장 허운 스님, 고뇌하는 학승 혜산 스님, 막둥이 돈조 스님을 중심으로 평소 볼 수 없는 스님들의 생활상을 펼쳐 보인다.

참선하고 쉬는 시간이 오면 빨래하고 청소하고 포행한다. 스님들끼리 옛 가족 생각을 할 때도 있다. 인근 비구니 스님 암자에 익어가고 있을 솔차도 스님들에게는 흥밋거리다.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일상의 한 조각이다.

그러나 지대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포행을 하면서도, 쉬면서도, 깨달음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고뇌한다. 무문관에 든 도문 스님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깨달음'을 갈망하고, 주인공 혜산 스님은 무문관에 들어갈 뜻을 내비친다.

연극 '지대방'은 지루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단박에 씻어 내렸다. 허허실실 마치 원효대사의 한 일면을 보는 듯한 노장 허운 스님은 극이 진행되는 내내 특유의 입담과 해학으로 단체관람 온 여고생 오빠부대를 탄생시켰다.

배우 면면의 깊이 있는 연기도 극에 몰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었다. 자신이 출연하는 날이 아닌데도 관객석에서 묵묵히 연극을 지켜보는 배우 정진씨의 모습에서 '지대방'에 대한 배우들의 열정을 읽을 수 있었다.

"무슨 소리야?" "노스님, 바람소리인가 봅니다." "도둑이야!" "불이야!" 미리 관객들에게 준비시킨 문구에서부터 흥에 겨운 관객들의 애드립까지 지대방은 흥겨운 축제의 장이다.

고양에서 왔다는 한 보살은 "소품도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2시간 가까운 공연시간 동안 지루할 틈을 안주는 연극"이라며 "깨달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연극은 처음"이라고 극찬했다.

공연은 7월 9일까지 대학로 김동수플레이하우스에서 계속된다. (02)3675-4675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선방 휴식 공간인 지대방서
일어나는 스님들의 또 다른 생활상
입담과 해학, 관객들의 애드립
2시간 공연 지루할 틈 없어

사건 훔쳐 보는 재미 '솔솔'

재판정에 선 증인은 셋. 그들의 말이 모두 틀리다?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비를 피해 무너져 가는 나생문(羅生門, 교토 근처의 작은 도시를 드나드는 문) 앞에 스님과 나무꾼, 그리고 지나가던 가발장수가 모인다. 가발장수는 그 날 벌어진 괴이한 살인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산적 타조마루가 무사를 죽이고 그의 부인을 강간했다는 사건. 산적의 증언에서부터 무사 부인, 죽은 무사의 영혼을 불러낸 무녀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면모가 서서히 밝혀진다.

2003년 7월 극단 수의 창단공연으로 성황리에 공연됐고 2005년 서울연극제 인기상을 수상했던 연극 '나생문'이 '2006 나생문(羅生門)'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6월 10일~7월 2일 '나생문'의 최종 완성판 '2006 나생문'을 선보인다.

입구는 물론 객석 바닥을 대나무와 흙, 잡초로 꾸민 자유소극장에서 관객은 사건을 몰래 훔쳐보는 목격자가 되어 연극을 관람할 수 있다. 살인사건을 둘러싸고 산적과 무사의 아내, 무녀의 입을 빌려 말하는 죽은 무사의 혼령, 목격자 나무꾼 시점에서 4개의 에피소드가 펼쳐진다. 처절한 이야기 속에서 스님은 이들의 고뇌를 떠안으며 극의 중심을 잡는다. 북 심벌즈 징 꽹과리 등 타악 연주는 한바탕 진실게임이 벌어지는 무대를 더욱 긴장 속으로 몰아넣는다.


'2006 나생문(羅生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6월 10~7월 2일

배우 최용민이 고뇌하는 스님 역을 맡고, 최광일이 산적 역을, 장영남이 무사의 아내 역을, 서현철이 가발장수 역으로 각각 캐스팅됐다. 연출은 구태환이 맡는다.

'나생문'은 일본의 아쿠다카와 류노스케 단편 소설 '나생문'과 '덤불 속'을 묶어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던 작품이다. 구로자와 감독의 영화는 1951년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1952년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등을 수상했다. (02)741-3934

강지연 기자

인도의 풍광 오케스트라로 듣는다

이호신 화백과 함께하는 니르바나 후원의 밤

6월 10일 저녁 6시 서울 원서동 한국불교미술박물관(02-766-5000)에서는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단장 강형진)가 이호신 화백과 함께하는 니르바나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나는 인도를 보았는가>의 저자 이호신 화백과 함께 한국화를 통해 바라본 인도의 풍광과 작품 활동 중의 에피소드를 듣는 음악회이다.

니르바나의 테마가 있는 연주의 첫 번째 무대인 이번 음악회에 이어 '불교, 요가 그리고 음악' '불교, 영화 그리고 음악' 등도 준비 중이다.

한편 니르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7월 7~8일 해남 미황사에서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템플스테이 그 두 번째 무대 '미황사의 여름-니르바나 앙상블과 시조의 만남'을 마련한다. 경주 남산 답사 음악회, 폐사지 음악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11월 22일에는 대원정사의 후원을 받아 KBS홀에서 소아암 환아를 위한 음악회를 연다. (02)415-2599

강지연 기자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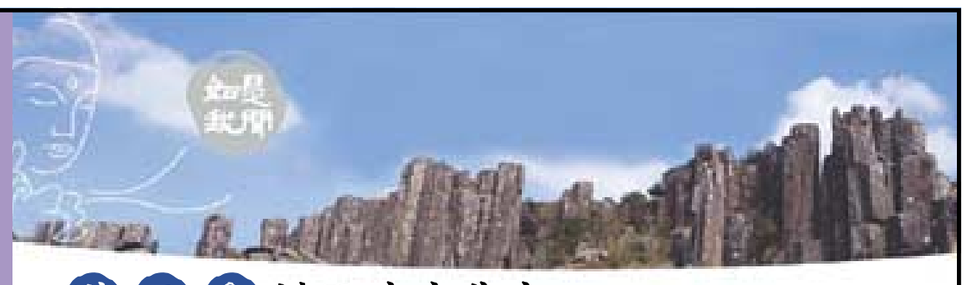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 판매처 : 여시아문 www.yosiamun.com 02)737-0695, 02)2004-8219, 8220 [입금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 농 협 053-01-265785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공해서 고정된 게 없으니 그냥 놓고 가세요

여러분께서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셔서 마음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생활이 재료니까 그대로 그걸로 마음공부를 하시겠죠. 그러나 각 사찰을 봐도 그렇고 각 종교를 봐도, 너무도 이 마음공부에는 생각이 없고, 모두 타의에서 구하지 자의에서 구하려고 생각들을 안 합니다. 물론 말들은 '나 자신부터 알아라. 너 자신부터 알아라.' 이럽니다. 그러나 행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슬픈 것은, 우리 인간들이든 저 동물에 가까운 사람이든, 또는 그 천차만별로 돼 있는 생명들을 생각해 볼 때에, 50%는 멸하고 50%는 생하면서 수레와 같이 만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수레에 굴려서 제 차원대로 다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든지 뭐든지 기계에다 쏟아 넣으면 크기에 따라 분리되어 떨어져서 큰 건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모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떠한 물건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영령들의 마음들도 보이지 않는 데서 차원에 따라서 수레에 넣어진다면 그렇게 분리가 된단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분리가 돼서 자동적으로 하천세계에 떨어지고, 중천세계에 떨어지고, 상천세계에 떨어진단 얘깁니다. 그거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이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하천세계로 떨어진 그런 생명들을 텔레비전에서도 보시고 뭐, 많이 보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요. 먹고 먹히고 하는 그 삶의 굴레를 볼 때에 기가 막히고도 남음이 있죠.

그리고 우리 중천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떨까요? 역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옳을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얼굴은 하늘에다 쳐들고 입을 딱 벌리고 그냥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모두들 여러분이 '내가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앞으로도 괜찮을 거다.' 하고 사시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대로 차원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차원이 높든지 얕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차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겪어 왔고, 또 앞으로도 억겁을 지나가면서 겪을 그 집착 또는 관습,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 마음이 누더기가 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죠. 우리가 대치를 못하기 때문에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본래 사람은 발자국 떼어 놓는 거와 같아서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고, 한 발자국 떼어 놓으면 한 발자국 없어지는 것이 바로 공해서 그렇다. 고정된 게 없어서 그렇다. 고정된 게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가는 거다. 그냥 놓고 가니까 그냥 여여한 거다. 그냥 여여한 거니까 아무것도 붙을 게 없다.' 이래도 그걸 곧이 안 듣는 거예요. 그걸 아예 곧이 안 듣는 겁니다. 그 관습에 의해서 말입니다. 살아나온 그 누더기가 붙어서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여여하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 없다. 우리가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해서, 하나도 거칠 게 없고 걸릴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간다. 그러니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그냥 따라서 기쁘게 살라.' 이래도 하여튼, 기쁘기는커녕 요만한 거 하나라도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가지고 근심걱정을 하면서 야단법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 하천세계의 생명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한번 객관적으로 모든 거를 보세요. 인간이 짐승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짐승이 사람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수레에 굴려서 제 차원대로 다 나누어지니까 우리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할 수 있다면, 그거야 뭐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보배죠.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체 만물 중에 인간이 고차원적이므로 99% 부처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거 한 찰나 요렇게 돌리면 될 것을 그렇게 누더기가 붙어서 돌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공(空)해서, 색(色)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 그대로 놓고 가는 거다. 그대로 공해서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이 모든 게 공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살이로, 하루살이가 뭡니까, 일초살이지.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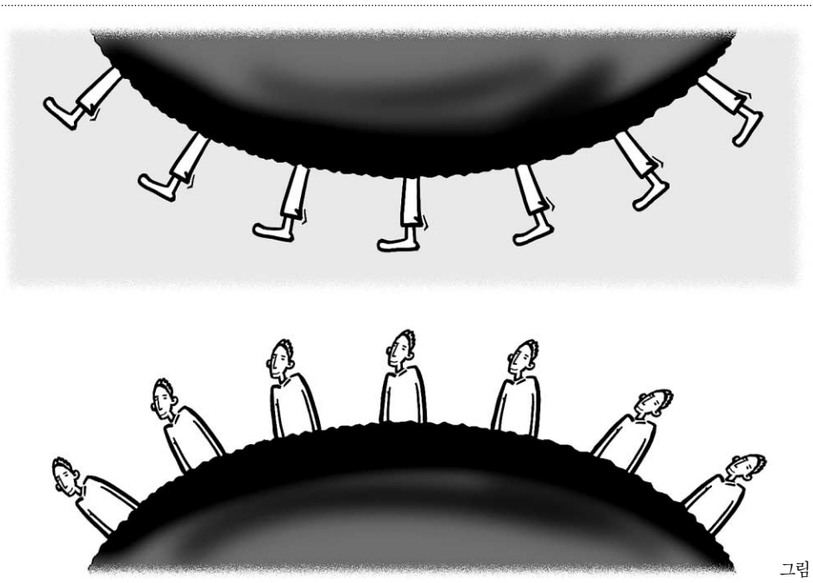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냥 딛고 가면서 그저 오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안에서 일어나는 대로, 바깥에서 닥치는 대로, 그대로 받아넘기면서 그대로 굴려라.'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싱그럽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어지럽고 괴롭게 사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 어떤 때는 너무나 딱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나 깨나 여러분한테 이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일분일초도 내 사사로운 생각을 해 본 예가 없습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떠한 결과가 생기느냐. '다 먹어야 다 쓸 수 있다.' 이런 데서 미생물 하나 버림이 없이 전부 나 아님이 없다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요거 하나에 착을 둔다면, 그 습을 가지고선 습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습성이 그냥 앙금처럼 앉아 있어서, 아무리 떼려고 애를 써도 떼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떼려고 해서 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는 떼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제자리에다 되놓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진짜로 믿는다면 죽으나 사나 당장 하늘이 무너져서 쪼개진다 하더라도, 제 생명이 그냥 죽는다 하더라도 껄껄 웃고 거기다 놓을 수 있어야만 벗어나는 겁니다.

나도 얼마나 많은 실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닥치면 실험하고 또 닥치면 또 실험을 하고, 진짜로 자기가 자기에게 닥치게 해서 또 실험을 하고, 네 마음은 어떤 것이냐, 네 마음은 진짜로 그렇게 됐느냐 안됐느냐 하고 실험을 해 본 지가 근 10년이 넘어갔습니다. 그거를 몽땅 다 떼려면 깨달아 가지고도 그만큼 걸린다는 거죠. 떼는 게 아니고 그냥 놓는 건데…. 우리가 세상살이 살림을 할 때 가만히 보세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우리가 몸뚱이 하나를 가지고도 더불어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높고 낮음도 없다. 내 몸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같이 더불어 먹고, 같이 더불어 보고, 같이 더불어 듣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으니까 높다고 할 수도 없고 얕다고 할 수도 없고 평등한 나 자신이다.' 이겁니다.

이럴 때 모든 것이 다 평등하게, 바깥에도 다 평등하게 돌아가는 게 뭐냐 하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화(化)해서 바로 나투고 진화되고 이렇게 해서 모두 달라지고 달라지고 이러는 거죠. 물에서 노는 거나, 들에서 노는 거나,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가 확 벗어나지 못하니까 조그만 거라도 환경에 맞게 진화시키는 거죠. 만약에 물속을 활보하는데 지느러미가 필요하다면 지느러미를 나오게 하고, 또 가파른 산길을 다니기 위해 앞발을 좀더 짧게 하고, 또 평지에서 많이 뛰 뛸 때는 좀더 길게 하고…, 이런 작업들은 합니다. 허나 그거를 좀더 높여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 하천세계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중천세계에서 떨어지거나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뭐 고정된 게 없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보면 "아이구, 이만하면 사는 건데 뭐, 그런 공부는 해서 뭘 해. 죽으면 그만인 걸." 이러지만 허, 천만의 말씀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그만이라면 이 세상에 생겨나는 것도 없을 거고 진리라고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요거 한마디만 하고요. 옛날에 쥐가 말입니다, 쥐 한 가족이 큰 가족이 될 때까지 하룻밤에 쥐 한 마리씩 물어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쥐 한 가족이 큰 가족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쥐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쥐 한 가족이 큰 가족이 되는 동안에 고양이는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한 마리가 쥐 한 가족이 큰 가족이 되는 동안에 쥐 한 가족이 큰 가족이 되는 것을 보고 고양이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먹고 살 게 없겠다." 이래서 고양이가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쥐 한 가족이 큰 가족이 되는 동안에 쥐 한 가족이 큰 가족이 되는 것을 보고 "야,

차원이 높든지 낮든지 자기 차원서 벗어나야

☞29면에서 계속

는 요만한 등잔을 쭈욱 절마다 놓고선 거기다 꼬리표 해서 붙이고요. 나는 참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저렇게 눈 떼어 놓고 코 떼 먹고, 하하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부처님은 자비하기도 하시지.' 뼈다귀를 요 발가락까지도 고아서 먹어도 그냥 아무 소리가 없어요. 하하하…. 그러니 아이구, 참 별의 별 나게 해 먹어도, 껍데기를 벗겨 먹어도 가만있고, 뼈다귀를 고아 먹어도 가만있고, 뭐 살을 떼면 또 살이 붙고, 또 떼면 또 살이 붙고 이러니, 아니 영구히 떼어 먹어도 아마 다 못 떼어 먹을 겁니다. 그러니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불법을 지니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부처님 법이 완전히 설 수도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하느냐에 따라서 미신이 될 수도 있고 귀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부처님 법을 올바로 알 수 있는가? 불교라 하면 그저 스님네들만 불교를 가진 줄 알지 마세요. 이 세상 천지가 다 불교예요, 생명 가진 거는 다. 지수화풍도 생명을 가졌으니까 다 불(佛)이고요. 그래서 불, 불, 불, 천체가 생명 가진 거는 불 아닌 것이 없죠. 그래서 불성 없는 게 없다 이런 말이죠. 불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영령이, 즉 말하자면 뜻으로 통하고, 말로 통하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해서 온 세계가, 아니 우주 삼라만상이, 우주 뿐만 아니라 과거 · 미래 · 현재 이것이 그냥 돌아가는 그 자체를 우주라고 한다면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우주 천하' 이렇게 할 수 있죠. 우주 천하! 그것이 한생각에 한 찰나에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한 찰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간다고 그러죠. 또 빛은 가다가도 하차할 수가 있지만, 이 찰나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땅속이나 천지 어디든 깊어서 못 간다, 넓어서 못 간다, 높아서 못 간다가 없어요. 과거로도 돌아갔다가 미래로도 갔다 현재로도 왔다가, 마음대로 자유자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뜻을 들어서 알고 있으면, 그렇다더라 하고만 있어도, 요다음에 나올 때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 하는 것도 자기가 자유자재할 수 있죠. 정말 몸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차적이고, 일차적으로는 몸을 내가 어떻게 가지고 나와서 어떠한 소임을 맡느냐? 그리고 그 소임을 말아서 얼마만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먹여 살릴 수 있고, 얼마만큼 사람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모든 생명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라고, 또 만백성을 다 거느리고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 거쳐야…, 그렇게 해도 부처님이죠, 뭐. 꼭 머리만 깎아야 되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대통령이 된다 이러는 것도 과거로부터 지어 놓지 않았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예요. 자기가 지어 놨기 때문에 나쁘든 좋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윗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 그러면 요다음에 또 이어지질 않아요. 자기를 아는 사람 같으면 잘 리드해서 둥글게 나갈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힘이 있다면 백성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하지를 않죠, 그 힘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나 사나, 못났든 잘났든 한생각을 그냥 잘 내세요. 이 공부한다고 해서 벼락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자기 앞가림은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앞가림도 하게 해 주지, 공부하게도 해 주지, 그저 마음 착하게 살도록 하고 세세생생에 이어지게 해 주지. 자기 윗소 자체가 얼마나 좋아요?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도 거칠 게 없고
> 걸릴 게 하나도 없이 그냥 돌아간다
> 그러니 돌아가는 대로 그냥 그냥 기쁘게 살라!

▲질문자1(남): 큰스님께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높은 법문을 설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항상 열심히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요, 예불 끝나고 나서 가끔씩 천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옆에 남아서 같이 마음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법우가 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천도재 지낼 때 옆에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을 냈느냐, 그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을 받고 보니까 저도 뭐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대답을 하기가 참 난감했는데 제가 한 그대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일체를 다 둘로 보지 않고, 영가도 나와 둘로 보지 않고, 또 천도라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근본자리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오로지 그 근본자리에서만이 진리의 세계로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관(觀)한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대답이었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또 제가 올바로 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어서 큰스님께 이렇게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큰스님: 내가 재사 지내거나 천도재를 하거나 이럴 때 왜 떡을 둥그렇게 몇 조각 해 놓으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반찬을 해서 놓고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도로 묶어 놓으려면 반찬들을 해 놓고 그렇게 뚱땅거리고 지내도 되고, 그렇지 않고 부처님하고 한자리를 하게끔 하려면 그냥 둥그렇게…, 그것도 안 해 놔도 되는 건데, 남이 볼 때도 그렇고 우리도 섭섭하고 그러니까 둥그런 떡을 하나 해 놓고 삼색 과일만 한 그릇에 그냥 놓고 초 향만 켜고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살면서 지어 놓은 그 먹고 살던 습이 죽어서도 떨어지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죽어서도 자기가 먹고 살던 그 생각이 나서 자꾸 뭘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먹지도 못하면서도 먹게 해 달라고 하고 성가시게 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성가시게 군다 하더라도 잘되기만 하면 좋은데 잘못됐으니까 성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 양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떡을 하나 해 놓고, 지내는 사람이 떡 안에 다 한마음으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지내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낸다.' 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음' 하면 벌써 떡 하나예요. 한마음 하면 떡 하나로 표현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령들을…, 이런 좁쌀 알갱이 하나에다가 일체 제불의 마음을 다 넣어도 이게 두드러지지도 않으면서 똑 알맞고, 일체제불의 마음을 이 큰 그릇에다가 넣어도 또 크면 큰 대로 차고 작으면 작은 대로 차고, 아주 그렇게 여여하다 이 소립니다.

자손들이 부모에게 재사 지낼 때에 조상들이 살 때의 그 습기를 다 떼게끔 내 마음과 둘 아니게 만드세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상의 마음도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굴려서 놓으면 거기에서 굴려서 다 세척이 되듯이 깨끗하게 모두 나오죠. 왜, 세탁소에 들어가면 깨끗하게 빨래가 돼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이 된단 얘기예요. 그럽으로써 그 떡 하나도 족하다 이런 말이죠. 이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는 되남더라 이런 말이에요.

▲질문자1(남): 그런데 굳이 이렇게 천도재를 형식적으로 지내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일체 중생들과 또 조상 영가와 다 함께 같이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먹게 되면 그것도 그 작용을 한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큰스님: 그건 당신 마음이지. 그거는 당신 마음이고 죽은 영가들은 그렇지를 않아. 우리 여기 살아 계신 분들도 다 마음이 천차만별인데, 죽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 이런 도리를 하나도 모르고 돌아가신 양반들은 절대 그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라도 하면서, 이게 왜, 콱 해 놓으면 부러진단 말 있지. 너무 녹진녹진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알맞게 하면서 서서히 맑게 청정하게 이끌어 드리는 거지.

▲질문자1(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질문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써….



그림 · 최주현

큰스님: 질문이 없어요? 그래요? 질문을요, 꼭 모르는 것만 질문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알면서도 떡 그릇에 그냥 얹어지는 수가 있죠. 알면서도 그냥 덮어놓고 들어가는 수가 있죠. 그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것에서 많이 얻을 수가 있죠. 참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분들은 모두 이제는 다 도인들이 되셔서, 하하하…, 이거 해도 아시고, 저거 해도 아시고, 그거 해도 아시니까 다 그저 열심히, (합장하시며) 여러분과 저와 도반이니까 열심히들 해 봅시다.

※위 법문은 1995년 6월 4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BBS 대구불교방송 과 함께하는

해외 불교 문화 답사

韓·日의 미래! 새로운 역사로 시작되는 韓·日佛敎

일본 오사까, 나라, 교토 불교성지순례

◇기 간 : 2006.07.13(목)~07.18(화) 5박6일
◇출발일시 : 2006.07.13(목) 오전 11시
대구불교방송 앞(건들바위네거리)
(오후4시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일본 오사까행 대형여객선 '팬스타' 출발)
◇순례지역 : 일본(오사까, 나라, 교토 불교성지)
◇비 용 : ₩560,000 / 1인
(입금계좌 : 대구은행 033-05-002384-7, 예금주 : 자비의전화)
◇포함내용 : 여객선비용, 현지지상경비, 항만세, 여행자보험, 현지숙식, 가이드팁, 봉사료, 대구↔부산왕복 전세버스
◇준비사항 : 여권사본 1부
(출발일 기준기한 만료 6개월 이상 유효)
◇신청마감 : 2006.07.03(선착순 조기마감 가능)
◇신청접수 : 053)427-5114 / 홈페이지 : www.dgbbs.co.kr
◇주최·주관 : 대구불교방송 해외불교문화답사팀

대구불교방송 일본성지순례 일정

날짜	지역	교통편	시간	상 세 일 정
7/13 (목)	대 구 부 산	팬스타	11:00 13:40 16:00	대구 불교방송국 앞 집결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2층 출국장 앞 집결(13:40) 출국 수속 후 부산 출발, 오사까 향발 선내 석식 및 휴식(대욕탕♨)
				HTL : 팬스타 (다인실)
7/14 (금)	오사까	팬스타 전용버스	10:00	선내 조식 후 오사까 남항 도착 입국 수속 사천왕사, 일본 3대 명성 중의 하나인 오사까 성 관람 오사까 최대 번화가 도톰보리 & 신사이 바시 관광 시내 석식 후 호텔 이동 / 체크인 및 휴식
				HTL : 오사까 호텔 OR 동급 (2인1실)
7/15 (토)	오사까 교 토 오사까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천년고도 교토 이동 금각사/ 동본원사/ 이조성/ 청수사/ 광륭사/ 이층(귀무덤) 순례 후 오사까 이동 시내 석식 후 호텔 이동 호텔 도착, 체크인 및 휴식
				HTL : 오사까 호텔 OR 동급 (2인1실)
7/16 (일)	오사까 나 라 오사까	전용버스		호텔 조식 후 나라 국립공원 이동 동대사 & 사슴공원/ 춘일대사/ 흥복사/ 약사사 순례 후 오사까 이동 일본 속의 한국인 재래시장 쯔루하시 시내 석식 후 호텔 도착, 체크인 및 휴식 ♣ 한 · 일 불교 교류행사 및 법회
				HTL : 오사까 호텔 OR 동급 (2인1실)
7/17 (월)	오사까 고 베 오사까	전용버스 팬스타	16:00	호텔 조식 후 오사까 남항 이동 후 면세 선물코너 방문 고베 이동 고베 한신 대지진 방재센터 체험/ 메리켄 파크/ 출국 수속 후 팬스타 승선 / 오사까 출발, 부산 향발 선내 석식 및 휴식
				HTL : 팬스타 (다인실)
7/18 (화)	부 산	팬스타	10:00	선내 조식 후 부산 도착 대구로 출발 대구 불교방송국 앞 도착 후 해산

*상기일정은 선편 및 현지사정으로 인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향상일구’ 이룰때까지 (상)

(向上一句)

이만덕 (서울 은평구 대조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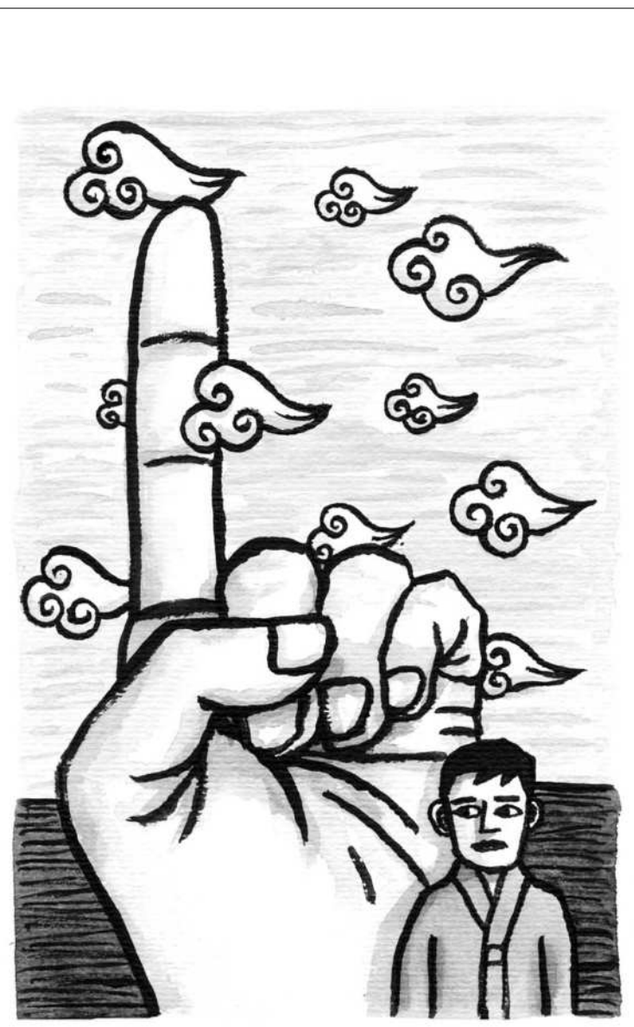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내가 간화선 수행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 여름입니다. 당시 사법고시 2차시험을 치르고 쉬고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조계종 안국선원에서 참선공부를 해 오고 있었던 누님이 시험이 끝난 나를 선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원에 가서 초심자 법문을 들었습니다. 당시 스님께서는 “사회윤리로 보면 선은 진리이고 악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선도 진리이고 악도 진리입니다. 불교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광명을 밝히기 위한 수승한 수행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두공부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심자 법문을 듣고 약 한 달 후 안국선원에서 간화선 초보자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초보자 과정에 약 5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저는 빠르면 5일, 길어도 10일이면 간화선 초보자 과정을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대한 빨리 이 과정을 끝내고 합격자 발표 때까지 여행을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첫날 스님께서 화두를 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검지 손가락을 굽혔다 폈다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이 뭣고)?”

이에 일부가 “불성입니다. 마음입니다. 제 손입니다” 등등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스님께서는 “손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면 죽은 송장도 손이 있는데, 죽은 송장은 왜 손을 움직이지 못합니까? 불성, 마음이란 것은 여러분이 배워서 안 것이지 답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뭣고?)을 던졌으니 여러분은 답만 찾으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화두(이 뭣고?)가 들려 있으니 ‘이 뭣고’를 외우지 말고 검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만 찾으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시간 정도의 법문이 끝나고 각자 참선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자리를 잡고 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답을 찾아야 할 지 난감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괴롭혔던 것은 ‘내가 정말로 화두를 들고 있는가?’였습니다. 통상 무엇을 들고 있다면 손으로 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두를 받기 전이나 받고 난 다음이나 제겐 아무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화두를 들고 있는지 의심이 갔습니다. 또 하나 어렵게 느껴진 것은 ‘어떻게 답을 찾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수학 문제는 공식에 따라 풀면 되고 사람사이의 갈등이라면 찾아가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으면 문제가 풀리는데, 스님께서 “머리는 없는 셈 치고 온몸으로 답을 찾으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경계 경험한 이들 늘때마다 더욱 분심 생겨
의심 길수록 괴롭히는 기운으로 인해 불안

둘째 날 역시 한시간 정도 스님의 법문을 듣고 또 자리에 앉아 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날 망상을 많이 피워서인지 둘째 날은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생각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날 스님께서는 법문을 통해 “오늘부터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편으론 공부를 방해하는 일들도 나타납니다. 화두 공부를 하다가 의심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두 참구 3일째가 되니까 저는 좀 초초해지기 시작했고 답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신경이 예민해 졌습니다. 첫 날 스님께서 화두를 주시던 장면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검지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일까를 떠올려 보고, 다시 답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두 참구 5일째에 접어들자 공부 중에 경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옆방으로 나가서 스님께 점검을 받고 초심자 반을 빠져 나갔습니다.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공부를 마치고 나가자 더욱 분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이 공부를 하려면 대분심, 대의심, 대신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더 열심히 해보자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일정이 하루밖에 안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10여명은 선원 사무실에 이야기하고 밤을 새서 화두를 참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화두를 참구하다가 끊어지면 다시 밤새워 화두를 들기위해 노력했지만, 답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님의 마지막 점검을 기다리는데, 저는 절망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 옆에서 화두 공부를 하였던 노 보살님은 조는 시간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경계를 체험하고 나갔고, 저보다 훨씬 적게 공부하였던 다른 분들도 점검을 받아 나갔는데, 가장 열심히 참구한 사람 중의 한 명이었던 제가 답도 찾지 못한 채 마지막까지 패잔병처럼 앉아 있으니 누님 보기도 민망하였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스님과 도반이 없는 초보자 반에서 혼자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화두를 들고 공부하다가 조금만 방심하거나 딴 생각을 하면 화두가 사라졌습니다. 3~4시간 이상을 놓치지 않고 참구해 왔는데 갑자기 사라지면 기운이 쑥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또 처음부터 화두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님이 안 계시는 선원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제 자신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화두가 들려 의심이 지속되는 시간이 늘어갔지만 이에 비례해서 알 수 없는 두려운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좌복에 앉아서 답을 찾는데 온 힘을 집중하면 화두의심이 슬며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타난 화두 의심은 어린 아이 숨소리처럼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망상을 피우거나 몸을 크게 움직이면 화두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 말씀처럼 화장실 갈 때도 화두 의심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면서 살금살금 걸어갔고 물 한 모금 마실 때에도 화두 의심이 도망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마셨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만히 참구해 나가자 화두 의심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져 갔습니다. 화두 의심이 갈수록 가늘어지고 약하게 감지되어 끊어 질듯 해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화두의심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지자, 화두 의심에 수반해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 왔습니다. 군대에서 한여름에 방독면을 쓰고 행군할 때 느꼈던, 호흡이 거칠어지고 속이 울렁울렁하고 답답한 기운들이 화두 의심에 수반해서 제 안에서 몰려 나왔습니다. 스님께서는 화두 공부 중에 잘못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화두를 들고 화두 의심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괴롭고 답답한 기운들도 덩달아 날뛰었습니다. 찾으려는 답은 나오지 않고 엉뚱하게 괴롭히는 기운들로 인한 불안감만 커져 가져 결국 저는 혼자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생각하고 부산 안국사로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행자(예비스님) 모 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회주이신 우학스님 상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011-9852-0075 (총무스님)

탈종공고

- 사찰명 : 약사암
- 약사암 채권인 대표 : 손 동수
- 주 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와 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 합니다

2006년 5월 30일

사)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법하

무효공고

- 사찰명 : 해동종 약사암
- 법명 : 자안 (태순희)
- 주 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상기인은 2004년 12월부터 약사암 주지로 소임행사하였으나 2006년 5월 30일부터 사용된 사찰명과 직인을 무효로 공고함

- 공고인 : 약사암 채권자 대표 손동수
- 주 소 : 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한동 산 44

2006년 5월 30일

부처님 당시 제자

500나한 불사 겸 1000일 기도

오백나한 겸 천일기도를 불사 받아 수도권 최고의 나한전(羅漢殿)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라한은 응공(應供), 응진(應眞), 무학(無學), 이악(離惡), 불생(不生)등으로 불리우며 성문(聲聞)들 가운데 최고의 성자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번뇌를 완전히 끊어 열반을 성취한 성자를 일컬으며 복덕이 구족하고 신통 자재하여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네 인생,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한 불사도 이 생에 한번 인연 닿기 힘든 불사입니다. 어렵게 만난 인연들 소중이 성취 하시고 그 공덕으로 가정의 화목과 건강, 사업성취, 소원성취, 학업성취 나아가 성불의 인연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하얀마음선원 덕봉 합장
031)707-0108
분당선 이매역 1번출구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60) 영동 천태산 영국사

빼어난 풍광 곳곳에 산불 흔적 안타까워


천태산 산불(2005년 4월 발생)현장.


수령 1000년의 영국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223호).


미나리냉이와 대만흰나비


먹줄잠자리

충북 영동지역은 백두대간에 접한 전형적인 내륙 산간이다. 민주지산(1241m), 각호산(1204m), 삼도봉(1177m), 황악산(1114m) 등 1000m를 웃도는 산들이 삼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천태산(天台山)은 715m로, 이 산간지대에 중간치산에 지나지 않지만, 기암괴석과 아기자기한 폭포와 유수한 불교문화재들을 품은 100대 명산(산림청 선정) 가운데 하나이다.

천태산 품속 영국사(寧國寺)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 전략적 포석(布石)으로 창건한 것으로 보인다.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국청사'라는 이름으로 중창한 후,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이곳에 머물며 '영국사'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러나 <고려사>에 나타난 공민왕의 파천길이 영국사를 멀리 벗어나 있어서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

주차장에 내려 영국사까지는 1.5km, 걸어가기에 딱 좋은 산길이다. 산길에서 만나는 삼단 폭포는 영국사의 명당수로서, 호탄천의 상류를 이룬다. 용추폭포(龍湫爆布)라는 옛 이름을 당국에서 생각 없이 '삼단폭포'로 고쳐 놓았다. '용추'라는 이름에는 물을 용신(龍神)으로 섬겨온 옛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깊은 배려가 깃들어 있다. 지금이라도 옛 이름을 되찾아 줄 일이다.

망탑봉은 천태산의 화강암 암맥이 뻗어 내려와 이루어 놓은 거대한 암괴(巖塊)다. 영국사의 안산이자 좌청룡인 망탑봉이 없으면 영국사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꼴이 된다. 이 봉우리에 세워진 망탑은 바로 이 요처를 지키기 위해 세운 비보탑이다.

망탑봉에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돌아보면 산불 흔적이 곳곳에 시커멓게 남아있다. 지난해 4월 천태산 남쪽 가선리 야산에서 방화성 실화로 일어난 산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북상하여 다음날 영국사 쪽으로 옮겨 붙었다. 헬기와 소방차를 비롯한 각종 소방장비를 동원해 영국사를 사수한 결과 다행히 50m 전방에서 기적적으로 산불이 잡혔다.

망탑봉을 내려오면 천연기념물 제223호인 은행나무를 만난다. 천년 가까운 고령에도 불구하고 나무 높이 31m, 가슴 높이의 둘레 6m로 청년같은 노익장을 보여주고 있다. 서쪽 가지는 땅에 닿아서 뿌리를 내려 다시 새로운 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4년 전 새로 지은 만세루를 지나 계단을 올라서면 마당에는 삼층석탑과 대웅전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 충청대에서 주변을 발굴조사하고 있는데, 삼성각 뒤쪽 절터를 본래의 대웅전 터로 추정하고 있다. 발굴과정에서 출토된 청자기와는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개성 만월대 출토 청자기와 이후 남한에서 처음 발굴된 청자기와로 밝혀졌고, 진흙으로 만든 소조부도(塑造浮屠)도 전에 없던 것이다. 이 두 유물이 영국사의 전성시대를 무언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웅전 마당에는 잘피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겹벚나무 등이 자리하고 있으나 수령이 모두 50년 미만이다. 때마침 겹벚나무에서는 연분홍 꽃잎이 꽃보라처럼 바람에 날리고 있다.

화장실 옆에는 분리되지 않은 채 빈 병, 1회용 컵, 종이상자, 비닐 등이 한데 쌓여있다. 영국사는 호탄천 최상류 지역이라서 쓰레기를 함부로 태워서 묻으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수고스럽지만 절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야 하고, 영동군은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해가야 할 것이다.

절 뒤로 갯버들에 뒤덮힌 습지가 있다. 미나리냉이, 미나리아재비꽃, 골풀들이 푸릇하게 어울려 피었다. 만발한 유채화와 미나리냉이 등의 풀꽃들이 온갖 나비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있다. 나비들은 대개 여름 안거가 시작되는 5월 중에 가장 다양하게 나타난다. 봄 나비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른벌레로 겨울을 난 나비들과 서둘러 나온 여름 나비까지 볼 수 있다.

원각국사탑비(보물 제534호)의 비신은 점판암이다. 점판암으로 비신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부터이다. 점판암은 대개 세립질 점토와 일부 모래 또는 화산먼지 등으로 구성된 퇴적암으로 분류된다. 박리의 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원석에서 쉽게 떨어지고, 재질이 부드러워 조각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풍화작용에 약한 결점이 있다.

원각국사비 주위로 도래솔들이 늘씬하게 서 있다. 천태산은 바위로 이루어진 골산인 까닭에 소나무들이 숲을 우점하고 있다. 더러는 바위틈에서 어렵게 자라다보니 분재를 많이 닮아 있다. 그래서 일부 몰지각한 이들이 눈독을 들였다가 몰래 반출해 가기도 한다.

부도 건너편 능선은 도산통이다. 도산통이란 마사토로 이루어진 구릉이나 산을 가리키는데, 안동의 도산면 지역에 흔하기 때문에 그 지명에서 말을 따왔다. 마사토는 결이 거친 화강암이 오랜 풍화작용으로 부스러기가 된 풍화모재층(saprolite)이다. 수분이나 토양분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척박하다. 그래서 오랜 세월 소나무들이 차지해 왔는데, 지난 번 산불로 푸른 솔숲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다.

마침 영동군청 발주로 산림조합에서 산벚나무와 단풍나무를 심고 있었다. 척박한 토양에서 이들 나무가 뿌리를 제대로 활착시킬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원각국사길 쪽으로는 3년생 소나무를 심어 복원하고, 영국사 절 주변으로는 은행나무를 심었다.

숲 바닥에는 산불 피해로 둥글레와 노루발 등 겨우 몇 종의 초본들만 꽃을 피우고 있다. 주변 개울에서는 때맞춰 쇠측범잠자리도 우화를 하고 있다. 쇠측범잠자리는 연못이나 저수지보다 그늘진 개울을 좋아한다.

습지와 마을 골짜기에 키 큰 양버들이 서 있다. 이름에 '버들'이 들어가 있지만, 사시나무 종류에 속한다. 개화기에 유럽에서 들어와 '구주백양(歐洲白楊)' 또는 '포플러(Populus)'라고 불렸다. 40~50년 전 나무상자나 성냥개비를 만드는 경제목으로 많이 심었고, 시골 도로변에 가로수로도 많이 심었다.

영국사 주변에서 조류상이 빈약해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지난해 산불의 영향일 것이다. 불에 탄 나무엔 새들이 둥지를 틀지 않고, 산불로 숲이 사라진 곳에 새들이 깃들 리 없다. 산불의 피해가 비교적 덜한 북동사면의 숲에서 겨우 검은등뻐꾸기 소리를 듣는다.

도가실로 넘어가는 길 주변으로는 다양한 활엽수들이 지난 해 화마를 피해서 다행히 건강한 숲을 이루고 있다. 활엽수로는 말채나무, 느티나무, 때죽나무, 고로쇠, 노린재나무, 느릅나무, 검팽나무, 신나무, 단풍나무, 산딸나무, 조릿대, 개옻나무, 물오리나무, 노간주, 팥배나무, 비목, 철쭉, 진달래, 병꽃나무, 조팝나무, 조릿대 등이 보인다.

그러나, 인적 드문 길이라 가끔 나무도둑이 출몰하기도 한다. 때마침 몰지각한 사람들이 차를 몰고 와 조팝나무를 몰래 캐다가 영국사 신도에게 발각되어 경찰에게 곤욕을 치루고 있었다.


망탑(사진)이 세워져 있는 망탑봉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산불의 흔적이 천태산 곳곳에 남아있다. 망탑봉이 없으면 영국사는 담장과 대문이 없는 꼴이 된다.

요처 지키기 위해 거대한 암괴 봉우리에 망탑 세워

삼성각 주변서 출토된 청자기와 등 전성시대 짐작

산불로 숲·식생 파괴… 원각국사탑비 풍화 우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http://ad.buddhapia.com

불교 최초 실시간 온라인 광고 사이트
애드부다피아!!

인터넷세상, 이제 불교계도 모든 광고와 정보를 인터넷으로 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해야 하는 사찰관련 홍보나 행사, 법회안내, 그리고 급하게 구하는 구인구직자리....
아직도 신문이 나오는 날짜만 기다리며 광고를 하십니까?

이제 애드부다피아를 통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광고의 본질적인 효과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속도로 실시간 광고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간지인 불교계의 신문에 광고를 하려면 최소 1주일에서 많게는 2주 이상이나 광고접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중요한 법회나, 행사 등과 관련한 광고의 경우에는 원하는만큼의 광고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드부다피아는 실시간으로 바로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급박하거나 홍보기간이 중요한 광고에서 최대효과를 약속합니다.

광고 신청도 빠르고 편리합니다!
일일이 전화나 팩스로 광고를 신청해야 하고 또 광고문안이 나오면 다시 확인, 수정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애드부다피아는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또 바로 온라인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다피아, 붓다뉴스가 함께 합니다.
국내 최대의 불교포털사이트-부다피아, 국내 최대의 불교 인터넷 뉴스 -붓다뉴스와 함께하는 부다피아는 이미 불교계에선 국내 최대의 방문수를 자랑합니다. 애드부다피아는 이러한 부다피아, 붓다뉴스와 상호연계하여 광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최다노출을 극대화할 수 있어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광고와 함께 풍부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많은 정보를 보여줄 수 없었던 지면광고와는 다르게 애드부다피아에서는 표현하고 싶은 광고의 모든 컨텐츠를 담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보다 역동적인 동영상 서비스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수정, 보완이 가능한 편리한 광고 시스템입니다.



[광고접수문의] http://ad.buddhapia.com / admaster@buddhapia.com 전화 : 02)2004-8213~7, 02)732-1522(직) / 팩스 : 02)737-0696